월간 북한 동향

Monthly Report on North Korea

2017년 5월

통일부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자료는 북한 자료의 특수성과 언어표현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가. 언어표현 및 어문 규정 적용

o 대내·대남·대외 동향 주요 내용: 북한 원문 그대로 적용

※ 예외 경우

① 북한 정권 및 주요 인사들에 대한 찬양 수식어 및 '동지' 표현은 삭제
ex)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 1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 '김정은'

② 특정 행사 관련 내용은 △일시 및 장소 △참석자(주석단, 동행, 맞이 등) 별도 정리

o 개황·동향 제목·동향 개요·주간 보도일지·주요인물 동정: 국립국어원 기준 적용

※ 단, 북한 원문에서 사용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인용부호와 함께 표기

o 남·북한 표현 차이 및 띄어쓰기 관련

① 간단한 표기차이는 '괄호'로 보완 ex) 루출(누출), 페허(폐허)
② 북한식 표현 중 상세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각주' 처리
③ 띄어쓰기는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용

나. 북한 주요 인물 직책 표기

o 북한 원문을 그대로 적용하되 직책이 여러 개일 경우, 대표 직책만 표기

o 동일한 '대내·대남·대외 동향 주요 내용'에서 주요 인사들이 여러 번 언급될 경우, 직책은 최초 1회만 표기하며 이후에는 이름만 표기 ('주요인물 동정' 및 '주간 보도일지'에서는 대표 직책 표기)

※ 대내·대남·대외 동향 페이지 구성



2. 본 자료의 내용들은 북한 주요 언론매체들의 원문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각 자료들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o 주간 보도일지: 북한 주요 언론매체들의 '보도일'을 기준으로 작성

o 동일한 내용을 다수 매체에서 보도한 경우, 보도순서에 따라 출처 표기

3. 본 자료에 수록된 자료는 북한 자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표현 및 시기에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 참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1 개 황

대내동향

6 김정은 당 위원장 공개 활동

6 '장재도 방어대'와 '무도 영웅 방어대' 시찰

8 '낙랑 영예군인 수지 일용품공장' 시찰

9 '인민무력성 기공구, 마감 건재품 및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장' 시찰

10 조선인민군 건설부문 열성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11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 미사일 '화성 12형' 시험발사 참관

13 '화성 12형' 개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

14 '북극성 2형' 시험발사 참관

15 '신형 반항공 요격유도 무기체계' 시험사격 참관

16 '정밀조종 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 참관

18 북한 주요 인사 현지 시찰

18 박봉주 내각 총리, 평양 자동화기구 공장 시찰

18 최룡해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평원군 원화 협동농장 시찰

19 박봉주 내각 총리, 함흥시 중요 공장 및 기업소들 시찰

19 박봉주 내각 총리, 황해남도 연안군 농사실태 시찰

20 '5.1절' 맞이 기념식 및 경축행사 진행

22 여명거리 건설자 및 지원자들에 감사문 전달 모임 진행

23 「216 사단」, 삼지연군 본격 공사 진입

24 北, 가뭄피해 방지사업에 총력

26 문화·예술 관련 성과 선전

28 '탄소하나 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대상건설 착공

29 「조선 자연보호연맹」·「미란다 자연기금」 서해안 철새 공동조사 실시

Contents

30 전국 수산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진행
31 단천 발전소 건설 착공
32 '제20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 전람회' 진행

대남동향

34 「전민족대회 북측 준비위」 공보
35 「조국통일연구원」 고발장
37 「국가보위성」 대변인 성명
39 「조평통 정책국」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40 제19대 대통령 선거 보도
41 「중앙검찰소」 성명
42 「미군 범죄 진상규명 전민특위 북측 본부」 대변인 담화
43 「민화협」 대변인 담화
46 「아시아태평양 평화위」 대변인 담화
48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49 「조선 평화옹호 전국 민족위」 대변인 성명

대외동향

51 「외무성」 대변인 담화
55 「조선중앙통신」 개인 논평
58 「외무성 미국연구소」 대변인 담화
59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64 北, 미국인 '김학송' 5월 6일 억류 보도
65 「최고인민회의 외교위」, 美 국회 하원에 항의 서한
66 「駐 유엔 北 상임대표부」 공보문

Contents

69 「국제문제연구원 법률연구소」 소장 담화

71 「아시아태평양 평화위」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73 「외무성」 부상 박명국 담화

75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문제 대책위」 대변인 담화

76 **주요인물 동정**

90 **월간 보도일지**

133 **금월의 약사**

개 황

대내동향

김정은 당 위원장 공개 활동

o '장재도 방어대'와 '무도 영웅 방어대' 시찰(5.5, 중통)

o '낙랑 영예군인 수지 일용품공장' 시찰(5.10, 중통)

o △'인민무력성 기공구, 마감 건재품 및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장' 시찰 △조선인민군 건설부문 열성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시험발사 참관(5.13~15, 중통)

o △'화성 12형' 개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 △'북극성 2형' 시험발사 참관(5.20~22, 중통)

o △'신형 반항공 요격유도 무기체계' 시험사격 참관 △'정밀조종 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 참관(5.28~30, 중통)

북한 주요 인사 현지 시찰

o 박봉주 내각 총리, 평양 자동화기구[1] 공장 현지 시찰(5.8, 중통)

o 최룡해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평원군 원화 협동농장 현지 시찰(5.13, 중통)

o 박봉주 내각 총리, △함흥시 중요공장 및 기업소들 △황해남도 연안군 농사실태 등 현지 시찰(5.22~27, 중통·중방)

'5.1절' 맞이 기념식 및 경축행사 진행

o '5.1절'을 맞아 △국가의 책임 일꾼들, 각지 근로자들이 함께하는 기념식 △중앙과 지방에서 다채로운 경축행사가 진행되었다고 보도(5.1, 노동·중통)

여명거리 건설자 및 지원자들에 감사문 전달 모임 진행

o 여명거리 건설자 및 지원자들에 감사문 전달모임이 각지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5.1, 중방)

「216 사단」, 삼지연군 본격 공사 진입

o 양강도 삼지연군을 꾸리기 위해 「216 사단」의 전투원들이 본격 공사에 진입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5.8, 중통)

1) 자동화기구 : 『북한어』 생산 및 기술 공정들의 자동화에 쓰는 전기기구. 여기에는 지령장치, 측정장치, 비교장치, 교정장치, 증폭장치, 신호장치, 수행장치 등 자동체계 전반에 쓰이는 여러 가지 전기기구 및 기계들이 속함.

北, 가뭄피해 방지사업에 총력

o 가뭄피해 방지 사업 및 첫 모내기 진행 보도(5.10~11, 중통)

문화·예술 관련 성과 선전

o △'평양 수예연구소' 창립 70돌 기념보고회 진행 △제12차 '건축 미학 토론회' 진행 △'조선 혁명박물관' 개관 후 동향 보도(5.10, 중방·노동·중통)

'탄소하나 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대상건설 착공

o '탄소하나 화학공업'[2] 창설을 위한 대상건설[3] 착공 보도(5.14, 중통)

「조선 자연보호연맹」·「미란다 자연기금」 서해안 철새 공동조사 실시

o 조선 자연보호연맹과 뉴질랜드 미란다 자연기금이 서해 연안 일대에서 진행한 철새 공동조사 보도(5.15, 중통)

전국 수산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진행

o 전국 수산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진행되었다고 보도(5.17, 중통)

단천 발전소 건설 착공

o 단천 발전소 건설 착공식 진행 보도(5.19, 중통·노동)

'제20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 전람회' 진행

o '제20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 전람회'가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다고 보도(5.22~24, 중통)

대남동향

「전민족대회 북측 준비위」 공보

o 5월 1일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진행된 '전민족대회 북남 노동자단체 준비위원회' 결성식 보도(5.1, 중통)

2) 탄소하나 화학공업 : 석탄으로 메탄올을 만들고 그것으로 기초화학 제품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공업.
3) 대상건설 : 『북한어』 큰 규모의 종합적인 건설대상 안에 포함된 개별적 대상에 대한 건설.

「조국통일연구원」 고발장

o 대선 관련 보수진영 비난(5.4, 중통)

「국가보위성」 대변인 성명

o 한미 정보당국의 '김정은 테러' 시도를 주장하며 비난·위협(5.5, 중통·중방)

「조평통 정책국」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o 통일부의 '남북 인권대화' 추진 비난(5.5, 중통·중방)

제19대 대통령 선거 보도

o 北, 우리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진행 및 문재인 대통령 당선 보도(5.11, 중방·평방·중통)

「중앙검찰소」 성명

o 한미 정보당국의 '김정은 테러'를 주장하며, '조직·가담·추종자들 인도' 요구 및 '무자비하게 처형할 것'이라고 위협(5.12, 중통·중방)

「미군 범죄 진상규명 전민특위 북측 본부」 대변인 담화

o '주한 미군 전우회' 출범을 '반민족적 망동'이라고 비난하며 반대투쟁 선동(5.12, 중통·중방)

「민화협」 대변인 담화

o 北 「민화협」, 대변인 담화를 통해 △'보수진영 재집결 움직임' 비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7주년 관련 보수세력 비난 및 투쟁 선동(5.13~18, 중통·중방)

o 보수세력 및 언론들의 대북발언 비난 및 反보수 투쟁 선동(5.25, 중통·중방)

「아시아태평양 평화위」 대변인 담화

o '화성 12형' 발사 관련 우리 정부 대응 비난 및 '핵무력 지속 강화' 위협(5.18, 중통·중방·평방)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o 우리 군의 '미상(未詳) 비행체' 경고사격(5.23.) 관련 비난(5.25, 중통)

「조선 평화옹호 전국 민족위」 대변인 성명

o 사드 배치 관련 보수세력 비난 및 '사드 배치 철회' 주장(5.27, 중통)

대외동향

「외무성」 대변인 담화

o 미국의 새 대북정책과 칼빈슨호 한반도 재배치 관련 '우리(北)의 핵무력 고도화 조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위협(5.1, 중통·중방)

o '화성 12형' 탄도 미사일 발사 관련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 비난(5.20, 중통)

o 日 당국자들(아베 총리·관방장관)의 '北 핵무력 강화 관련 대북 압력, 제재분위기 고취'는 '군국화를 본격 실현 위한 법적 명분 마련' 때문이라고 비난하며 '핵무기들과 핵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 것' 강조(5.29, 중방·중통)

「조선중앙통신」 개인 논평

o 중국의 대북 압박 등 관련 "그가 누구이든 우리(北)의 핵 보유 노선을 변화시킬 수도 없으며, 조중 친선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해도 핵과 맞바꾸면서까지 구걸할 우리가 아니다"라고 주장(5.3, 중통)

「외무성 미국연구소」 대변인 담화

o 미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발사(5.3.)는 '이중기준의 극치'라고 비난하며 이를 '함구무언한 유엔 안보리 개혁' 주장(5.5, 중통·중방)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o 코리 가드너(美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의 '김정은 당 위원장 비난 인터뷰'(5.3. NBC 방송)에 대해 '엄중한 도발'이라며 '몸서리치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5.5, 중통)

o '범죄자들을 법대로 다스리는 것은 주권국가의 당당한 권리 행사'라며 美 언론들의 '北, 미국인들 억류' 관련 보도('인질로 납치, 협상 흥정물' 등) 일축(5.11, 중통)

o 유엔 안보리의 '北 탄도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 만장일치 채택(5.15.)에 대해 "전면 배격한다"며 "완성된 무기체계가 결코 미국의 영원한 독점물로 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北)도 상응한 보복수단을 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위협(5.16, 중통·중방)

o △유엔 안보리의 北 '북극성 2형' 시험발사 규탄 언론 성명(5.22.) 관련 '전면 배격' 입장 표명 △北 '만경봉호 취항(나진-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 미국의 對 러시아 대응 관련 비난(5.23~24, 중통)

北, 미국인 '김학송' 5월 6일 억류 보도

o 北, 미국인 '김학송(평양 과학기술대학 운영 관계자)'을 '반공화국 적대행위' 혐의로 5월 6일 억류(5.7, 중통)

「최고인민회의 외교위」, 美 국회 하원에 항의 서한

o '對北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 채택 관련 美 국회 하원 앞으로 항의 서한을 보내 '對北 적대시 법안들을 만들어 낼수록 핵 억제력 강화속도는 빨라지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이성적으로 행동하라"고 촉구(5.12, 중통·중방)

「駐 유엔 北 상임대표부」 공보문

o "미국이 남조선 당국과 함께 최고 수뇌부를 해치려고 군사적 모험에 매여 달리다 못해 테러음모까지 꾸몄다"며 "유엔과 유엔 성원국들은 범죄자 처벌 등 우리식의 反테러 타격전을 지원하는데 적극 호응해 나오라"고 주장(5.12, 중통)

o 유엔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북제재 이행 강화를 촉구한 것에 대해 '광란적인 적대시 책동'이라며 '유엔은 제재 이행을 강요하기 전에 우리(北)가 요구하는 연단에서 그 적법성 여부가 해명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5.13, 중통)

「국제문제연구원 법률연구소」 소장 담화

o 美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 거론 '파국적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문제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기여하는 길을 택하라"고 주장(5.15, 중통)

「아시아태평양 평화위」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o '북극성 2형' 시험발사에 대한 韓美의 대응(경제·외교적 압박 지속, 만반의 대비태세 유지) 관련 비난 및 위협(5.24, 중통)

「외무성」 부상 박명국 담화

o 미국과 일부 동맹국의 북한 탄도 미사일 '화성 12형'·'북극성 2'형 시험발사 성공 추가제재 논의·규탄 성명 발표에 대해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 강조(5.27, 중통)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문제 대책위」 대변인 담화

o '유엔 고문 반대위, 위안부 문제에 대한 韓日합의 재검토' 권고 보고서에 대한 日 정부의 반론문서 제출을 규탄하며 '법적,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5.27, 중통·중방·평방)

대내동향

김정은 당 위원장 공개 활동

▌개 요

o '장재도 방어대'와 '무도 영웅 방어대' 시찰(5.5, 중통)

o '낙랑 영예군인 수지 일용품공장' 시찰(5.10, 중통)

o △'인민무력성 기공구, 마감 건재품 및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장' 시찰 △조선인민군 건설부문 열성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시험발사 참관(5.13~15, 중통)

o △'화성 12형' 개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 △'북극성 2형' 시험발사 참관(5.20~22, 중통)

o △'신형 반항공 요격유도 무기체계' 시험사격 참관 △'정밀조종 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 참관(5.28~30, 중통)

▌'장재도 방어대'와 '무도 영웅 방어대' 시찰(5.5, 중통)

o 일시 및 장소 : 미상(未詳)

* 동행 : 황병서, 서홍찬, 박정천, 리성국, 리영철, 오일정, 조용원

* 영접 : 현지 방어대의 지휘관들

o 김정은 당 위원장(이하 '김정은')이 서남전선 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장재도 방어대와 무도 영웅 방어대를 시찰하였음.

o 방어대의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은 멀고 험한 자기들의 섬 초소에 찾아온 김정은을 우러러 격정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음.

o 김정은은 장재도 방어대의 감시소에 올라 육안으로 뚜렷이 보이는 연평도를 바라보면서 박정천 포병국장으로부터 남조선 괴뢰군 서북도서 방위사령부의 최근 적정[4]과 새로 증강 배비된 연평부대의 현황상태를 보고받고 새로 조직한 아군의 적 대상물 화력타격 계획을 료해[5] 검토하였음.

4) 적정(敵情) : 전투 상황이나 대치 상태에 있는 적의 특별한 동향이나 실태.
5) 료해 : 『북한어』 사정이나 형편이 어떠한가를 알아봄.

o 김정은은 서남전선을 지키고 있는 조선인민군 최정예 포병집단은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일단 명령이 내리면 괴뢰들의 사등뼈[6]를 완전히 분질러 버려야 한다고 말하였음.

o 김정은은 화력 진지들과 포 은페(은폐)부들을 돌아보며 전투동원 실태를 료해하였음.

o 티 한 점 없이 반들반들 검은 윤이 나는 포 무기의 바퀴를 만져보며 강도 높은 훈련을 하면서도 포 무기 관리를 정말 잘했다고, 이곳 방어대 군인들의 애국심을 느낄 수 있다고, 정말 기특하고 정이 더 푹 든다고 하면서 전군에 널리 소개 선전하고 따라 배우게 하라고 말하였음.

o 김정은은 장재도 방어대의 군인들, 군인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음.

o 김정은은 이어 무도 영웅 방어대를 시찰하였음.

o 김정은은 감시소와 포 은페부,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받은 1포 진지를 돌아보면서 전투근무 실태를 료해하였음.

o 김정은은 무도 영웅 방어대에는 우리를 향하여 무모한 포사격을 강행한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의 침략도발 책동을 무자비한 불소나기로 짓뭉개버림으로써 연평도 불바다와 더불어 원쑤들에게 조선인민군 포병의 본때를 보여준 자랑이 깃들어 있다고 말하였음.

o 연평도 포격전은 정전 이후의 가장 통쾌한 싸움이였다고, 무도 영웅 방어대 군인들의 위훈은 우리 당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갈 빛나는 군공이라고 하면서 새로 입대한 군인들은 자랑찬 위훈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받아 앞으로의 싸움에서도 영웅 방어대의 본때를 다시금 과시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음.

o 지난 3월에 진행된 전군적인 포사격 경기에서 무도 영웅 방어대 1포가 단연 1등을 쟁취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앞으로도 전군의 앞장에 서라고 고무 격려해 주면서 영웅포를 배경으로 포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음.

o 김정은은 무도 영웅 방어대에 새로 꾸린 바닷물 정제기실에 들러 몸소 물맛도 보아주었으며 병실, 교양실, 세목장 등을 돌아보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었음.

o 김정은은 무도 영웅 방어대의 군인들, 군인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음.

o 김정은은 장재도 방어대와 무도 영웅 방어대가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인 포병전법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화력타격 조직과 지휘능력, 전투조법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훈련을 강도높이 벌릴 데 대한 문제, 급변하는 정세와 전선 정황의 요구에 맞게 항시적으로 강력한 화력타격 준비 태세를 갖출 데 대한 문제, 위장이자 싸움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위장을 철저히 하는데 깊은 주목을 돌릴 데 대한 문제 등 방어대들의 싸움준비 완성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었음.

---

6) 사등뼈 :『북한어』척추뼈.

o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는 천만군민의 불타는 소원을 담은 노래 소리가 절절히 울려 퍼지는 서남전선 수역 최남단 섬 초소에서는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숭엄한 화폭이 뜨겁게 펼쳐졌음.

o 장재도 방어대와 무도 영웅 방어대의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은 위험천만한 서남전선 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자기들의 초소에 찾아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고 원쑤 격멸을 위한 필승의 지략을 밝혀준 김정은에게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하면서 김정은이 제시한 전투적 과업을 결사 관철하여 조국의 서남전선 수역 최전방 섬초소를 김정은 결사옹위의 성새, 보루, 오늘의 월미도, 불침의 전함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음.

▌'낙랑 영예군인 수지 일용품공장' 시찰(5.10, 중통)

o 일시 및 장소 : 미상(未詳)

* 동행 : 박봉주, 리주오, 안정수, 조용원

* 영접 : 조선로동당 평양시 위원회 위원장 김수길,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꾼들

o 김정은이 락랑 영예군인 수지 일용품공장 공개 활동을 하였음.

o 연건축면적 9,900여 ㎡인 락랑 영예군인 수지 일용품공장은 각종 식료 포장 주머니, 각종 규격의 수지용기, 1회용 수지 밥곽[7]과 고뿌, 각이한 용도에 따르는 수지관 등 인민생활 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 가지 수지제품들을 대량생산하는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수지 일용품 생산기지임.

o 김정은은 일군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며 영예군인들이 모두 건강한가, 애로되는 것은 없는가를 다정히 물어주면서 군사복무의 나날에 발휘한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오늘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투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 있는 영예군인들을 고무 격려해 주려고 찾아왔다고 말하였음.

o 김정은은 주변의 풍치와 어울리게 특색 있게 일떠선 생산 건물들과 보조 건물들, 수종이 좋은 나무들로 둘러싸인 산뜻한 구내를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며 겉볼안이라고 주변 환경만 보고서도 영예군인들이 지니고 있는 뜨거운 공장애를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혁명적 군인정신이 차 넘치는 공장이라고 치하하였음.

o 김정은은 공장 전경도 앞에서 해설을 들은 다음 혁명사적 교양실, 연혁 소개실을 돌아보았음.

o 김정은은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생산 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였음.

7) 밥곽 : 『북한어』 '도시락'

o 공정관리 체계, 품질관리 체계, 전력관리 체계, 업무관리 체계로 이루어진 통합 조종 체계를 높은 수준에서 구축해놓은 결과 일군들이 생산현장 실태에 대한 실시간적이며 직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결심을 채택함으로써 제품의 질을 제고하고 경영활동에서 최대한의 리익을 얻고 있다고 말하였음.

o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며 가지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쓸모있게 잘 만들었다고 하면서 공장 제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가 높다고, 특히 우리 인민의 기호에 맞으면서도 식료품들의 질과 문화 위생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포장재들을 손색없이 만들어 평양시를 비롯한 각 도의 식료공장들에 보내주고 있는데 대단하다고, 영예군인들이 일하는 본때가 다르다고 하였음.

o 공장의 모든 기대들을 자기의 무기, 전투기술 기재처럼 귀중히 여기고 애호 관리하고 있는 영예군인들의 애국심이 낳은 결실이라고 하면서 락랑 영예군인 수지 일용품공장은 설비관리에서 본보기, 모범 공장이라고, 온 나라에 널리 소개 선전하고 따라 배우게 하라고 지시하였음.

o 김정은은 새로 꾸린 편의봉사 시설과 과학기술 보급실을 돌아보았음.

o 대중목욕탕, 리발실, 운동치료 회복실 등으로 이루어진 편의봉사 시설의 설계와 시공을 잘했으며 마음먹고 꾸린 것이 알린다고 하면서 공장 종업원들이 정말 좋아하겠다고 기뻐하였음.

o 김정은은 공장을 돌아보니 영예군인들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한다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병사 시절처럼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잘 알 수 있었다고 하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앞으로도 불타는 애국심과 혁명적 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 정책 결사관철의 기수, 돌격대의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음.

o 락랑 영예군인 수지 일용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길에서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와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준 김정은에 대한 고마움에 현지 언급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음.

▌'인민무력성 기공구, 마감 건재품 및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장' 시찰 (5.13, 중통)

o 일시 및 장소 : 미상(未詳)

* 동행 : 황병서, 박영식, 김정관

o 김정은이 인민무력성 기공구, 마감 건재품 및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장을 돌아보았음.

o 이번 전시회에는 당의 주체적 건축미학 사상을 높이 받들고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이 구현된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건축물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인민군대 안의 건설부대, 건재생산 단위들

에서 창안 제작한 550종에 13만 1,620점의 각종 기공구, 마감 건재품들과 530여 건의 과학기술 성과 자료들이 전시되였음.

o 김정은은 전시품들을 보시면서 2년 전의 기공구 전시회보다 많이 달라졌다고, 건설부문에서 대혁명이 일어났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음.

o 김정은은 당의 대건설 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 려명거리 건설을 비롯한 주요 전구마다에서 힘 있는 부대, 기술 있는 부대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친 인민군 군인들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재능이 어려 있는 건설 장비들과 건재품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아주면서 그들의 수고를 높이 치하하였음.

o 김정은은 대중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며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건설 설비들과 자재들을 다른 나라에서 사다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식으로 창안제작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사회에서도 인민군 군인들의 투쟁기풍, 일본새를 따라 배우도록 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o 김정은은 건설의 대번영기를 더욱 빛내여 나가는 데서 이번 전시회가 매우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면서 건설부문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였음.

o 김정은은 인민군 군인들이 려명거리 건설 신화를 창조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을 발휘하여 만리마 선구자 대회를 향한 총돌격전에서 새로운 건설 기적, 건설 속도를 창조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음.

▌조선인민군 건설부문 열성자들과 기념사진 촬영(5.13, 중통)

o 일시 및 장소 : 미상(未詳)

* 참가 : 황병서, 박영식, 김정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o 김정은은 조선인민군 건설부문 열성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음.

o 김정은이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 올라 하늘땅을 진감하였음.

- 전체 참가자들은 김정은에게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음.

o 김정은은 당의 사상 관철전, 당 정책 옹위전의 제일 기수, 돌격대답게 사회주의 대건설의 격전장마다에서 군인 정신, 군인 본때, 군인 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영웅조선의 건설신화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해나가고 있는 조선인민군 건설부문 열성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였음.

o 김정은은 조선인민군 건설부문 열성자들이 앞으로도 백두산 혁명 강군의 자랑스러운 승리 전통, 애국 전통을 굳건히 이어 사회주의 대건설 전투에서 불타는 충정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더 높이 발휘하여 조국번영의 새 시대, 최후 승리의

진격로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음.

o 전체 참가자들은 김정은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으로 만리마 속도 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21세기 건설의 대기적들을 련이어 창조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전략적 목표를 앞당겨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 있었음.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 미사일 '화성 12형' 시험발사 참관(5.15, 중통)

o 일시 및 장소 : 미상(未詳)

* 영접 : 리병철, 김정식, 정승일, 장창하, 김락겸 등

o 김정은이 새 형의 로케트 시험발사 공개 활동을 하였음.

o 김정은의 원대한 핵 강국 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세계가 보란듯이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해나가고 있는 로케트 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106(2017)년 5월 14일 새로 개발한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화성-12》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음.

o 년대와 세기를 이어온 미제와의 대결을 끝장내고 최후 승리의 통장훈[8]을 부를 핵 공격수단, 전략무기 개발 사업을 직접 구상하고 나라의 방방곡곡을 주름잡으며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쳐가고 있는 김정은은 로케트 연구부문에 표준화된 핵탄두뿐 아니라 대형 중량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 로케트를 빨리 개발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고 과학적 예지와 지도로 그 실현을 위한 창조적 투쟁을 이끌었음.

o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의 중요성과 전략적 의의에 대하여 밝혀준 김정은의 가르침과 불같은 호소에 총궐기해 나선 로케트 연구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에서 그토록 중시하는 새 형의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케트를 죽으나 사나 기어이 주체적으로 완전무결하게 완성할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본때 있게 달라붙어 짧은 기간에 세상을 들었다 놓을 훌륭한 무기체계를 만들어냈음.

o 이번 시험발사는 위력이 강한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새 형의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케트의 전술기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최대 고각 발사체제로 진행하였음.

o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새벽 4시 58분 새 형의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화성-12》형이 발사되였음.

---

8) 통장훈 :『북한어』'외통 장군'의 북한어.
* 외통 장군: 장기에서 상대편의 궁이 피할 수 없는 수를 보고 부르는 장군.

o 발사된 로케트는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최대 정점고도 2,111.5㎞까지 상승비행하여 거리 787㎞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음.

o 로케트 시험발사를 통하여 우리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우리 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설계한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케트의 유도 및 안정화 체계, 구조 체계, 가압 체계, 검열 및 발사체계의 모든 기술적 특성들이 완전히 확증되였으며 새로 개발된 로케트 발동기의 믿음성이 실제적인 비행환경 조건에서 재확인 되였음.

o 또한 가혹한 재돌입 환경 속에서 조종 전투부의 말기유도 특성과 핵탄두 폭발체계의 동작 정확성을 확증하였음.

o 김정은이 새로 개발한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케트《화성-12》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을 결론하자 천지를 뒤흔들며 솟구친 로케트의 동음마냥 우렁찬《만세!》의 환호성이 발사장을 진감하고 김정은을 에워싸고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여 눈물의 바다를 이룬 이 세상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가슴 뜨거운 화폭이 펼쳐졌음

o 김정은은 로케트 연구부문 일군들을 얼싸 그러안아주며 그 동안 수고들 했다고, 정말 큰일을 해냈다고 높이 치하하고 시험에 참가한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었음.

o 김정은은 우리 공화국이 도달한 국방 과학기술 발전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는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케트《화성-12》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참으로 중대하고도 특별한 의의를 가지며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조선 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된다고 신심에 넘쳐 말하였음.

o 김정은은 그 누가 인정하든 말든 우리 국가는 명실상부한 핵 강국이라고 당당히 선언하면서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비상히 강화 발전된 우리의 핵 억제력으로 핵 공갈을 일삼는 자들을 단호히 다스릴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였음.

o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무기체계가 결코 미국의 영원한 독점물로 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도 상응한 보복수단을 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면서 미국은 그 기회에 조선의 탄도 로케트들이 미국에 실지로 위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속 시원히 보면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o 김정은은 미국이 부질없는 경거망동으로 우리 공화국을 서뿔리(섣불리) 건드린다면 사상 최대의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미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들어있다는 현실, 섬멸적 보복타격의 온갖 강력한 수단이 우리의 수중에 있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오판해서도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하였음.

o 김정은은 로케트 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박차를 가하여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옳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고도로 정밀화, 다종화 된 핵무기들과 핵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며 필요한 시험 준비를 더욱 다그쳐 나갈 데 대한 명령을 주었음.

o 김정은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 안은 로케트 연구부문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나라의 국방력 강화의 제1선 참호를 지켜선 중대한 사명을 자각하고 우리 식의 위력한 주체무기와 첨단 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함으로써 동방의 핵 강국, 아시아의 로케트 맹주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주체 조선의 자위적 국방공업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핵 강국 건설구상을 실천적 성과로 받들어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음.

▌'화성 12형' 개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5.20, 중통)

o 일시 및 장소 : 일시 미상(未詳), 당 중앙위원회 청사

* 참가 : 리만건, 리병철, 김정식, 정승일, 장창하

o 김정은은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케트《화성-12》형 개발자들을 조선혁명의 최고 참모부인 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불러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었음.

o 김정은이 붉은 당기가 힘차게 나붓기는 당 중앙위원회 청사 앞으로 나오자 폭풍같은《만세!》의 환호가 터져 올랐음.

o 전체 참가자들은 년대와 세기를 이어온 반미 대결전에서 최후 승리의 통장훈을 부를 핵 공격수단, 전략무기 개발 사업을 직접 구상하고 그 실현을 위한 창조적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체적 핵 강국 건설사에 특기할 사변을 안아오고도 그 모든 영광을 전사들에게 다 돌려주는 김정은을 우러러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음.

o 김정은은 당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안고 시련의 천만고비들을 완강하게 돌파하며 당 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 관철함으로써 동방의 핵 강국, 아시아의 로케트 맹주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주체조선의 자위적 국방공업의 위력을 세계만방에 힘있게 과시하는데 크게 기여한 국방과학 전사들을 열렬히 축하하였음.

o 김정은은 로케트 연구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마음 속 신들메[9]를 바싹 조이고 강위력한 주체무기와 첨단 무장 장비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하여 우리 조국을 그 어떤 강적도 감히 범접 못하는 불패의 사회주의 보루로 반석같이 다지며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영웅적 대진군을 선군의 핵 보검으로 믿음직하게 지켜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음.

o 전체 참가자들은 나라의 국방력 강화의 제1선 참호를 지켜선 중대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세상을 들었다 놓는《주체탄》의 장쾌한 뢰성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터쳐올림으로써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핵 강국 건설 구상을 앞장에서 실현해 나가는 제일기수, 선봉투사로서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음.

9) 신들메 :『북한어』'들메끈'. 신이 벗어지지 않도록 신을 발에다 동여매는 끈.

▌'북극성 2형' 시험발사 참관(5.22, 중통)

o 일시 및 장소 : 미상(未詳)

* 동행 : 리병철, 김정식, 정승일, 유진, 조용원을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 김락겸

* 영접 : 장창하, 전일호, 국방과학 연구부문과 군수 공장의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들

o 온 나라가 주체조선의 신형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케트 《화성-12》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을 열렬히 축하하며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 번지고 있는 속에 부대 실전 배비를 앞둔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가 또 한 번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온 행성을 진감하고 있음.

o 얼마 전 미 태평양군 사령부가 둥지를 틀고 있는 하와이와 미국 알라스카를 사정권 안에 두고 있는 신형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케트 시험발사에서 성공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줄기찬 련속 공격전을 벌려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2》형의 계렬 생산 준비를 끝내고 부대 실전 배비를 위한 최종 시험발사를 진행하게 되였음.

o 김정은이 현지에 나와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 발사를 참관하였음.

o 이번 발사는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2》형 무기체계 전반의 기술적 지표들을 최종 확증하고 각이한 전투 환경 속에서 적응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부대들에 실전 배비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음.

o 김정은은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감시소를 차지하고 발사 명령을 내리였음.

o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동음을 장쾌하게 터뜨리며 《북극성-2》형이 눈부신 섬광을 내뿜으며 만리대공을 향해 발사되였음.

o 이번 발사를 통하여 리대식[10] 자행 발사대차에서의 랭 발사체계, 탄도탄의 능동 구간 비행 시 유도 및 안정화체계, 계단분리 특성, 대출력 고체 발동기들의 시동 및 작업 특성들의 믿음성과 정확성이 완전 확증되였음.

o 김정은은 감시소에서 일군들과 함께 발사결과를 분석평가하고 백점, 만점이라고,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였음.

o 김정은은 탄도탄의 명중성이 대단히 정확하다고, 《북극성-2》형 탄도탄은 완전히 성공한 전략무기라고 긍지에 넘쳐 말하시면서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2》형 무기체계의 부대 실전 배비를 승인하였음.

o 김정은은 탄도탄에 설치한 촬영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수신되는 지구사진을 보고 우리가 쏜 로케트에서 지구를 쭉 내려찍은 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온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인다고 말하였음.

10) 리대식 : 『북한어』 '무한궤도식'

o 김정은은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미처 정신 차릴 새 없이 우리 핵무력의 다양화, 고도화를 더욱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면서 핵무력 강화에서 나서는 전략적 과업들을 제시하였음.

o 김정은은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직한 우리의 믿음직한 국방과학 연구부문과 군수로동 계급이 나라의 자위적 국방력, 핵 억제력을 튼튼히 다져나가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굴함 없이 계속 혁신, 계속 전진, 련속 공격해 나감으로써 적들에게 전률과 공포, 죽음을 들씌울 강위력한 우리 식의 주체무기, 핵공격 수단들을 더 훌륭히, 더 많이 만들어 내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음.

o 김정은은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를 또다시 성공적으로 단행한 전체 국방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을 열렬히 축하해 주며 그들과 함께 력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었음.

▌'신형 반항공 요격유도 무기체계' 시험사격 참관(5.28, 중통)

o 일시 및 장소 : 미상(未詳)

* 동행 : 황병서, 리영길, 오금철, 김광혁, 리병철, 김정석, 정승일

* 영접 : 장창하, 전일호, 국방과학원과 군수공장의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들

o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의 기치 따라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에서 더 큰 기적을 안아오며 만리마의 속도로 힘차게 전진하는 국방과학원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당의 군사전략 사상에 맞게 작전 배치된 신형 반항공 요격유도 무기체계의 전투적 성능과 믿음성을 검증하고 보다 현대화, 정밀화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반항공 요격유도 무기체계 시험사격을 또다시 진행하였음.

- 시험사격은 불의에 우리 국가의 령공을 침범하는 적 공중목표들을 타격 소멸하는 것으로 가상하여 정황을 조성하고 임의의 방향에서 날아오는 각이한 공중목표들을 탐지 및 요격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음.

o 김정은은 감시소에서 시험사격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격명령을 내리였음.

o 각이한 고도와 속도로 래습하는 적 공중목표들로 가상한 무인기와 로케트 표적들이 출현하자 천지를 진감하는 폭음소리와 함께 번개 같은 불줄기들이 하늘을 가르며 연방 날아가 목표들을 단방에 박산(박살)냈음.

o 김정은은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국방과학원 일군들에게 지난해에 나타났던 일련의 결함들이 완벽하게 극복되였다고, 합격으로 평가한다고, 작전능력이 철저히 검토된 저 무기체계를 꽝꽝 생산해내여 온 나라에 숲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공중우세론, 무기만능론을 제창하는 적들의 제공권[11] 망상을 완전히 제압 분쇄해 버려야 한다고 말하였음.

11) 제공권 : 『군사』 공군력으로 어느 지역의 공중을 지배하는 능력.

o 김정은은 그 어떤 적 공중 비적[12]들도 신성한 우리의 령공을 감히 침범하지 못하게 국가 반항공 방어능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하자면 다음세대 반항공 요격유도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도 시급히 병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식의 현대적인 반항공 요격유도 무기체계 발전 전략과 관련한 강령적 과업들을 밝혀주었음.

▌'정밀조종 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 참관(5.30, 중통)

o 일시 및 장소 : 미상(未詳)

* 동행 : 리병철, 김락겸, 김정식, 장창하, 정승일, 전일호

o 김정은이 정밀조종 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 로케트 시험발사를 지도하였음.

o 우리 공화국의 주체적 로케트 무력 강화와 인민군대의 싸움준비 완성을 위하여 위대한 사색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김정은은 지난해에 국방과학 연구부문에 적 함선을 비롯한 해상과 지상의 임의의 바늘귀 같은 개별적 목표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우리 식 탄도 로케트를 개발할 데 대한 연구종자를 주고 여러 차례 방향과 방도도 가르쳐주며 크나큰 로고를 바치였음.

- 김정은의 전략적 구상과 의도를 기어이 관철할 비상한 혁명적 열의로 심장을 끓이며 만리마속도로 내달리고 있는 우리의 미더운 국방과학 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은 애국충정의 과학기술 결사전을 벌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새로운 정밀조종 유도체계를 도입한 우리 식의 주체무기를 탄생시키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음.

o 김정은은 지휘소에 올라 시험발사 계획에 대하여 청취하고 탄도 로케트 발사명령을 내리였음.

o 미 제국주의와 그 졸개들을 겨냥한 또 하나의 위력한 주체탄이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동터오는 동쪽 하늘을 향하여 힘 있게 솟구쳐 올랐음.

o 김정은은 우뢰 같은 폭음을 울리며 원쑤 격멸의 비행운을 힘차게 새기며 날아가는 주체무기를 바라보며 대만족을 표시하였음.

o 탄도 로케트는 중등사거리를 비행하여 예정 목표점을 7m의 편차로 정확히 명중하였음.

o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능동 비행구간에서 조종날개가 있는 전투부를 장착한 탄도 로케트의 비행 안정성을 검토하였으며 중간 비행구간에서 소형 열분사 발동기에 의한 속도교정 및 자세 안정화 계통의 정확성이 재확증되였음.

12) 공중 비적 : 『북한어』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항공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o 김정은은 정밀조종 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 로케트의 성공적 시험발사를 보면서 우리 동무들이 또 하나 큰 것을 해냈다고, 태양절 승리의 열병식 광장에 처음으로 자기의 자태를 드러냈던 이 탄도 로케트는 마치 명사수가 저격수 보총으로 목표를 맞히는 것만 같다고, 저 정도의 명중 정확성이면 적들의 눈깔도 파먹겠다고, 우리 당의 깊은 관심과 직접적 령도에 의해 계속 승리적 전진만을 이룩해가고 있는 국방과학 연구부문이 이제는 세계적인 첨단 국방 과학기술들을 마음먹은 대로 우리식으로 이루어가고 있다고, 우리 당은 이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였음.

o 김정은은 최근 우리가 이룩하는 값비싼 승리의 소식들이 전파를 탈 때마다 미국놈들의 고민이 커질 것이며 괴뢰군 깡패무리들이 점점 맥이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고 당의 웅대한 국방공업정책 관철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를 더 높이 올려 세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였음.

o 김정은은 미국놈들과 그 졸개들이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똑바로 알게 하며 무모한 군사적 망동질로 차례질 것은 결국 죽음뿐이라는 것을 똑바로 새기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늘의 이 성과를 토대로 위력이 더 큰 전략무기들을 계속 개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o 김정은은 앞으로 국방과학 연구부문에서는 우리가 짜놓은 시간표와 로정도대로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우리의 자위적 국방공업의 위력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놈들에게 더 큰 《선물 보따리》를 보내주기 위하여 지금의 이 기세로 더 큰 비약을 이룩해나갈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였음.

o 김정은은 국방과학 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에게 미 제국주의를 괴멸시키며 그 졸개들을 다스리게 될 그날까지 우리의 정의의 붉은 장검을 더 붉게, 더 억세게 벼리여 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음.

북한 주요 인사 현지 시찰

▌개 요

o 박봉주 내각 총리, 평양 자동화기구 공장 현지 시찰(5.8, 중통)

o 최룡해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평원군 원화 협동농장 현지 시찰(5.13, 중통)

o 박봉주 내각 총리, △함흥시 중요공장 및 기업소들 △황해남도 연안군 농사실태 등 현지 시찰(5.22~27, 중통·중방)방)

▌박봉주 내각 총리, 평양 자동화기구 공장 시찰(5.8, 중통)

o 박봉주 내각 총리(이하 '박봉주')가 평양 자동화기구 공장을 현지에서 료해하였음.

- 박봉주는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고지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리고 있는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 성과를 적극 고무해주었음.
-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전기일용품 생산에서 혁신적 앙양을 일으키며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명상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o 이에 앞서 박봉주는 남양 제염소와 국가과학원 중앙 양어연구소, 농업연구원 과수학 연구소의 개건 정형을 료해하면서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며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보내주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음.

▌최룡해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평원군 원화 협동농장 시찰(5.13, 중통)

o 최룡해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이하 '최룡해')이 평원군 원화 협동농장을 현지에서 료해하였음.

o 일군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모판 관리와 모내기, 강냉이 심기에서 련일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고 있으며 최룡해는 이들을 적극 고무해주었음.

o 청년 분조의 사업을 료해하고 올해 알곡 고지를 점령하는데서 농장 청년동맹 조직과 청년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청년전위들이 경제 강국 건설의 주타격 전방을 지켜선 긍지 드높이 시대의 앞장에서 달려나갈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박봉주 내각 총리, 함흥시 중요공장 및 기업소들 시찰(5.22, 중통)

o 박봉주가 함경남도 함흥시의 흥남비료 련합기업소, 2.8비날론 련합기업소, 룡성기계 련합기업소를 현지에서 료해하였음.

- 박봉주는 로동계급과 기술자, 일군들을 고무해주고, 기업소들을 돌아보면서 생산실태와 능력 확장 정형[13]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협의회들을 진행하였음.

- 협의회들에서는 주체비료와 비날론, 대상설비[14] 생산에서 련대적 혁신을 일으키며 생산능력 확장을 위한 여러 대상건설을 다그쳐 끝낼 데 대하여서와 련관 단위들에서 원료, 자재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보장할 데 대한 문제들이 강조되었음.

o 박봉주는 또한 함흥 모방직공장과 함흥 편직공장을 돌아보면서 제품생산을 늘이고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음.

o 이에 앞서 총리는 평양 화장품공장을 현지 료해하였음.

▌박봉주 내각 총리, 황해남도 연안군 농사실태 시찰(5.27, 중통·중방)

o 5월 27일, 박봉주는 연안군 읍 협동농장, 부흥 협동농장을 돌아보면서 로력과 농기계들의 가동 실태와 모내기 실적을 료해하고 당면한 영농전투를 힘 있게 벌려 나가고 있는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고무해주었음.

- 이어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과 품종들을 배치하고 비배관리를 과학 기술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알곡 소출을 높일 데 대하여서와 련관 단위들에서 농사에 필요한 물자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었음.

- 앞서 박봉주는 순천세멘트 련합기업소와 연백 제염소를 돌아보면서 사회주의 대건설 전투장들에 더 많은 세멘트를 보내주며 지하 초염수에 의한 소금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협의하였음.

13) 정형 : 『북한어』 구체적 형편이나 상태.
14) 대상설비 : 『북한어』 정해진 기본 건설 대상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대상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만든 기계설비.

‘5.1절’ 맞이 기념식 및 경축행사 진행

▌개 요

o ‘5.1절’을 맞아 △국가의 책임 일꾼들, 각지 근로자들이 함께하는 기념식 △중앙과 지방에서 다채로운 경축행사가 진행되었다고 보도(5.1, 노동·중통)

▌주요 내용

o 당과 국가의 책임 일군들이 1일 각지 근로자들과 5.1절을 뜻깊게 기념하였음.

- 박봉주, 김기남을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 일군들, 내각 부총리들, 당, 정권기관 일군 등이 황해제철 련합기업소, 남흥 청년화학 련합기업소, 국가과학원, 김정숙 평양 제사공장, 강서구역 청산 협동농장, 천리마제강 련합기업소, 김정숙 평양 방직공장, 사리원시 미곡 협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 등에서 5.1절을 맞는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을 축하해 주었음.

- 로력적 위훈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혁신자들을 만나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대비약, 대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온데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투쟁성과를 고무해 주었고

- 근로자들과 한데 어울려 바줄당기기[15]를 비롯한 다채로운 체육 및 유희오락 경기를 하고 예술소품 공연도 관람하였음.

- 또한 모든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고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다발적이며 련발적인 성과들을 이룩함으로써 만리마 선구자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 일 것을 당부하였음.

o 5.1절을 맞아 중앙과 지방에서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었음.

- 수도의 극장들과 공원, 유원지 등에서 중앙 예술단체들의 경축 공연들과 근로자들의 체육 유희오락 경기들이 있었음.

- 모란봉극장에서는 국립 교향악단의 음악회, 봉화예술극장에서는 음악무용 시 《<아리랑>이 전하는 이야기》 공연이 있었음.

- 평양 교예극장과 국립교예단 요술극장에서는 체력교예 《다각비행》, 《비행가들》, 희극교예 《모자 재주》, 환상요술 《오토바이 재주》, 교감요술 《어항 속의 조화》를 비롯한 다양한 종목들이 무대에 올랐음.

- 조선 인민의 사상 감정과 지향을 반영한 교예, 요술무대가 만경대 유희장에도 펼쳐져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에게 희열과 랑만을 안겨주었음.

15) 바줄당기기 : 『북한어』 ‘줄다리기’의 북한어.

- 피바다 가극단, 국립 민족예술단 예술인들은 릉라 인민유원지와 대성산 남문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선율과 장단, 춤가락으로 환희로운 경축공연을 펼치었으며, 김일성경기장에서는 수도 건설자들의 체육경기가 진행되었음.
- 각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다채로운 축하공연과 유희오락 경기들이 진행되었음.

여명거리 건설자 및 지원자들에 감사문 전달 모임 진행

개 요

o 여명거리 건설자 및 지원자들에 감사문 전달모임이 각지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5.1, 중방)

주요 내용

o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여명거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는 혁혁한 위훈을 창조하였음.

o 려명거리를 만리마시대의 대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 워 사회주의 조선의 강대성과 필승의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한 인민군 장병들과 돌격대원들, 지원자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감사문 전달모임이 각지에서 진행되었음.

o 모임들에서는 감사문이 전달되었으며, 이에 결의 토론과 결의문 채택이 있었음.

「216 사단」, 삼지연군 본격 공사 진입

▌개 요

o 양강도 삼지연군을 꾸리기 위해 「216 사단」의 전투원들이 본격 공사에 진입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5.8, 중통)

▌주요 내용

o 량강도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선 216 사단의 전투원들이 본격적인 공사에 진입하여 련일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백두산 종합박물관 건설을 맡은 216 사단 618 건설려단에서 수백 ㎡의 기초 굴착과 수천 ㎡의 기초 콩크리트 치기를 해제낀 기세로 공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618 건설려단 성·중앙기관 련대에서는 수천 ㎡의 토량을 처리하고 각종 규격의 건구 설치, 전기선 늘이기를 내밀어 마감 건재 중간 생산기지 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음.
- 철길 건설을 맡은 216 사단 혜산-삼지연 철길 건설려단 전투원들은 현재 전반적인 구간들에서 로반과 피암차굴, 각종 소구조물, 철다리 건설을 완공 단계에 들어서게 하였음.
- 216 사단 체신 련대에서도 통나무 생산 및 수송, 빛 케이블 수송 등 모든 지표별 계획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216 사단 전력 련대에서는 수백 kW 능력의 풍력 및 태양빛 발전소 기초 굴착공사를 해제끼고 맡은 대상 공사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삼지연군을 감자농사의 본보기 단위로 꾸리기 위해 914 지휘부에서는 감자 조직 배양모 생산, 농기계 부속품 생산, 감자싹 틔우기장 보수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극 풀어나가고 있음.

北, 가뭄피해 방지사업에 총력

▌개 요

o 가뭄피해 방지 사업 및 첫 모내기 진행 보도(5.10~11, 중통)

▌주요 내용

o 최근 조선의 농업에서 가물 피해현상이 나타나 이를 막기 위한 사업이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힘 있게 전개되고 있음.

- 국가 계획위원회와 전력공업성을 비롯한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연유와 전력, 농기계 부속품 등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음.
- 모든 기관, 기업소들이 총발동되여 운수수단을 만가동[16]시키고 해당 지역에서 뽑프, 원동기, 강우기 등 물주기에 필요한 설비, 기자재들을 빠짐없이 동원시키고 있음.
- 도·시·군들에서는 관개 구조물들의 보수정비를 다그치고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크고 작은 물 원천들을 탐구 동원하고 있음.
- 양수 동력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가물피해가 나타나거나 가물을 탈수 있는 포전들부터 관수를 보장하는 한편, 아미노산 미량원소 복합비료, 성장촉진제 등으로 잎 덧비료[17] 주기를 진행하며 물 절약형 농업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음.

o 지난 4월 하순부터 시작된 가물현상으로 황해남북도를 비롯한 서해안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동해안 지역에서 밀, 보리와 강냉이들이 가물피해를 입고, 낮 최고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온도인 30℃으로 오르고 센 바람까지 자주 불어 가물현상은 더 심해지는데 기상수문국은 5월 중순까지 가물을 극복할 만한 비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음.

- 황해남도에서는 가물피해가 제일 심한 수천정보의 면적을 물을 대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 이틀 동안에만도 절반 이상에 달하는 4,600여 정보에 대한 물주기를 진행하였음.
- 황해북도는 지난 4월말부터 한 주일 동안에만도 많은 노력과 운반수단을 동원하여 수백 정보의 강냉이 밭과 앞그루 작물들에 대한 물주기를 진행하였음.

16) 만가동 : 『북한어』 계획이나 규정대로 완전히 다 가동함.
17) 잎 덧비료 : 『북한어』「농업」 비료를 푼 물을 농작물의 잎과 줄기에 뿌려서 식물이 빨아들이게 하는 덧거름(=잎 덧거름).

- 평안북도도 여러 지역에서 가물 피해가 확대되는데 맞게 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고 있고, 함경남도를 비롯한 동해안의 농촌들에서도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 나가고 있음.

o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 협동농장에서 5월 10일 첫 모내기가 시작되었음.

문화·예술 관련 성과 선전

▌개 요

o △'평양 수예연구소' 창립 70돌 기념보고회 진행 △제12차 '건축 미학 토론회' 진행 △'조선 혁명박물관' 개관 후 동향 보도(5.10, 중방·노동·중통)

▌'평양 수예연구소' 창립 70돌 기념보고회(5.10, 중방)

o 일시 및 장소 : 2017. 5. 9.(화), 장소 미상(未詳)

* 참석자 : 안정수(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최일룡(경공업상), 연구소 일꾼들, 종업원들

o 보고회에서 평양 수예연구소 창작가, 수예공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었음.

o 소장 윤향희의 기념보고에 이어 부소장 박종학, 단장 문은경, 부원 무금숙이 토론했으며, 결의문이 채택되었음.

▌제12차 '건축 미학 토론회'(5.10, 노동)

o 일시 및 장소 : 2017. 5. 10.(수), 청년중앙회관

* 참석자 : 마원춘(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동정호(건설건재 공업상), 권성호(국가건설 감독상), 김경준(국토환경 보호상), 강영수(도시경영상), 조석호(수도건설위원회 위원장), 설계, 시공, 감독을 비롯한 건설, 과학교육 부문의 일군들, 제17차 '5.21 건축축전' 참가자들

- 토론자들은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나가는 김정은의 업적과 인민대중 제일주의 건축 창조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해설하고 당의 주체적 건축사상과 리론, 건설정책을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리론 실천 문제들을 언급하였음.

▌'조선 혁명박물관' 개관 후 동향(5.10, 중통)

o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혁명력사가 집대성된 대국보[18]관으로 훌륭히 꾸려진 조국혁명박물관을 수많은 참관자들이 련일 찾고 있음.

18) 대국보 :『북한어』 매우 가치 있고 의의가 큰 국보.

o 조선 혁명박물관이 개관된 때부터 지난 40여 일 동안 10만여 명이 참관하였음.

- 또한 주조 무관단, 여러 나라 대사관 성원들, 네팔, 방글라데슈, 이딸리아, 에짚트 등의 외국 손님들과 해외 동포들이 혁명박물관을 찾았음.

‘탄소하나 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대상건설 착공

▌개 요

o ‘탄소하나 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대상건설 착공 보도(5.14, 중통)

▌주요 내용

o 탄소하나 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대상건설이 진행되었음.

* 일시 및 장소 : 2017. 5. 14.(일), 순천화학 련합기업소

* 참석자 : 박봉주(내각 총리), 오수용(당 중앙위 부위원장), 로두철(내각 부총리), 박태성(평안남도 당 위원장)

* 착공사 : 장길룡(화학 공업상)

「조선 자연보호연맹」·「미란다 자연기금」 서해안 철새 공동조사 실시

▌개 요

o 조선 자연보호연맹과 뉴질랜드 미란다 자연기금이 서해 연안 일대에서 진행한 철새 공동조사 보도(5.15, 중통)

▌주요 내용

o 조선 자연보호련맹과 뉴질랜드 미란다 자연기금이 최근 서해 연안 일대에서 철새 공동조사를 진행하였음.

- 남포시 온천군과 평안북도 철산군, 동림군, 선천군, 곽산군의 연안 일대에서 진행된 조사에서는 이 지역들에 날아와 도중 서식하는 도요류들이 총 30여 종에 3만 8,700여 마리이며 물새들이 20여 종에 6,000여 마리에 달한다는 것이 조사 확인되었음.

- 조사기간 남포시 온천군 증악 로동자구 일대에서 6마리의 밭 도요와 1마리의 흰 가슴 알 도요에 새 표식 가락지를 끼워주고 날려 보내는 실기 및 양성사업이 있었음.

- 동시에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날아온 붉은어깨 도요, 붉은배 도요를 비롯한 10여 마리의 새 표식 가락지를 끼워준 철새들도 관찰되었음.

- 특히 이 일대들에서 송곳부리 도요, 까치 도요, 저어새, 누른뺨 저어새, 검은머리 갈매기 등 세계적인 위협 종에 속하는 철새들이 발견 되여 주목을 모았음.

o 조선 자연보호련맹과 뉴질랜드 미란다 자연기금은 2015년부터 해마다 서해 연안 일대에서 철새들의 이동경로와 마리 수, 그 수명을 조사확증하고 있음.

o 주송이(조선 자연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연구사)는 철새 보호를 위한 공동조사 사업은 2020년까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전국 수산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진행

▌개 요

o 전국 수산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진행되었다고 보도(5.17, 중통)

▌주요 내용

* 일시 및 장소 : 2017. 5. 16.(화) ~ 17.(수), 과학기술전당

* 주 최 : 조선 과학기술 총련맹 중앙위원회

* 참가자 :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원산 수산대학, 남포 수산대학, 수산성 수산연구원, 강원도 수산관리국을 비롯한 10여 개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 등 150여 명

o 수산분과와 양어분과로 나뉘여 진행된 발표회에는 140여 건의 론문 제출과 수산물 생산을 늘이는 데서 나서는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한 성과 및 경험들이 발표 되었고 《양어용 생물 먹이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강의도 있었음.

o 폐막식은 5월 17일(수)에 있었음.

단천 발전소 건설 착공

▌개 요

o 단천 발전소 건설 착공식 진행 보도(5.19, 중통·노동)

▌주요 내용

o 김일성·김정일의 생전의 뜻이며 유훈인 단천 발전소 건설은 수백㎞의 물길 굴을 형성하고 여러 강하천의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기본 언제[19]들과 발전소들을 일떠세워야 하는 대자연 개조 전투임.

o 단천 발전소 건설 착공식

* 일　시 : 2017. 5. 18.(목), 단천 발전소

* 참석자 : 박봉주(내각 총리), 오수용(당 중앙위 부위원장), 로두철(내각 부총리), 김성일(함경남도 당 위원장), 리상용(량강도 당 위원장), 무력기관, 관계부문 일군들

* 착공사 : 박봉주

o 박봉주는 착공사에서 단천 발전소 건설은 반공화국 제재와 봉쇄 책동이 악랄해질수록 더욱 무섭게 솟구치는 주체 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것으로 된다고 강조하였음.

- 대규모의 단천 발전소가 건설되면 나라의 긴장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할 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행복한 물질문화 생활을 안겨주고 후대들에게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재보를 마련해주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o 연설자는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단천 발전소 건설에서 천만 군민의 위력과 기상을 다시 한 번 떨칠 데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결의 토론이 있었음.

19) 언제 :『북한어』강을 가로 막기 위하여 쌓은 뚝.

‘제20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 전람회’ 진행

▌개 요

o ‘제20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 전람회’가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다고 보도(5.22~24, 중통)

▌‘제20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 전람회’ 개막식(5.22, 중통)

* 일시 및 장소 : 2017. 5. 22.(월), 3대혁명 전시관

* 참석자 : 리룡남(내각 부총리), 김영재(대외경제상) 등과 경제무역부문 일군들,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 訪北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 성원들

* 개막 연설 : 박웅식(조선 국제전람사 사장)

* 축하 연설 : 오룡철(대외경제성 부상)

o 박웅식 사장은 개막연설에서 평양 봄철 국제상품 전람회가 지난 20년간 조선과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친선과 다방면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의 발전을 추동하는 권위 있는 국제적인 경제회합으로 발전하여 왔다고 말하며,

- 이번 전람회가 나라들 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도모하고 공동의 경제적 발전과 부흥을 가져오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음.

o 오룡철 부상은 축하 연설에서 앞으로도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여러 나라와 지역들과의 대외 경제관계를 확대하면서 경제무역 분야에서 쌍무적 및 다무적[20] 협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o 참가자들은 조선과 벨라루씨, 중국, 이란, 이딸리아, 인도네시아, 웬남, 꾸바, 중국 대북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회사들이 출품한 전시품들을 돌아보았음.

▌‘제20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 전람회’ 진행 주요 내용(5.24, 중통)

o 조선을 포함하여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온 200여 개의 무역회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람회장에는 선진 과학기술이 도입된 각종 전자제품들과 기계, 금속, 건재, 의학, 운수, 경공업 및 식료 일용 제품들이 출품되었음.

20) 다무적 :『북한어』『법률』①셋 이상의 조직이나 단체 또는 나라들이 조약이나 계약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지니는 것 ②셋 이상의 조직이나 단체 또는 나라의 대표들이 관계를 가지거나 그와 관련된 것.

- 전람회에 처음 참가한 이란 남니크 아쉐나 회사 수출입부장 마쏘우드 다리아니는 회사에서는 이번에 20여 종의 식료 제품들을 가지고 처음 참가하였다며, 이번 전람회가 나라들 사이의 경제 무역 교류를 추동하는 좋은 계기로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조선과의 경제 교류를 활발히 벌려나가겠고 말하였음.
- 이밖에 외국 기업가들은 평양 봄철 국제상품 전람회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국제적인 경제회합이라고 하면서 전람회에 계속 참가할 의사를 표명하였음.

「전민족대회 북측 준비위」 공보

▌개 요

o 5월 1일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진행된 '전민족대회 북남 노동자단체 준비위원회' 결성식 보도(5.1, 중통)

▌주요 내용

o 해내외에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위한 준비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속에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인 5.1절 127돐을 맞으며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북남 로동자단체 준비위원회' 결성식이 북과 남에서 진행 되였음.

o 평양에서 진행된 전민족대회 북남 로동자단체 준비위원회 결성식에는 조선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 통일위원회 성원들과 조선 금속 및 기계 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조선 교육문화 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조선 운수 및 수산 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조선 광업 및 동력 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조선 직업 총동맹 평양시 위원회를 비롯하여 산업별, 지역별 직업동맹 대표들이 참가하였음.

- 결성식에서는 연설들에 이어 남조선의 민주 로총과 《한국 로총》에서 보내온 련대사가 랑독되였음.
- 이어 북과 남의 로동자단체 위원장들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전민족대회 북남 로동자단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민족대회 북, 남, 해외측 준비위원회들과의 긴밀한 련계 밑에 대회 실현에서 북남로동자 단체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여나가기 위한 활동방향이 토의되였음.
- 결성식에서는 북남 로동자단체들 사이에 협의된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북남 로동자단체 준비위원회 결성 선언문이 채택되였음.

o 한편 남조선의 서울에서도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의 주최 하에 각 계층 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민족대회 남북 로동자단체 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진행되였음.

- 결성식에서는 조선 직업 총동맹 중앙위원회에서 보낸 련대사가 랑독되였음.

「조국통일연구원」 고발장

▌개 요

o 대선 관련 보수진영 비난(5.4, 중통)

▌주요 내용

o 조국통일연구원은 괴뢰 보수패당이 추악한 잔명을 부지하고 재집권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벌리는 《안보》 소동과 《종북》 소동의 추악상을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해 이 고발장을 발표함.

o 권력 탈취와 유지를 위한 광대극-《안보》 소동

- 남조선에서는 선거철만 도래하면 틀림없이 《안보불안》이 조성되곤 함.
- 《북의 핵, 미싸일 위협》 소동은 괴뢰 보수패당이 매달리는 《안보》 광란극의 극치를 이룸.
- 지금도 괴뢰 보수패당은 박근혜 역도의 탄핵 사태로 지리멸렬된 보수층을 규합하고 민심에 동족 대결광기를 불어넣어 저들의 재집권 망상을 실현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북핵, 미싸일 위협과 도발》에 대해 떠들며 《안보》 소동을 일으켜보려고 안깐힘(안간힘)을 쓰고 있음.
- 오늘과 같은 밝은 세상에 그처럼 유치하고 비렬하며 시대착오적인 술수로 민심과 여론을 기만하고 선거표를 걷어 모으려고 동분서주해대는 것이야말로 실로 가소롭고 어리석은 망동이 아닐 수 없음.

o 남조선판 《매카시즘》-《종북》 소동

- 괴뢰 보수패당이 벌리는 《북풍》, 《종북》 소동은 벌써 오래전부터 남조선판 《매카시즘》으로 악명을 떨쳐왔음.
- 괴뢰 보수패당은 저들의 추악한 권력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온갖 치졸한 짓도 서슴지 않았음.
- 지난해 4월 20대 괴뢰 국회의원 선거 때 박근혜 패당은 참패의 위기가 조성되자 정보원, 외교부 등 외교안보 부서들을 총 동원하여 해외에서 근무하던 우리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사건》을 조작하고는 벅적 떠들어댔음.
- 그러나 모략군들은 《〈총선〉을 닷새 앞둔 시점에서 〈집단탈북〉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누가 보아도 총선용 북풍감》, 《대북제재 효과를 과시해보려는 기획탈북》이라는 내외의 규탄과 비난을 면할 수 없었음.
- 이렇듯 력대 보수 패거리들이 세기를 이어 활용하던 전매특허품 - 《종북》 광란극은 그 모략적 진상이 건건 마다 드러나면서 더는 여론을 기만 우롱할 수 없는 페기품(폐기품)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음.

o 또 다시 벌리고 있는《안보》,《종북》 소동

- 오늘 민심의 규탄배격을 받고 막다른 궁지에 몰린 괴뢰 보수패당은 넝마가 되여 버린지 오랜《안보》,《종북》 보따리를 또다시 펼쳐놓고 이번 선거에서 재집권 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무진애를 쓰고 있음.
-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비롯한 보수 떨거지들은 박근혜 역도의 탄핵사태로 지리멸렬된 보수층을 규합하고 민심에 동족대결 광기를 불어넣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북핵, 미싸일 위협과 도발》에 대해 떠벌이며《안보》 소동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음.
- 괴뢰 보수패당의《안보》 소동은《색갈》 공세,《종북》 소동으로 이어지고 있음.

o 괴뢰 보수 추물들이 이러한 망동을 부리면 부릴수록 그 추악한 실체만 더욱 로출되고 부패한 몸뚱이들에서 악취만 더더욱 고약하게 풍겨날 뿐임.

o 괴뢰 보수패당이《안보》와《종북》 소동으로 파쑈 권력을 부지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음.

o 남조선의 각계 각층은 괴뢰 보수패당이《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광적으로 벌려놓는 대결모략 소동의 추악한 정체를 똑바로 보고 대세의 흐름과 민족의 지향에 도전해 나서는 천하 매국 반역 무리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려야 할 것임.

「국가보위성」 대변인 성명

▌개 요

o 한미 정보당국의 '김정은 테러' 시도를 주장하며 비난·위협(5.5, 중통·중방)

▌주요 내용

o 최근 미 중앙정보국과 괴뢰 국정원이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상대로 생화학 물질에 의한 국가테로를 감행할 목적 밑에 암암리에 치밀하게 준비하여 우리 내부에 침투시켰던 극악무도한 테로범죄 일당이 적발되였음.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은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해치려는 미국과 괴뢰 정보기관의 극도의 광기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단계에 이른 것과 관련하여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성명함.

1. 우리의 최고 존엄을 노린 미 중앙정보국과 괴뢰 국정원의 테로 광신자들을 마지막 한 놈까지 찾아내여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것임.

   - 우리는 이번 특대형 범죄를 단순히 국가주권의 대내적 안전에 대한 불순 적대세력들의 있을 수 있는 침해 행위로 보지 않음.

   -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를 생명으로 하는 국가보위성은 극악한 살인악마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가슴 불태우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담아 지구를 통채로 발가내서라도 이번 특대형 국가테로 음모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이 행성의 어느 구석, 어느 그늘 밑에서 서식하든 억센 집게발로 마지막 한 놈까지 잡아내여 정의의 무쇠주먹으로 무자비하게 죽탕쳐 버릴 것임.

2. 이 시각부터 이 세상 가장 비렬하고 잔악한 특대형 테로집단인 미제와 괴뢰 도당의 정보 모략기구들을 소탕하기 위한 우리 식의 정의의 반테로 타격전이 개시될 것임.

   - 미제와 괴뢰 역적패당의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적대시 정책 수행의 첨병으로 나서서 날뛰고 있는 미 중앙정보국과 괴뢰 국정원이 도사리고 있는 한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노리는 제2, 제3의 특대형 범죄가 또다시 시도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함.

   - 따라서 미 중앙정보국과 괴뢰 국정원을 비롯한 음모와 모략의 소굴, 이 세상 악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며 우리 식의 반테로 타격전은 즉시에 다발적으로 강도높이 개시될 것임.

3. 정의와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세계의 모든 나라와 인민들은 테로의 왕국이고 음모의 소굴인 미국과 남조선 괴뢰 역적패당의 특대형 테로범죄를 끝장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임.

- 이번에 적발 분쇄된 특대형 범죄는 단순히 우리 공화국만이 아닌 인류의 정의와 량심에 대한 테로이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칼부림임.
- 인류를 기만 우롱하는 공동의 원쑤, 포악무도한 행성의 파괴자인 미 중앙정보국과 괴뢰 국정원과 같은 살인 악마집단이 존재하는 한 테로의 공포가 없는 세상은 한갖(한갓) 꿈에 불과함.

o 세계의 선량한 평화애호 인민들은 공동의 투쟁으로 평화와 안정에 대한 념원을 무참히 짓밟는 반인륜적인 갖은 모략과 전횡, 악행을 영원히 종식시켜야 함.

o 원쑤들이 우리의 경고와 인류공동의 념원을 무시하고 계속 도전해 나선다면 력사상 가장 비참한 종말밖에 차례질 것이 없음.

「조평통 정책국」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개 요

o 통일부의 '남북 인권대화' 추진 비난(5.5, 중통·중방)

▌주요 내용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국 평화통일 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괴뢰 역적패당이 그 무슨 《남북 인권대화》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음.

o 조선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괴뢰 통일부가 《북 인권분야의 회담 씨나리오 및 대책 개발》에 착수하였다고 함.

o 온 남조선 땅을 최악의 인권 페허(폐허) 지대로 전락시킨 인간 백정들이 악취풍기는 더러운 주둥이로 《인권대화》를 떠벌이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며 뻔뻔스러운 짓이 아닐 수 없음.

o 괴뢰 통일부 것들이 북남 사이에 해괴하기 그지없는 《인권 대화》판을 펴보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을 다음 《정권》에까지 이어가며 북남회담을 대결마당으로 만들어 북남관계가 개선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보려는 대결 흉심의 발로임.

o 하지만 그것은 한갖 개꿈에 불과함. 자주권을 송두리채 미국에 빼앗기고 상전이 멱을 쥐고 흔들어도 찍소리 한마디 못하는 괴뢰들 따위가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일임.

o 추악한 괴뢰 통일부의 바보들은 어리석은 개꿈을 꾸며 푼수 없이 놀아대지 말고 박근혜 역도와 함께 지옥으로 갈 준비나 하는 것이 좋을 것임.

o 우리는 모략적인 반공화국 《인권대화》를 꿈꾸는 자들에게 단호한 철추를 내릴 것이며 괴뢰 통일부 것들이 민족 앞에 저지른 죄악을 반드시 결산하고야 말 것임.

제19대 대통령 선거 보도

▌개 요

o 北, 우리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진행 및 문재인 대통령 당선 보도(5.11, 중방·평방·중통)

▌주요 내용

o 남조선에서 5월 9일 제19대《대통령》선거가 진행되였음.

o 이번 선거는 괴뢰 정치사상 전대미문의 죄악을 저지른 박근혜 역도가 남조선 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에 의해《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것으로 하여 조기에 치르어진 선거였음.

o 선거에는 더불어 민주당 후보 문재인, 국민의 당 후보 안철수,《자유 한국당》후보 홍준표,《바른 정당》후보 류승민, 정의당 후보 심상정 등 13명의 후보들이 출마하였음.

o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41%의 득표률로 제19대《대통령》으로 당선되였음.

「중앙검찰소」 성명

▌개 요

o 한미 정보당국의 '김정은 테러'를 주장하며, '조직·가담·추종자들 인도' 요구 및 '무자비하게 처형할 것'이라고 위협(5.12, 중통·중방)

▌주요 내용

o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은 우리 공화국의 최고 수뇌부를 상대로 국가 테로를 감행할 목적 밑에 미 중앙정보국과 남조선의 《국정원》이 암암리에 우리 내부에 침투시켰던 테로범죄 일당을 적발하였음.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는 적발 체포 된 자에 의해 그 진면모가 낱낱이 드러난 특대형 국가테로 범죄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을 공화국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함.

1. 우리의 최고 존엄을 노린 특대형 국가 테로범죄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이 시각부터 시작함.

2. 특대형 국가 테로 범죄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을 즉시 적발체포하여 우리 공화국으로 인도할 것을 해당 당국들에 요구함.

o 감히 우리 공화국의 최고 수뇌부를 노리고 특대형 국가테로 범죄를 감행한 극악무도한 살인 악당들은 이 땅, 이 하늘아래 그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음.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는 특대형 국가테로 범죄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을 마지막 한 놈까지 모조리 법정에 끌어내여 공화국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처형할 것임.

「미군 범죄 진상규명 전민특위 북측 본부」 대변인 담화

▌개 요

o '주한미군 전우회' 출범을 '반민족적 망동'이라고 비난하며 반대투쟁 선동(5.12, 중통·중방)

▌주요 내용

o 최근 괴뢰 보수패당이 미국 상전과 공모하여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에서 복무한 자들로 《주한미군 전우회》라는 것을 조작하는 놀음을 벌려놓아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 있음.

o 괴뢰 보수패당의 《주한미군 전우회》 조작 놀음이야말로 친미 사대매국과 숭미 굴종에 쩌들대로 쩌든 미국의 식민지 사환군[21], 가련한 노복의 추악한 본색을 낱낱이 드러낸 쓸개 빠진 반민족적 망동이 아닐 수 없음.

o 지금 괴뢰 보수 패거리들은 《주한미군 전우회》 조작이 《비군사적 차원에서 미래 한미동맹의 토대를 만드는 제2의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과 같은 것》이라느니, 《미국 내에서 한국의 립장을 대변하게 된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며 저들의 극악무도한 친미사대 행위를 합리화하고 있음.

o 《주한미군 전우회》와 같은 허울 좋은 간판을 내걸고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북침전쟁 책동을 미화 분식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피땀을 깡그리 빨아내여 비대한 몸뚱이를 더욱 살찌우려는 것이 미국의 흉심임.

o 괴뢰들을 예속의 사슬에 영원히 매여 놓고 남조선 인민들의 피땀을 깡그리 짜내려는 파렴치한 미국에 제2의 남조선 미국《호상방위 조약》 체결과 같은 굴욕적인 《주한미군 전우회》 조작 놀음으로 염통도 쓸개도 다 꺼내 바치는 친미 역적무리의 극악무도한 망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음.

o 남조선 인민들은 온갖 불행과 재난의 화근인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깡그리 섬겨 바치는 친미 매국노들을 모조리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임.

21) 사환군 : 『북한어』 ① 낡은 사회에서 "개인집이나 려관, 가게 같은데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②착취계급이나 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빌붙어 그놈들의 착취와 침략을 위한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

「민화협」 대변인 담화

▌개 요

o 北 「민화협」, 대변인 담화를 통해 △'보수진영 재집결 움직임' 비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7주년 관련 보수세력 비난 및 투쟁 선동(5.13~18, 중통·중방)

o 보수세력 및 언론들의 대북발언 비난 및 反보수 투쟁 선동(5.25, 중통·중방)

▌「민화협」 대변인 담화(5.13, 중통)

o 천하악녀 박근혜에게 들어붙어 권력을 틀어쥐고 그렇게도 기세등등해 날뛰던 보수 패거리들이 바람 앞의 초불(촛불)신세가 된 가련한 몰골을 보면서 남조선 각 계층은 죄는 지은 데로 가기 마련이라고 한결같이 저주를 보내고 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를 비롯한 보수 꼴통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재집결》이니, 《대통합》이니 하고 야단을 떨면서 어중이떠중이 친박 떨거지들을 규합하여 다시 권력을 찬탈해보려고 최후 발악한 것은 정신적 기형아, 인간 오작품들의 막판 광대극이였다고 해야 할 것임.

o 그동안 괴뢰 보수패당이 역도년의 꺼져가는 숨통을 조금이나마 연명해주어 시시각각으로 조여드는 파멸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보려고 별의별 발버둥질을 다하였지만 이미 기울어진 불리한 형세를 역전시킬 수 없었음.

o 더욱 역스러운 것은 괴뢰 보수패당이 《안보위기》와 《종북세력 청산》을 재집결의 방편으로 내들고 우리를 악랄하게 걸고들며 발광한 것임.

o 문제는 이러한 력사의 패잔병들이 뻔뻔스럽게도 다시 고개를 쳐들고 《새로운 보수개척》이니, 《대동단결》이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며 박근혜 잔당들까지 다 긁어모아가지고 파멸의 나락에서 헤여나 보려고 발악적으로 날뛰고 있는 것임.

o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남조선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장래를 위해서도 괴뢰보수 패당은 이미 처박힌 무덤 구뎅이에서 다시 게바라나올[22] 생각을 하지 말고 그대로 썩어문드러져야 함.

o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심을 거역하고 민족을 반역하며 정의와 진리에 도전하는 력사의 반동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의 철추를 내리고 민족의 밝은 앞날을 힘차게 열어나갈 것임.

22) 게바라다니다 : 『북한어』 "함부로 이리저리 다니는 것"을 홀하게 이르는 말.
* 홀하다 : ①조심성이 없고 행동이 가볍다. ②대수롭지 아니하다.

▌「민화협」 대변인 담화(5.18, 중통·중방)

o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반파쇼 투쟁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영웅적 광주 인민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37년의 세월이 흘렀음.

o 광주 인민봉기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야수적 탄압에 의해 비록 좌절되였지만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지배와 가혹한 군사 파쇼독재를 끝장내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남조선 인민들의 불굴의 의지와 영웅적 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하였음.

o 그때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운 광주의 렬사들의 념원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음.

o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친미 파쇼 무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임.

o 정의로운 광주항쟁을 무참히 모독하고 렬사들의 령혼에 칼질하는 이러한 후안무치한 망동은 군부독재의 더러운 바통을 이어받은 희세의 파쇼 광녀 박근혜 역도의 비호 속에 더욱 광란적으로 벌어졌음.

o 력사적 경험과 교훈은 진리와 정의에 역행하는 반역패당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벌려나갈 때 광주 항쟁자들의 뜻과 념원을 실현할 수 있고 남조선 인민들이 그처럼 바라는 자주의 새 사회, 민주의 새 세상, 통일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실증해주고 있음.

o 세기를 이어 지속되는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끝장내고 친미 매국 세력을 종국적으로 매장해버리는 것은 광주의 항쟁 렬사들이 한결같이 바라던 념원임.

o 광주 렬사들의 피맺힌 원한과 분노는 결코 그 어떤 미사려구나 행사로 위로될 수 없으며 《정권》이 바뀌여졌다고 하여 그들이 바라던 뜻이 저절로 실현되는 것도 아님.

o 남조선 각 계층 인민들이 정의의 초불을 높이 들고 박근혜 역적 패당에게 수치스러운 파멸을 선언한 그 과감한 투쟁정신으로 사대와 매국, 독재와 살륙을 일삼는 친미파쇼 무리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함.

o 특히 광주학살 만행의 진상을 은페(은폐)하고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발악하는 전두환 역도와 같은 살인악당을 민심의 교수대에 매달아야 하며 자주, 민주, 통일로 향한 력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보려고 최후 발악하는 박근혜 잔당들이 다시는 무덤속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영영 매장해버려야 함.

o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광주 항쟁 렬사들이 추켜들었던 자주와 민주, 통일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반미자주의 불길, 반 보수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할 것임.

▌「민화협」 대변인 담화(5.25, 중통·중방)

o 지금 온 민족은 북남관계에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절절히 바라고 있음.

o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괴뢰 보수 패거리들은 민족의 기대와 열망, 대세의 흐름에 도전하여 골수에 찬 반공화국 적대감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아 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음.

o 한편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도 《남북관계를 대화로 푼다는 것은 환상이다.》, 《북의 핵무장 강화에 리용당할 수 있다.》, 《정부는 북에 단호한 메쎄지를 보내야 한다.》고 떠들어대면서 남조선 내부에 반공화국 적대의식과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회의감을 고취하려고 음흉하게 놀아대고 있음.

o 그야말로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커다란 기대와 드높은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대결의 빗장을 더 깊숙이 질러놓는 극악한 반민족적 망동이 아닐 수 없음.

o 오늘날 북남관계 개선은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 번영의 길을 여느냐, 동족대결과 핵전쟁의 참화를 불러오느냐를 판가름하는 사활적인 문제로서 그것은 당국이나 정파의 요구이기 전에 민족의 근본 지향임.

o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극악한 동족 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 몰아넣은 괴뢰 보수패당에 대한 남조선 초불민심과 온 민족의 준엄한 심판이였음.

o 누구든 민족의 근본 리익을 외면하고 동족대결에 매여 달린다면 력사의 준엄한 철추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이 박근혜 탄핵과 보수 《정권》 파멸이 남긴 교훈임.

o 보수패당의 발악적 책동은 박근혜 탄핵과 《대통령》 선거 패배로 극도의 위기에 몰린 상태에서 이제 북남관계까지 열리게 되면 동족 대결정책의 총파산으로 저들은 립지를 완전히 잃고 지리멸렬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절체절명의 불안감의 발로임.

o 비극은 보수패당이 대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푼수 없이 헤덤벼 치고 있는 것임.

o 주체적인 국가 핵무력 강화의 길에 대성공의 뢰성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터쳐올리는 선군조선의 강용한 기상이 우주를 진감하고 동방의 핵 강국, 로케트 맹주국으로 솟구쳐 오른 우리의 무진막강한 군사적 위력에 기겁하여 미국상전마저도 쩔쩔매고 있는 것이 눈앞의 현실임.

o 북남관계 개선은 막을 수 없는 대세의 흐름이며 어리석은 미몽에서 깨여나야 할 것은 다름 아닌 괴뢰 보수패당임.

o 남조선 각 계층 인민들과 온 겨레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암적 존재이고 북남관계 파국의 주범인 괴뢰 보수패당을 철저히 매장해버리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 것임.

「아시아태평양 평화위」 대변인 담화

▌개 요

o '화성 12형' 발사 관련 우리 정부 대응 비난 및 '핵무력 지속 강화' 위협(5.18, 중통·중방·평방)

▌주요 내용

o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케트 《화성-12》형 시험 발사의 대성공은 년대와 세기를 이어온 미제와의 대결을 끝장내고 최후 승리의 통장훈을 부를 또 하나의 완벽한 무기체계, 《주체탄》의 탄생을 선포한 민족사적 쾌거로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참으로 중대하고도 특별한 의의를 가짐.

o 그런데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은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니, 《위반》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가 진행한 새 형의 로케트 시험 발사의 평화 수호적 성격과 력사적 의미를 오도하며 큰 변이나 난 듯이 소란을 피워대고 있음.

o 얼마 전 미국의 강권과 전횡의 둘러리(들러리)로 전락된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를 또다시 내세워 그 무슨 공보문이라는 것을 발표하는 놀음을 벌린 것은 그 하나의 실례임.

o 더욱 아연케 하는 것은 새로 집권한 남조선 당국이 이번 시험 발사의 사변적 의의를 외면하고 무턱대고 외세와 맞장구를 치며 온당치 못하게 놀아대고 있는 것임.

-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로케트 시험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홍용표와 같은 박근혜 잔당들까지 불러들여 《국가 안전보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유엔 결의 위반》이니, 《엄중한 도전》이니, 《새 정부에 대한 시험》이니 뭐니 하며 그 무슨 《규탄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는 추태를 부리였음.

o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 때마다 《도발》이니, 《응징》이니 뭐니 하고 독을 쓰며 날뛰던 박근혜 패당의 가증스러운 몰골을 상기시키는 광경이 아닐 수 없음.

o 우리의 새 형의 로케트 시험 발사는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핵전쟁 침략 위협으로부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임.

o 더우기 남조선에서 우리의 이번 로케트 시험 발사에 대해 《새 정부에 대한 시험》이니 뭐니 하는 망발들이 튀여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에 대한 무지와 오판에서 나오는 황당무계한 잡소리에 불과함.

o 명실상부한 핵 강국인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가 어떤 경지에 올라있으며 천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재부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무턱대고 시비질부터 해대는 남조선 당국의 추태야말로 어리석고 가긍하다해야 할 것임.

o 우리의 자위력 강화조치는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사로서 미국에서 행정부가 교체되고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였다고 하여 중단되거나 속도가 늦추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

o 다시금 강조하건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전쟁 위협이 날로 가증되는 조건에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 핵 보복 타격 능력은 더욱 높은 속도로 강화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함.

o 미국은 미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들어있고 섬멸적 보복타격의 온갖 강력한 수단이 우리의 수중에 있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오판해서도 안 될 것이며 부질없는 경거망동으로 우리 공화국을 서뿔리 건드린다면 사상 최대의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함.

o 남조선 당국은 민족의 머리 우에 핵 참화를 들씌우려는 외세에 들어붙어 《북핵위협》 나발을 불어대며 동족을 해치려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박근혜 역도 년의 가련한 운명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함.

o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 력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옳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고도로 정밀화, 다종화된 핵무기들과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케트를 비롯한 핵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어나가며 필요한 시험을 더욱 다그쳐나갈 것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개 요

o 우리 군의 '미상(未詳) 비행체' 경고사격(5.23.) 관련 비난(5.25, 중통)

▌주요 내용

o 군사분계선 일대는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항시적으로 총부리를 마주하고 대치되여 있는 첨예한 열점지역임.

o 이곳에서는 사소한 우발적인 실수나 불순한 언동도 쉽사리 파국적인 군사적 충돌로 번져질 수 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괴뢰들은 23일 오후 4시경 강원도 철원 최전방 지역 상공에서 날아가는 새무리를 보고 《정체모를 비행체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하》하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무턱대고 우리 측을 향해 경고방송을 불어대고 450여 발의 기관총탄까지 란사해대며 소란을 피웠음.

o 괴뢰 군부 호전광들이 이번에 감행한 무모한 군사적 도발은 남조선 사회에 반공화국 적대감을 조장하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험악한 대결 국면에 못박아두려는 불순한 속내의 연장임.

o 지금 만고역적 박근혜의 탄핵 사태를 계기로 인민들의 버림과 배척을 받고 파멸의 함정에 빠진 괴뢰 보수 패거리들은 꺼져가는 잔명을 부지하며 남조선 내부에서 급격히 높아가는 북남관계 개선 요구를 막아보려고 동족대결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음.

o 괴뢰들의 이번 군사적 도발은 높은 속도로 비약하는 우리의 핵, 탄도 로케트 위력으로 하여 괴뢰군 안에 휩쓸고 있는 염전염군 분위기를 막아보려는 궁여지책이기도 함.

o 괴뢰 군부 호전광들이 황당무계한 《비행체의 남하설》을 떠들어댄다고 하여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음

o 오히려 모략과 날조의 상습범이라는 더러운 오명과 함께 쓰디쓴 조소만 받게 될 것임. 우리 군대는 무모하게 번져지는 도발자들의 새로운 대결광란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음.

「조선 평화옹호 전국 민족위」 대변인 성명

▌개 요

o 사드 배치 관련 보수세력 비난 및 '사드 배치 철회' 주장(5.27, 중통)

▌주요 내용

o 최근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핵전쟁 광기가 극도에 달하고 있는 속에 남조선에서 《싸드》 배치 철회를 위한 각 계층의 투쟁이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음.

o 알려진 바와 같이 《싸드》 배치 합의는 침략의 원흉인 미국의 강도적 요구와 괴뢰 보수패당의 추악한 대미굴종의 산물로서 남조선 인민들과 온 민족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 주변 나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패당은 《싸드》 배치를 합리화해보려고 온갖 교활한 술수를 다 쓰다 못해 나중에는 미국과 작당하여 도적 물건을 집안에 끌어들이듯 관련 장비 반입을 강행하였음.

o 문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패거리들과 바람 따라 돛을 다는 정치 간상배들이 미국과 합의된 《싸드》 배치를 철회하면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국론분렬》을 가져올 수 있다고 떠들어대고 새로 집권한 남조선 당국 역시 《신중한 해결》이요, 《국회동의 절차》요 하면서 각 계층의 《싸드》 배치 철회 요구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임.

o 《싸드》 배치냐 아니면 철거냐, 이것은 외세 추종과 민족중시 립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며 여기에서는 그 어떤 타협이나 절충이란 있을 수 없음.

o 조선 평화옹호 전국 민족위원회는 민족의 존엄과 안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를 반영하여 침략적인 《싸드》 배치 문제에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남조선 집권세력에게 다음과 같은 원칙적 립장으로 경종을 울림.

1. 《싸드》 배치는 남녘땅을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 실현을 위한 전초기지, 군사기지로 영원히 내맡기는 매국배족적 망동임.

- 지금 미국은 《북의 핵 위협》이라는 당치않은 구실을 내대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방대한 침략무력과 핵전쟁 장비들을 들이밀고 있음.

- 남조선 당국은 《싸드》 배치가 세계제패를 노리는 미국의 핵전쟁 물방아간에 물을 대주고 침략의 발판을 깔아주는 천하의 쓸개 빠진 역적 짓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립장을 명백히 하여야 함.

2. 《싸드》 배치는 조선반도를 대국들의 핵전쟁 마당으로 만들고 전대미문의 대참화를 불러오는 천추에 용납 못할 역적행위임.

- 심각한 것은 《싸드》 배치로 하여 오늘 남조선이 단순히 우려와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주변 핵 강국들의 1차적인 타격목표로 되였다는데 있음.
- 만일 미국에 추종하여 《싸드》 배치를 끝끝내 허용한다면 그것은 《을사오적》을 무색케 할 천하 역적죄로 될 것임.
- 남조선 당국은 온 민족이 엄한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지체 없이 《싸드》 철거 용단을 내려야 함.

3. 《싸드》 배치는 침략자의 힘을 빌어 민족의 존엄과 안전, 번영을 천만년 담보해 줄 정의의 핵 보검을 없애려는 반민족적 범죄임.

- 우리 민족에게는 지난 세기 초엽 자기를 지킬 변변한 총대가 없어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쓰라린 교훈이 있음.
- 남조선 당국은 민족의 천만년 미래를 담보해줄 정의의 핵 보검에 대해 환영하지는 못할망정 침략자의 《싸드》를 끌어들여 그것을 없애보겠다고 헤덤벼 친 보수패당의 책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망동이고 무서운 반민족적 죄악으로 되는가를 깊이 새겨보아야 함.

o 《싸드》 배치는 박근혜 패당이 남긴 가장 심각한 적폐(적폐)의 하나이며 그 철회는 남조선 초불민심의 강력한 요구이고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의 흐름임.

o 그가 누구든 미국의 침략적인 《싸드》 배치를 허용한다면 보수역적 패당처럼 민심의 버림과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

대외동향

「외무성」 대변인 담화

▌개 요

o 미국의 새 대북정책과 칼빈슨호 한반도 재배치 관련 "우리(北)의 핵무력 고도화 조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위협(5.1, 중통·중방)

o '화성 12형' 탄도 미사일 발사 관련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 비난(5.20, 중통)

o 日 당국자들(아베 총리·관방장관)의 '北 핵무력 강화 관련 대북 압력, 제재분위기 고취'는 '군국화를 본격 실현 위한 법적 명분 마련' 때문이라고 비난하며 '핵무기들과 핵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 것' 강조(5.29, 중방·중통)

▌「외무성」 대변인 담화(5.1, 중통·중방)

o 미국의 침략적인 반공화국 합동 군사연습과 군사적 위협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되였던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음.

o 올해에 미국은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연습을 사상 최대규모로 벌려놓으면서 《방어적》이라는 외피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우리에 대한 핵 선제타격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 놓았음.

o 미국은 또한 저들이 주권국가에 대하여 감행한 군사적 공격이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로 된다고 광고하였는가 하면 우리 주변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들이밀고 《칼빈손》호 핵 항공모함 타격단까지 항로를 바꾸어 조선반도 수역으로 긴급 출동시키는 등 그 무슨 《군사적 선택》에 대해 떠들면서 실지로 우리를 치려하였음.

o 조미 사이의 대결이 반세기가 훨씬 넘도록 지속되여 왔지만 미국의 대조선 침략 광기가 이처럼 극도에 이르고 그로 하여 조선반도 정세가 이번처럼 핵전쟁 발발의 접경에 치달아 올랐던 적은 일찌기 없었음.

o 미국의 횡포무도한 군사적 모험책동에 우리는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핵전쟁에는 우리 식의 핵타격전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단호한 립장으로 강경 대처하였으며 우리 혁명무력의 무자비한 보복의지와 무진 막강한 위력을 힘 있게 과시함으로써 미국의 전쟁도발 흉계를 짓부셔 버렸음.

o 조선반도의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침략과 전쟁의 원흉, 평화의 파괴자, 긴장 격화의 장본인이며 우리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강력한 자위적 핵 억제력을 굳건히 다져온 것이 얼마나 정당하고 선견지명 하였는가를 다시금 실증하여 주고 있음.

o 만일 우리가 최강의 핵무력을 보유하지 않고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도발에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으로 대답할 준비를 갖추지 않았더라면 미국은 이번에 다른 나라들에서 저지른 강도적인 침략행위를 조선에서도 거리낌 없이 감행하였을 것임.

o 바로 이러한 강권과 전횡을 막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 진정한 국제적 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만난을 이겨내면서 핵 억제력을 다져나가고 있는 것임.

o 우리의 강위력한 전쟁 억제력에 의하여 조선반도 정세가 또 한 차례의 고비를 넘겼지만 전쟁의 검은 구름이 완전히 가셔진 것은 아님.

o 우리는 이번 반미 대결전을 통하여 그 누구의 지원도, 동정도 없는 력사의 돌풍속에서 자기를 지켜내자면 오직 자체의 힘이 강해야 한다는 철리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였음.

o 미국이 새로 고안해낸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조선 정책에 매여달리면서 우리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압박 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 조치도 최대의 속도로 다그쳐질 것임.

o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미국의 광란적인 핵전쟁 도발책동을 강위력한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짓부셔버리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는 확고부동함.

o 우리는 미국의 그 어떤 선택에도 기꺼이 대응해줄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며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이 철회되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핵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임.

o 우리의 핵무력 고도화 조치는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임.

▌「외무성」 대변인 담화(5.20, 중통·중방)

o 미국이 우리의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케트 《화성-12》형 시험발사를 걸고 들며 국제적인 반공화국 제재압박 분위기를 조성해보려고 나오고 있음.

o 가소로운 것은 미국과 추종세력이 20여 개 나라와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탄도로케트 발사를 규탄하였다느니 뭐니 하면서 마치 저들의 반공화국 책동이 국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듯이 광고하고 있는 것임.

o 이것은 흑백을 전도하는 비렬한 모략책동임.

o 지금 적대세력들이 떠드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나라들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고 우리를 핵무력 강화에로 떠민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광란적인 합동군사 연습, 핵위협 공갈과 군사적 모험책동을 반대해 나서고 있음.

o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국제적 민심 앞에 거짓과 날조가 통하지 않게 되자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광신자들은 다른 나라들이 북조선을 지지하든지 미국을 지지하든지

결정을 내리라, 북조선을 지지하는 그 어떤 나라나 단체, 개인도 철저히 제재할 것이다, 국제기구라도 문제시할 것이다고 하면서 유엔 우에 군림하여 란동을 부리고 있음.

o 이것은 결국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의사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제재압박의 대상으로 되여야 한다는 날강도적 론리로서 미국이 떠들고 있는 《국제사회의 총의》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꾸며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적라라(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음.

o 조선반도 긴장 격화의 근원을 들어내고 진정한 국제적 민심과 정의를 마구 란도질하는 횡포 무도한 무리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틀어쥔 것이 바로 우리의 핵 보검임.

o 미국이 국제 여론을 오도하면서 우리에 대한 무모한 압박의 도수를 높일수록 정의의 핵 억제력을 억척으로 다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임.

▌「외무성」 대변인 담화(5.29, 중통·중방)

o 우리의 핵무력 강화조치는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 도발책동을 끝장내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주권국가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권리행사임.

o 그런데 일본이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위협이요, 도발이요 하고 걸고들면서 못되게 나오고 있음.

- 일본 당국자가 최근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7개국 수뇌자회의 기간 우리에 대해 지금은 대화가 아니라 압력을 가해야 할 때라고 하면서 제재결의에 엄격한 이행과 새로운 결의채택에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는가 하면 내각 관방장관과 외상 등 각료들도 나서서 우리에 대한 그 무슨 추가적인 독자제재에 대하여 떠들어대고 있음.

o 일본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반공화국 압력, 제재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위협을 구실로 어떻게 하나 파쇼 악법을 조작하여 군국화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 명분을 마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o 지금 일본에서는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개악하여 일본을 전쟁국가로 만들며 테러대책의 간판 밑에 전국을 감시망 속에 몰아넣고 파쇼화하려는 우익세력의 책동을 반대 배격하는 목소리가 광범한 인민들은 물론 정계에서까지 울려나오고 있음.

o 일본 당국이 우리의 자위적 조치들을 도발과 위협으로 걸고들며 군국주의 부활과 재침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발광하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짓임.

o 우리는 지난날 조선 인민에게 온갖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과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우리의 자주권 행사까지 걸고들며 새로운 죄를 쌓고 있는 데 대하여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며 철저히 계산하고 있음.

o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고도로 정밀화, 다종화 된 핵무기들과 핵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갈 것임.

o 지금까지는 일본 땅에 있는 미국의 침략적 군사 대상들만이 우리 전략군의 조준경 안에 들어 있지만 일본이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끝까지 미국에 추종하여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나온다면 우리의 과녁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임.

「조선중앙통신」 개인 논평

▌개 요

o 중국의 대북 압박 등 관련 "그가 누구이든 우리(北)의 핵 보유 노선을 변화시킬 수도 없으며, 조중 친선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해도 핵과 맞바꾸면서까지 구걸할 우리가 아니다"라고 주장(5.3, 중통)

▌주요 내용

o 김철이 3일에 발표한 론평 《조중관계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무모한 언행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음.

o 최근 우리의 핵보유를 걸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감행하는 반공화국 제재와 군사적 압박 소동이 한계를 넘어서고 조선반도 정세가 각일각 첨예해지고 있는데 대한 내외의 우려는 매우 심각함.

o 그런데 미국이 요란하게 불어대는 위협 공갈과 전쟁 굉음에 심장이 졸아들어서인지 덩지 큰 이웃나라들에서 사리와 분별을 잃은 언사들이 련일 터져나와 현 사태를 더욱 긴장국면으로 몰아가고 있음.

o 중국 당과 정부의 공식 립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인민일보》와 《환구시보》가 지면을 아끼지 않고 쏟아내는 글들이 그 대표적 실례임.

o 최근에도 《인민일보》와 《환구시보》는 여러 편의 론평에서 우리의 핵보유가 저들의 국가적 리익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떠들면서 조중관계 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미국의 장단에 놀아대는 행위에 대해 구구하게 변명해 나섰음.

o 론평들에서는 조선이 중국 국경으로부터 100㎞도 안 되는 곳에서 핵 시험을 하면서 《동북지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느니, 우리가 동북아시아 정세를 자극하고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배치를 강화하는 구실을 제공》한다느니 하고 떠들던 끝에 우리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공동 리익이며 저들에게 위험을 가져다줄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횡설수설하였음.

o 지어는 조중관계의 주도권이 자신들의 손에 쥐여져 있으며 우리가 중국과의 군사적 대립을 바라지 않는다면 《장기간의 고립과 또 다른 국가안보의 길》 사이에서, 중조친선과 핵 포기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도전적인 망발도 서슴지 않았음.

o 이것은 주권국가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이며 합법적인 권리와 존엄, 최고 리익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며 친선의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진 선량한 이웃나라에 대한 로골적인 위협임.

o 우리는 오늘에 와서 내외가 공인하는 핵보유의 불가피성과 순탄치 않았던 모든 과정에 대하여 구태여 다시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음.

o 다만 자신들과 전혀 상관도 없는 우리의 핵문제에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 못지 않게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천만부당한 구실을 들어 년대와 세기를 이어 공고발전되어 온 조중관계를 통채로 무너뜨리고 있는데 대하여 격분을 금할 수 없음.

o 중국의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걸핏하면 거론하는 《국가적 리익의 침해》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할 말이 더 많음.

o 상대의 신의 없고 배신적인 행동으로 국가의 전략적 리익을 거듭 침해당해온 것은 결코 중국이 아니라 우리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임.

o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허물어 보겠다고 극악무도하게 날뛰는 남조선 괴뢰들과 외교관계를 체결하고 순수한 경제교류의 테두리를 벗어나 정치, 군사적 관계에로까지 심화시키면서 동북3성은 물론 중국 전역을 반공화국 전초기지로 전락시킨 죄과를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겠는가.

o 중국의 일부 론자들이 우리의 핵보유가 동북아시아 정세를 긴장시키고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배치를 강화하는 구실을 제공한다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배전략은 우리가 핵을 가지기 훨씬 이전부터 가동되였으며 오래전부터 그 기본목표는 다름 아닌 중국이였음.

o 오히려 70여 년이나 반미 대결전의 제1선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리며 미국의 침략적 기도를 좌절시키고 중국대륙의 평화와 안전수호에 기여한 것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에게 고맙다는 인사부터 해야 응당할 것임.

o 조중 친선의 전통적 관계가 당시 각국의 리익에 부합되였기 때문이라고 감히 매도하는 무지몽매한 중국의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은 력사의 본질을 똑바로 알고 입을 놀려도 놀려야 함.

o 조선과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밀접히 련관된 이웃나라일 뿐 아니라 선대 수령들이 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붉은 피로 기발을 물들이며 함께 친선의 정을 쌓아온 류다른[23] 전우의 나라, 형제의 나라임.

o 항일대전과 항미 전쟁은 조중 현대사에 다 같이 지울 수 없는 영웅적 서사시로 아로새겨져있으며 조선과 중국의 아들딸들은 그 가렬처절한[24] 전장에서 국적을 초월한 사심 없는 희생과 헌신으로 우애를 두터이 하였음.

o 풍파 사나운 20세기 소용돌이치는 세계정치의 한복판에서도 두 나라는 사회주의의 기치를 수호하고 자주권을 지키는데서 뜻과 힘을 합쳐왔음.

o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고의적으로 덮어두고 파렴치하게도 미국이 웨치는 《국제사회의 일치한 견해》라는 것을 그대로 따라 외우며 반공화국 적대세력과 한편이 되여 우리를 범죄자로 몰아대고 잔혹한 제재놀음에 매달리는 것은 조중관계의 근본을 부정하고 친선의 숭고한 전통을 말살하려는 용납 못할 망동이 아닐 수 없음.

23) 류다르다 : 『북한어』 무엇이 어느 것과 두드러지게 특별히 다르다. '유다르다'의 북한어.
24) 가렬처절하다 : 『북한어』 (싸움이) 몹시 세차고 말할 수 없이 처렬하다.

o 조중관계의 《붉은 선》을 우리가 넘어선 것이 아니라 중국이 란폭하게 짓밟으며 서슴없이 넘어서고 있음.

o 우리 두 나라 사이의 《붉은 선》은 그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존엄과 리익,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임.

o 우리에게 있어서 핵은 존엄과 힘의 절대적 상징이며 최고 리익임.

o 우리는 세기와 년대를 이어 우리 사상, 우리 제도, 우리 존엄을 빼앗고 짓밟으려는 세계 최대의 핵 렬강인 미국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조국과 인민을 사수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였으며 그 자위적 사명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임.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도 높은 경제제재는 물론 군사적 개입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우리 조선의 전략적 리익은 물론 존엄과 생존권까지도 마땅히 희생되여야 한다는 극히 오만한 대국주의적 론리에 지나지 않음.

o 그가 누구이든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우리의 핵 보유 로선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도 흔들 수도 없으며 조중 친선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해도 목숨과 같은 핵과 맞바꾸면서까지 구걸할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함.

o 이미 최강의 핵 보유국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길은 여러 갈래라는 것을 이 시각 구태여 재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음.

o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 조선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전략적 가치는 날로 상승하고 있으며 핵 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선 평양으로 향하는 길은 온 세계에 뻗어있음.

o 중국은 더 이상 무모하게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현실을 랭정하게 보고 옳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함.

o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싸드》 배치를 막아보겠다고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의 불법무도한 대조선 《제재 결의》 채택에 손을 들어주고 동북3성의 경제적 피해까지 감수해가며 우리에 대한 제재에 나섰지만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o 온갖 비난을 다 들으면서 미국에 양보하고 아부했지만 남조선에는 중국을 겨냥한 비수인 《싸드》가 한밤중에 기습배치되여 참으로 《어리석은 거인》을 비웃고 있음.

o 미국의 힘에 눌리워 제 주견도 세우지 못하고 목전의 리익에 눈이 어두워 수십년간 이어온 형제의 우정마저 헌신짝처럼 저버린다면 결국에는 누구의 신뢰도 받지 못하는 가련한 신세가 되고 사방에서 화가 들이닥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o 중국은 조중관계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오늘의 무모한 망동이 가져올 엄중한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임.

「외무성 미국연구소」 대변인 담화

▌개 요

o 미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발사(5.3.)는 '이중기준의 극치'라고 비난하며 이를 '함구무언한 유엔 안보리 개혁' 주장(5.5, 중통·중방)

▌주요 내용

o 미국이 핵전략 자산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한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연습과 군사적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 정세를 최악의 위험계선으로 몰아가는 속에 지난 4월 26일에 이어 5월 3일 또다시 대륙간 탄도 미싸일 시험을 감행하였음.

o 한주일 남짓한 기간에 두 차례나 벌어진 대륙간 탄도 미싸일 시험발사에 대하여 미국이 1년 전에 계획된 것으로서 우리의 핵 및 장거리 탄도 미싸일 발사와는 련관이 없다고 떠들어대지만 세계의 많은 여론들은 미국의 련이은 대륙간 탄도 미싸일 시험발사가 가뜩이나 첨예한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험악한 지경에로 몰아갈 수 있다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고 있음.

o 미싸일 발사라는 동일한 행동을 두고 미국은 해도 되고 조선은 하면 안되며 미국이 하면 평화와 안전에 대한 《기여》로 되고 조선이 하면 《도발》로서 긴장을 격화시킨다는 미국의 궤변은 이중기준의 극치임.

o 우리의 땅과 수역에서 진행된 탄도 로케트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규탄》이요, 《제재》요 고아대면서도 대양을 가로질러 무려 6,000여 km나 비행한 미국의 대륙간 탄도 미싸일에 대하여서는 함구무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엔 안보 리사회임.

o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눌리워 그들의 대륙간 탄도 미싸일 발사는 못 본체 하고 묵인하면서 우리의 탄도 로케트 시험발사만을 문제시하는 유엔 안보 리사회는 《이중기준 리사회》, 《미국 안보 리사회》라고 불러야 할 것임.

o 참다운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려면 미국의 이중기준 자대를 꺾어버려야 하며 유엔 안보 리사회를 개혁하여야 함.

o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악랄한 핵위협 공갈이 계속되는 한 우리 식의 핵 선제공격 능력을 비상히 높은 속도로 강화해나갈 것임.

o 유엔 안보 리사회가 미국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합동 군사연습과 대륙간 탄도 미싸일 발사를 문제시하지 않는 한 우리의 탄도 로케트 발사를 걸고드는 그 어떤 《결의》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제재결의》의 부당성을 계속 폭로해 나갈 것임.

o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음.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개 요

o 코리 가드너(美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의 '김정은 당 위원장 비난 인터뷰'(5.3. NBC 방송)에 대해 '엄중한 도발'이라며 '몸서리치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5.5, 중통)

o '범죄자들을 법대로 다스리는 것은 주권국가의 당당한 권리 행사'라며 美 언론들의 '北, 미국인들 억류' 관련 보도('인질로 납치, 협상 흥정물' 등) 일축(5.11, 중통)

o 유엔 안보리의 '北 탄도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 만장일치 채택(5.15.)에 대해 "전면 배격한다"며 "완성된 무기체계가 결코 미국의 영원한 독점물로 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北)도 상응한 보복수단을 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위협(5.16, 중통·중방)

o △유엔 안보리의 北 '북극성 2형' 시험발사 규탄 언론 성명(5.22.) 관련 '전면 배격' 입장 표명 △北 '만경봉호 취항(나진-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 미국의 對 러시아 대응 관련 비난(5.23~24, 중통)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5.5, 중통)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 국회의 정객이라는 자가 우리의 최고 존엄을 헐뜯는 망발을 한 것과 관련하여 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음.

o 지난 3일 미 국회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분과위원장 코리 가드너라는 놈이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최고 존엄을 악랄하게 모독하는 못된 짓을 하였음.

o 정신병자 같은 가드너 놈이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헐뜯는 악담을 쭤쳐댄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도발임.

o 미국의 정객들 속에 사물현상에 대한 초보적인 판단능력은 물론 인간의 체모마저 상실한 가드너와 같은 인간오물이 섞여있는 것은 미국의 불행이 아닐 수 없음.

o 우리 공화국에 대한 거부감이 골수에까지 들어차 《대조선 제재압박》을 앞장에서 제창해온 가드너 놈은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건드림으로써 극악한 대결광신자로서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냈음.

o 천만군민이 태양으로 받들어 모시는 우리의 최고 존엄에 삿대질을 해대는 미치광이들은 지구상 그 어디에 있든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징벌의 철추를 피할 수 없음.

o 이 자는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린 망동에 대하여 몸서리치게 후회하게 될 것임.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5.11, 중통)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일부 언론들이 미국인 억류 문제를 놓고 불순한 여론을 내돌리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1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음.

o 미국의 일부 보수언론들은 우리가 미국인들을 《인질》로 《랍치》하여 《협상 흥정물》로, 《인간 방패》로 써먹으려 한다는 황당한 궤변들을 여론화하고 있음.

o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우리 최고수뇌부를 《제거》하고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엄중한 특대형 범죄행위들을 지금 이 시각도 끊임없이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음.

o 최근에 억류된 미국인들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하여 해당 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음.

o 범죄자들을 법대로 다스리는 것은 주권국가의 당당한 권리 행사임.

o 미국의 보수언론들이 우리에게 억류된 미국인들을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인질》로 묘사하는 것은 국가 주권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도 없는 무지만을 보여줄 뿐임.

o 이번에 억류된 자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곧 알려지게 될 것임.

o 우리는 불순 적대분자들의 온갖 반공화국 모략책동을 모조리 적발 분쇄하고 범죄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며 우리 국가와 제도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임.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5.16, 중통·중방)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케트 《화성-12》형 시험발사의 성공과 관련하여 1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음.

o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김정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우리 로케트 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지난 14일 새로 개발한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케트 《화성-12》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음.

o 우리 공화국이 도달한 국방 과학기술 발전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는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케트 《화성-12》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참으로 중대하고도 특별한 의의를 가지며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됨.

o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상적인 핵무기 고도화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시험발사는 위력이 강한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새 형의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케트의 전술 기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최대 고각 발사체제로 진행되였음.

o 그런데 일부에서는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권 행사를 두고 그 무슨 《위반》이니, 《위협》이니 하는 랑설들을 늘어놓는가 하면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는 우리의 탄도로케트 발사를 걸고드는 공보문이라는 것을 발표하였음.

o 우리는 미국의 악랄한 반공화국 책동에 편승하여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를 문제시한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 공보문을 단호히 전면 배격함.

o 미국이 최근 한 주일 동안에만도 두 차례나 대륙 간 탄도 미싸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지만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가 이에 대해 한마디라도 언급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임.

o 자위권은 자주권의 첫째가는 징표이며 이에 대해 시비하는 것이야말로 자주권에 대한 로골적인 침해이며 횡포 무도한 내정간섭임.

o 만일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함부로 걸고들며 설쳐댄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것은 오직 쓰디쓴 참패와 후회뿐일 것임.

o 그 누가 인정하든 말든 우리 국가는 명실상부한 핵 강국이며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비상히 강화 발전된 핵 억제력으로 핵 공갈을 일삼는 자들을 단호히 다스릴 것임.

o 미국이 그 무슨 《압박》이니 뭐니 하며 조선반도 주변에 핵전략 장비들을 끌어들여 우리를 위협공갈하고 있지만 핵 없는 나라, 힘이 약한 민족만을 골라 군사적으로 롱락하는 비겁한 미국식 허세는 우리에게 통하지 않으며 실로 가소롭기 그지없음.

o 우리는 미국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여 감히 군사적 도발을 선택한다면 기꺼이 상대해줄 준비가 되어 있음.

o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무기체계가 결코 미국의 영원한 독점물로 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도 상응한 보복수단을 쓸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임.

o 미국은 그 기회에 조선의 탄도 로케트들이 미국에 실지로 위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속 시원히 보면 될 것임.

o 미국은 미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들어있으며 섬멸적 보복타격의 온갖 강력한 수단이 우리의 수중에 있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오판해서도 안 됨.

o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옳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고도로 정밀화, 다종화된 핵무기들과 핵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어나갈 것이며 필요한 시험 준비를 더욱 다그쳐나갈 것임.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5.23, 중통)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를 걸고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2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음.

o 국가 핵무력 강화의 뢰성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울려퍼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국방과학기술 부문 일군들과 군수 로동 계급은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 발사를 또다시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음.

o 그런데 이를 두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또다시 우리를 걸고들며 안달복달하다 못해 그 무슨 《제재》니, 《규탄》이니 하는 고리타분한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 공보문이라는 것을 발표하였음.

o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 행위에 편승한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 공보문을 전면 배격함.

o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의로 가득 차 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서 다른 소리가 나올 리 만무하지만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걸고드는 꼴을 볼 때마다 가소롭기 그지없음.

o 우리는 이미 미 태평양군 사령부가 둥지를 틀고 있는 하와이와 미국 알라스카를 포함한 태평양 작전지대 전반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실제적으로 과시하였으며 침략의 본거지인 미국 본토를 요정[25]낼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갖추었음.

o 미국과 추종세력이 우리의 핵무력 강화조치를 걸고 들면 들수록 우리의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핵무력의 다양화, 고도화를 더욱 다그치게 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임.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5.24, 중통)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라진-울라지보스또크 국제 관광선 《만경봉》호의 운항을 걸고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23일 조선 중앙 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음.

o 조로 두 나라 사이의 합의에 따라 《만경봉》호가 라진-울라지보스또크 국제 관광선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됨으로써 두 나라 사이의 해상 교통운수를 비롯한 경제 분야에서의 협조와 관광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였음.

o 이것은 조로 두 나라사이의 경제적 련계를 확대하고 인도주의적 교류와 래왕을 통하여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정상적인 쌍무협력 사업임.

o 그러나 반공화국 제재 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 있는 미국은 추종세력들을 동원하여 주권국가들 사이의 정상적인 경제협조 사업인 《만경봉》호 운항 문제까지 걸고들면서 조로 경제협조를 차단하고 우리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봉쇄하여 질식시켜보려 하고 있음.

o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은 우리뿐 아니라 로씨야 측의 합법적인 리익도 침해하는 횡포 무도한 전횡으로서 로씨야 측의 응당한 반발과 배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25) 요정 : 『북한어』 결판을 내어 끝마침.

o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만경봉》호 운항을 비롯한 조로 경제협조는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공동의 리익에 맞게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게 될 것임.

北, 미국인 '김학송' 5월 6일 억류 보도

▌개 요

o 北, 미국인 '김학송(평양 과학기술대학 운영 관계자)'을 '반공화국 적대행위' 혐의로 5월 6일 억류(5.7, 중통)

▌주요 내용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에서는 평양 과학기술대학 운영 관계자로 사업하던 미국 공민 김학송을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혐의로 공화국법에 따라 6일 억류하였음.

o 현재 해당 기관에서 김학송의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최고인민회의 외교위」, 美 국회 하원에 항의서한

▌개 요

o '對北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 채택 관련 美 국회 하원 앞으로 항의 서한을 보내 "對北 적대시 법안들을 만들어 낼수록 핵 억제력 강화속도는 빨라지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이성적으로 행동하라"고 촉구(5.12, 중통·중방)

▌주요 내용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는 2017년 5월 4일 미합중국 국회 하원이 《북조선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HR 1644호)을 채택한 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 배격하면서 이 항의서한을 보냄.

o 상기 《법》의 채택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자주권과 공화국 공민들의 생존권을 엄중히 침해하고 주권평등과 내정 불간섭과 같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제반 원칙들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가장 극악한 반인륜적인 행위임.

o 미합중국 국회 하원이 상기 《법》을 채택한 것은 수십 년간의 조미 적대관계의 근원과 조선반도 핵문제의 본질에 대한 미국 정치인들의 무지로부터 나온 또 하나의 반공화국 적대시정책의 산물임.

o 미합중국 국회 하원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 조선반도 핵문제의 해결을 바란다면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조미 적대관계 청산과 관련한 법안 수립과 같은 문제나 연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임.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부정할 수 없음.

o 미합중국 국회 하원은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에 사로잡혀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오판하고 남의 나라 일에 제 나라 《법》으로 간참하고[26] 압박하는 길로 나가는 경우 그 결과가 어떠한 비참한 후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그려볼 줄 알아야 할 것임.

o 미합중국 국회 하원이 대조선 적대시 법안들을 만들어 낼수록 이에 대처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핵 억제력 강화속도는 상상할 수 없이 빨라지게 될 것임.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미국의 금후 립장과 행동을 주시하면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대처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들을 중단 없이 취해나갈 것임.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는 미합중국 국회 하원이 마땅히 현 사태의 본질을 바로 보고 조선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리성적으로 행동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히는 바임.

26) 간참하다 : 『북한어』 '참견하다'

「駐 유엔 北 상임대표부」 공보문

▌개 요

o "미국이 남조선 당국과 함께 최고 수뇌부를 해치려고 군사적 모험에 매여 달리다 못해 테러음모까지 꾸몄다"며 "유엔과 유엔 성원국들은 범죄자 처벌 등 우리식의 反테러 타격전을 지원하는데 적극 호응해 나오라"고 주장(5.12, 중통)

o 유엔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북제재 이행 강화를 촉구한 것에 대해 '광란적인 적대시 책동'이라며 "유엔은 제재 이행을 강요하기 전에 우리(北)가 요구하는 연단에서 그 적법성 여부가 해명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5.13, 중통)

▌「駐 유엔 北 상임대표부」 공보문(5.12, 중통)

o 유엔 주재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가 최근 미 중앙정보국과 남조선 괴뢰 국정원이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상대로 국가테로를 감행할 목적 밑에 침투시켰던 극악무도한 테로범죄 일당이 적발된 것과 관련하여 11일 공보문을 발표하였음.

o 공보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음.

o 미국이 지난 2개월간 조선반도에 핵 항공모함을 포함한 각종 전략자산들을 끌어들여 사상 최대 규모의 반공화국 핵전쟁 연습을 벌려놓은 것과 동시에 우리의 《수뇌부 제거》를 노린 《참수 작전》수행을 위해 수많은 특수전 무력까지 동원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o 미국이 남조선 괴뢰 당국과 함께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감히 해치려고 극악한 군사적 모험에 매여달리다 못해 비렬한 테로 음모까지 꾸민 것은 미국이야말로 국제테로의 왕초이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파괴하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론박할 여지없이 명명백백히 실증해주고 있음.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담아 이번 특대형 국가 테로 음모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이 행성의 어느 구석, 어느 그늘 밑에서 서식하든 억센 집게발로 마지막 한 놈까지 잡아내여 정의의 무쇠주먹으로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릴 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였음.

o 이번에 적발 분쇄된 특대형 범죄는 단순히 우리 공화국만이 아닌 인류의 정의와 량심에 대한 테로이고 미래에 대한 칼부림이며 따라서 모든 나라들은 공동의 투쟁으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념원을 무참히 짓밟는 반인륜적인 갖은 모략과 전횡, 악행을 영원히 종식시켜야 할 것임.

o 유엔 세계 반테로 전략의 서문에는 누구에 의하여, 어디에서, 어떤 목적에 의하여 일어나든지 모든 형태의 테로 행위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하고 있음.

o 또한 모든 형태의 테로 행위와 방법, 실행이 인권과 기본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서 국제공동체가 테로 방지 및 투쟁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데 대해 지적되여 있음.

o 유엔헌장 제1조 1항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을 방지 및 제거하며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의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집단적 조치를 취할 데 대하여 밝혀져 있음.

o 유엔 반테로 위원회를 비롯한 유엔과 유엔성원국들은 범죄자처벌 등 우리 식의 정의의 반테로 타격전을 지원하는데 적극 호응해 나와야 할 것임.

o 공보문은 유엔 성원국들의 리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17년 5월 5일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 대변인 성명을 부록으로 첨부하였음.

o 유엔주재 우리나라 상임대표부는 공보문을 국가보위성 대변인 성명과 함께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 공식 문건으로 배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유엔 반테로 위원회에도 발송하였음.

▌「駐 유엔 北 상임대표부」 공보문(5.13, 중통)

o 유엔 주재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가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시 책동과 그에 편승한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 대조선 제재위원회의 월권행위가 극도에 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11일 우리 공화국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는 공보문을 발표하였음.

o 공보문은 최근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 대조선 제재위원회를 내세워 유엔 본부에서 전례 없는 지역 그루빠별 비공개 통보모임이라는 것들을 련이어 벌려놓으면서 반공화국 제재열의를 고취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 있는데 대해 까밝히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음.

o 미국은 《제재결의》 리행에 많은 나라들이 나서지 않고 있다고 악청을 돋구면서 《제재결의》를 리행하지 않거나 관심을 돌리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제재로 처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미국이 고안해낸 반공화국 《제재결의》의 비법성과 부당성을 증명해주고 있음.

o 《제재결의》가 정의에 기초하고 법률적 근거가 명백하며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구걸이나 협박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리행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리치임.

o 더우기 대조선 제재위원회가 주민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쪼아박은 《제재결의》 내용마저 뒤집어엎고 확대해석하여 나라들 사이의 정상적인 무역거래와 식당 경영 같은 것까지 《위법행위》로 걸고드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로밖에 볼 수 없음.

o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가 저들이 조작해낸 《제재결의》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여러 차례 제기한 《제재결의》의 법률적 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할 데 대한 우리의 요구에 응해 나오지 못할 리유가 없을 것임.

o 공화국 정부는 제재라는 미명 하에 감행되고 있는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 대조선 제재위원회의 광란적인 적대시 책동을 초보적인 국제적 법규나 무역거래 상식마저 무시하고 우리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생존권마저 짓밟고 암흑사회로 되돌리려는 반인륜적인 특대형 범죄행위로 락인하며 전면 배격함.

「국제문제연구원 법률연구소」 소장 담화

▌개 요

o 美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 거론 '파국적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문제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기여하는 길을 택하라"고 주장(5.15, 중통)

▌주요 내용

o 최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조선 정책을 내들고 우리에 대한 새로운 제재소동에 기승을 부리고 있음.

o 지난 5월 4일 미 국회 하원이 우리나라에 대한 단독제재 범위를 최대한 넓히고 우리나라와 경제거래를 가지거나 우리 로동자들을 채용하는 다른 나라 기업들과 단체, 개인들을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조선 제재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그 대표적 실례임.

o 한편 미국은 유엔 안보리사회 《제재결의》를 전면에 내들고 다른 나라들과 해당 나라의 기업들과 개인들이 우리나라와 정상적인 국가관계와 경제무역 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강박하고 위협하는 등 우리에 대한 전례 없는 제재압박과 외교적 봉쇄를 기도하고 있음.

o 미국이 벌리는 대조선 제재 압박책동은 《핵 전파 방지》의 미명 하에 우리 경제와 인민생활을 완전히 파탄시켜보려는 가장 악랄한 목적을 추구한 것으로서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의 제반 원칙들을 위반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임.

o 우리는 이미 제재가 우리에게 통할 수 없는 리유에 대하여, 우리에 대한 제재는 곧 미국의 패배이라는데 대하여 루차 강조하였음.

o 미국은 우리의 인내력을 더는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함.

o 최후 결산의 순간을 기다려온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 핵 보검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 앞에서 어떤 무서운 위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음.

o 부언하건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핵 억제력과 선제타격 능력은 우리를 적대시하고 고립 압살하려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서 그 어떤 정치적 흥정물이나 경제적 거래물이 아니며 제재압박의 고삐를 최대로 조인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님.

o 트럼프 행정부가 진실로 선임 행정부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고 새로운 대조선 정책을 수립하고 싶다면 조미 사이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적대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문제 등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나아가서 세계적인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하는 길을 택해야 할 것임.

o 그러나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도 현실감각을 찾지 못하고 단독제재의 《효과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 지금으로부터 1년 전 《2016년 대 북조선 제재 및 정책 강화법》을 채택하고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 공세를 가했던 오바마 행정부가 그 대가로 과연 무엇을 얻었던가를 다시 한 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음.

o 바로 그 1년 동안에 우리는 전략잠수함 탄도탄, 대출력 고체로케트 발동기,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케트 《화성-10》,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등 최첨단 수준의 주체적인 핵 공격수단, 핵무기들을 개발하여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세계적 수준에 당당히 올려 세우는 쾌거를 단행하였음.

o 우리 공화국이 전대미문의 극악한 제재 속에서도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동방의 핵 강국, 아시아의 로케트 맹주국으로 우뚝 솟아오른 지금에 와서도 제재로 그 무슨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허황한 망상은 없음.

o 조미대결의 력사는 비대칭 전쟁의 력사였음. 현대적인 무기를 자랑하는 미국과의 대결에서 우리는 언제나 정의의 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만을 거듭하여 왔음. 하물며 오늘 핵 대 핵의 대결, 의지의 대결에서 승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음.

o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도 상대를 분별 못한 채 제재에 계속 광기를 부린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파국적 후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임.

「아시아태평양 평화위」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개 요

o '북극성 2형' 시험발사에 대한 韓美의 대응(경제·외교적 압박 지속, 만반의 대비태세 유지) 관련 비난 및 위협(5.24, 중통)

▌주요 내용

o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대변인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를 걸고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24일 조선 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음.

o 우리가 미 태평양군 사령부가 둥지를 틀고 있는 하와이와 미국 알라스카를 사정권안에 두고 있는 신형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케트 시험발사에서 성공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성공한 것은 국가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다발적, 련발적으로 울려 퍼진 승리의 장쾌한 뢰성임.

o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백점, 만점의 대성공을 이룩한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에 넋살이 나가 히스테리적인 발작을 일으키고 있음.

o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대결 《합창》에 남조선 당국도 끼여들어 청승맞은 가락을 보태고 있음.

o 우리의 전략 탄도탄 시험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김관진, 리병호, 한민구, 윤병세, 홍용표와 같은 박근혜 찌꺼기들을 불러들여 안전보장 회의라는 것을 열고 《만반의 대비태세 유지》니, 그 무슨 《규탄 성명》발표니 하며 야단법석 하였으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 정당 나부랭이들도 《정부가 단호한 대응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저마끔[27] 왜가리청[28]을 돋구고 있음.

o 가관은 저들이 하는 미싸일 발사는 평화와 안정에 대한 《기여》이고 우리가 단행한 전략탄도탄 발사는 《도발》이라고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 것임.

o 우리가 《북극성-2》형을 비롯한 주체탄들을 다량 계렬생산하여 전략 군부대들에 실전 배비 하는 것은 위대한 병진로선에 따라 국가 핵무력을 강화하는 길에서 거치게 되는 정상적인 국가 방위사업임.

o 더우기 미국의 선제 타격 기도가 날로 로골화되고 핵전쟁 광기가 우심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일임.

27) 저마끔 :『북한어』'저마다'
28) 왜가리청 :『북한어』왜가리(왜가릿과의 새)처럼 떠드는 목소리.

o 최근 미국은 《정권 전복도 안하고 침략도 안하며 체제도 보장할 것》이라느니, 《믿어 달라.》느니 뭐니 하며 겉발린 《대화》 타령을 늘어놓고 있음.

o 하지만 이 시각에도 조선 동해상에서는 《칼빈손》호 핵 항공모함 타격단이 괴뢰 호전광들과 함께 북침을 노린 련합 해상훈련을 벌려놓고 있으며 일본 요꼬스까 기지에 있던 《로날드 레간》호 핵 항공모함 타격단도 사상 최대 규모의 핵 항공모함 타격단들의 합동 훈련을 위해 조선반도 해역으로 기동하고 있음.

o 이것은 미국이 《대화》니 뭐니 하며 양 울음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의 핵 보복 타격 능력을 거세하기 위한 유치한 기만극에 불과하며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승냥이 야망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o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정의의 핵 보검을 틀어쥔 선군 조선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멸적의 기상을 똑바로 알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함.

o 특히 남조선 당국은 외세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력 강화 조치를 걸고드는 것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어떻게 지켜지고 북남관계를 담보하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놀아대는 무지스러운 추태라는 것을 깨닫고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는 것이 좋을 것임.

o 그 어떤 위협도 감언리설도 우리에게 통하지 않으며 우리의 국가 핵무력 강화의 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음.

o 우리는 자기의 존엄과 제도,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고 있으며 년대와 세기를 이어온 미제와의 대결을 끝장내고 최후승리의 통장훈을 부를 날도 환히 내다보고 있음.

o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에 대한 압살야망에 매달리는 한 우리는 침략자, 도발자들이 미처 정신 차릴 새 없이 핵무력의 다양화, 고도화를 더욱 다그쳐 나갈 것임.

o 온 세계는 우리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에게 전률과 공포, 죽음을 들씌울 강위력한 우리 식의 주체무기, 핵공격 수단들을 어떻게 훌륭히, 더 많이 만들어 내는가를 경탄 속에 보게 될 것임.

o 최후의 승리는 정의의 핵 보검을 틀어쥔 우리에게 있음.

「외무성」 부상 박명국 담화

▌개 요

o 미국과 일부 동맹국의 북한 탄도 미사일 '화성 12형'·'북극성 2'형 시험발사 성공 추가제재 논의·규탄 성명 발표에 대해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 강조(5.27, 중통)

▌주요 내용

o 우리 공화국이 터쳐올린 핵무력 강화의 다발적이며 련발적인 뢰성에 질겁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에 대한 그 무슨 《추가제재》를 운운하며 우리를 어째보려고 미쳐 날뛰고 있음.

- 그러나 정세격화를 바라지 않는 많은 나라들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자 미국은 반공화국 《규탄》 분위기를 세워 저들의 목적을 실현해보려고 책동하고 있음.

o 최근 미국의 동맹국들이라는 일부 나라들이 각기 그 무슨 《규탄》 성명이니 뭐니 하는 것을 발표하는 놀음을 벌린 것은 미국의 이러한 각본에 따른 것임.

- 정의와 원칙을 떠나서 미국의 요구라면 무턱대고 따르는 이러한 나라들에 대해 우리는 론의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않음.

o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동맹국도 아닌 몇몇 나라들이 멋모르고 이러한 《규탄》놀음에 말려들고 있는 것임.

o 우리의 로케트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는 것을 리유로 내드는 것은 그 《결의》 자체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는 이중 기준의 산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무지의 표현이거나 고의적인 외면임.

-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조선 《제재결의》의 법률적 근거를 밝힐 것을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에 요구하고 그를 위한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할 것을 유엔사무국에 제기하였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도 받지 못하고 있음.

- 더우기 문제로 되는 것은 그 몇 개 나라들이 우리의 로케트 발사에 대해 《규탄》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운운하고 있는데 미국이 핵 항공모함 타격단들과 전략 핵잠수함들을 조선반도 수역에 끌어다놓고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는데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임.

o 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에 맞서 자위적 핵 억제력을 억척같이 다져나가고 있음.

o 긴장 격화의 근원은 외면하고 그 때문에 취해진 우리의 불가피한 자위적 선택에 대하여서만 비난하는 것은 국제적인 법규범들에 대한 존중이나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지향으로부터 출발한 립장 표명이라기보다 뒤에서 부추기는 자들에게 아부하는 《점수 따기》에 불과함.

o 이런 나라들이 진정으로 국제평화와 안정을 지키는데 관심이 있다면 미국의 입김에 따라 돛을 달 것이 아니라 먼저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임.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문제 대책위」 대변인 담화

▌개 요

o '유엔 고문 반대위, 위안부 문제에 대한 韓日합의 재검토' 권고 보고서에 대한 日 정부의 반론문서 제출을 규탄하며 "법적,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5.27, 중통·중방·평방)

▌주요 내용

o 지난 5월 상순 유엔 고문 반대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와 관련한 일본-남조선 사이의 《합의》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음.

- 보고서에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의 성노예 제도의 희생자라고 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한 2015년 말의 일본-남조선 《합의》에 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불충분하다고 비판하였음.

o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나서며 그 무슨 《반론문서》라는 것을 제출한 것임.

- 일본 정부는 유엔 고문 반대위원회의 보고서가 일본군 《위안부》들을 성노예라고 규정한데 대해 《사실과 어긋나며 부적절》하다고 항의하면서 일본-남조선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앙탈을 부리였음.

o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련행 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는 전체 성노예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일본 정부의 《반론문서》 제출 놀음을 단호히 규탄함.

o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관권과 군권을 동원하여 녀성들을 강제로 끌어다 본인의 의사를 짓밟고 노예적인 성봉사를 강요했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임.

- 더우기 《최종적》이요, 《불가역적》이요 하는 그 《합의》라는 것도 일본이 남조선 당국자들을 얼려 얼렁뚱땅 만들어낸 협잡 합의, 피해자들의 요구와 립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얼치기 합의로서 남조선 인민들은 물론 각 국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 국제사회의 반대와 배격을 받고 있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세계여론을 공정하게 반영한 국제기구의 보고서까지 비난하며 저들의 과거 범죄행위를 변호하고 미화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혹심한 모독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전임.

o 일본 당국은 과거 범죄의 책임 회피야말로 부적절한 행위, 자멸행위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이제라도 성근한 자세를 가지고 과거범죄에 대한 법적,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데 나서야 할 것임.

주요인물 동정

김정은(당 위원장)

(미상) 청천강-평남 관개 자연흐름식 물길 건설을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5.1, 중방)

(미상) '장재도 방어대'와 '무도 영웅 방어대'(서남전선 수역 최남단에 위치) 시찰(5.5, 중통·중방)

(미상)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5.6, 중방)

(미상) 여명거리 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5.6, 중방)

05.05. 故 최동륜(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 인민과학자) 빈소에 조화 전달(5.7, 중통·중방)

(미상) '낙랑 영예군인 수지 일용품공장' 시찰(5.10, 중통·중방)

(미상) 허룡제(女, 황해북도 중화군 거주)에게 '100세 생일상' 전달(5.11, 중통·중방)

(미상) '인민무력성 기공구, 마감 건재품 및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장' 시찰(5.13, 중통·중방·평방)

(미상) 조선인민군 건설부문 열성자들과 기념사진 촬영(5.13, 중통·중방·평방)

(미상) 6.18 건설돌격대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5.13, 중방·평방)

(미상) 시리아·적도기니·콩고 대통령의 '김일성 생일(4.15)' 축전에 대한 답전 발송(5.14, 중통)

05.14.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 미사일 '화성 12형' 시험발사 참관(5.15, 중방·중통)

(미상) '화성 12형' 탄도 미사일 개발자들과 함께 당 중앙위 청사에서 기념사진 촬영(5.20, 중통·중방)

(미상) 금수산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 잘 꾸리는데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5.21, 중방)

05.21. '북극성 2형' 시험발사 참관(5.22, 중통·중방)

(미상) '신형 반항공 요격유도 무기체계' 시험사격 참관(5.28, 중통·중방)

05.28. 故 최성천(국가과학원 녹색건축연구소 연구사, 인민 과학자) 빈소에 조화 전달(5.29, 중통·중방)

(미상) '정밀조종 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 참관(5.30, 중방·중통)

(미상)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5.31, 중방)

강영수(도시경영상)

05.10. 제12차 건축 미학 토론회(청년중앙회관) 참석(5.10, 중통)

강하국(보건상)

05.02. 제5차 보건부문 체육경기대회(4.20, 개막) 폐막식(평양 체육관) 참석(5.2, 중통)

05.04.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장애자권리 담당 특별보고자(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귈라르)와 담화(5.4, 중통)

05.20. 김일성 저작(인민보건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발표('47.5.21) 70주년 기념보고회(청년중앙회관) 참석(5.20, 중방·중통)

05.20. '세계 보건기구(WHO) 총회 제70차 회의(스위스 제네바)' 참가 위해 평양 출발(5.20, 중통·중방)

(미상) 부탄·스리랑카·몰디브·동티모르 보건상들과 보건 발전을 위한 쌍무협조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문제와 관련한 의견 교환(5.24, 중통)

05.24. 세계 보건기구총회 제70차 회의 전원회의(스위스 제네바)에서 '지속개발 의정에 제시된 보건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보건기구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연설(5.27, 중통)

(미상) 신임 세계보건기구 총국장·부총국장 및 쿠바·앙골라 등 보건상들과 '보건분야 협조 확대발전 문제 토의'(5.29, 중통)

05.30. 세계 보건기구(WHO) 총회 제70차 회의(스위스 제네바) 참가 후 귀환(5.30, 중통·중방)

고인호(내각 부총리, 농업상)

05.08. 수의방역소 창립('47.5.9) 70주년 기념 보고회(인민대학습당) 참석(5.9, 중방)

권성호(국가건설 감독상)

05.10. 제12차 건축 미학 토론회(청년중앙회관) 참석(5.10, 중통)

김경준(국토환경 보호상)

05.10. 제12차 건축 미학 토론회(청년중앙회관) 참석(5.10, 중통)

김광혁(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미상) 김정은의 '신형 반항공 요격유도 무기체계' 시험사격 참관 시 동행(5.28, 중통·중방)

김기남(당 중앙위 부위원장)

(미상) 황해제철 연합기업소·남흥 청년화학 연합기업소·국가과학원 등을 방문하고 노동계급과 농업 근로자들·지식인들을 축하(5.1, 중통)

05.31. 평양신문 창간('57.6.1) 60주년 기념보고회 참석(5.31, 중통)

김덕훈(내각 부총리)

(미상) 김일성의 나남 탄광기계 연합기업소 공개 활동(1957.5.10) 60주년 기념 보고회 참석(5.11, 중방)

김락겸(전략군 사령관)

05.14. 김정은의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 미사일 '화성 12형' 시험발사 참관 시 영접(5.15, 중방·중통)

05.21. 김정은의 '북극성 2형' 시험발사 참관 시 동행(5.22,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의 '정밀조종 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 참관 시 동행(5.30, 중방·중통)

김문철(조선 장애자 보호연맹 위원장)

05.02. 北 장애자 보호연맹 중앙委 기능공학교 제6기 개학식 참석(5.2, 중통·중방)

05.17. 평양 장애자 교류단, '영국 공연' 위해 5월 17일 평양 출발(5.17, 중통·중방)

김성일(함경남도 당 위원장)

05.12. 함흥 제사공장 창립('57.5.13) 60주년 기념보고회 참석(5.13, 중방)

05.18. 단천 발전소 건설 착공식 참석(5.19, 중통·중방)

김승두(교육위원회 위원장 겸 보통교육상, 北-쿠바 단결위원장)

05.09. 김일성종합대학 3호 교사(룡남산 지구) 개교 모임 참석(5.9, 중통·중방)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05.08. 시리아 체육총동맹 대표단과 담화 및 '김정은 선물' 인수(5.8, 중통·중방)

05.08.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에마뉘엘 마크롱)에게 축전(5.9, 중통·중방)

05.14. 캄보디아 국왕(노로돔 시하모니)에게 64세 생일 축전(5.14, 중통·중방)

05.17. 駐北 캄보디아 대사(씬 분트언) 신임장 접수(5.17, 중통·중방)

05.19. 카메룬 창건 45주년에 즈음하여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5.19, 중통·중방)

05.21. 재임 이란 대통령에게 축전(5.21, 중통·중방)

05.22. 이탈리아 종합투자그룹 이사장(장카를로 엘리아 발로리)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5.22, 중통·중방)

05.24. 에리트레아 독립 26주년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5.24, 중통·중방)

05.25. 요르단 독립 71주년에 즈음하여 同國 국왕(압둘라 2세)에게 축전(5.25, 중통·평방)

05.28. 아제르바이잔 국경절에 즈음하여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5.28, 중통)

05.28. 에티오피아 국경절에 즈음하여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5.28, 중통)

김영재(대외경제상)

05.13.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 정상포럼'(5.14~15, 중국)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방문(5.13, 중통)

05.22. '제20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 전람회' 개막식(3대혁명 전시관) 참석(5.22, 중통·중방)

김일국(체육상)

05.02. 귀환(5.2) 北 선수들(2017년 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 참가) 평양역 마중(5.2, 중통·중방)

05.03. 2017년 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위한 연회(옥류관) 참석(5.3, 중통·중방)

05.07. 시리아 체육 총동맹 대표단과 담화(5.7, 중통)

05.25. '2017년 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감독들을 위한 축하모임(청춘거리 역기 경기관) 참석(5.25, 중통·중방)

김정관(인민무력성 부상)

(미상) 김정은의 '인민무력성 기공구, 마감 건재품 및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장' 시찰 시 동행(5.13, 중통·중방·평방)

(미상) 김정은의 조선인민군 건설부문 열성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시 동행(5.13, 중통·중방·평방)

김정식(당 중앙위 부부장)

05.14. 김정은의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 미사일 '화성 12형' 시험발사 참관 시 영접(5.15, 중방·중통)

(미상) '화성 12형' 탄도 미사일 개발자들과 함께 당 중앙위 청사에서 기념사진 촬영(5.20, 중통·중방)

05.21. 김정은의 '북극성 2형' 시험발사 참관 시 동행(5.22,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의 '신형 반항공 요격유도 무기체계' 시험사격 참관 시 동행(5.28,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의 '정밀조종 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 참관 시 동행(5.30, 중방·중통)

김재룡(자강도당 위원장)

(미상) 평성·강계 가방공장 준공식 참석(5.16, 중방)

김평해(당 중앙위 부위원장)

05.05. 대외건설지도국 창립('77.5.6) 40주년 기념 보고회 참석(5.5, 중통·중방)

동정호(내각 부총리, 건설건재 공업상)

05.10. 제12차 건축 미학 토론회(청년중앙회관) 참석(5.10, 중통)

05.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29] 제1721호 발표에 의해 내각 부총리로 임명(5.14, 중통·중방)

로두철(내각 부총리, 국가계획위원장)

05.14. '탄소하나 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대상건설 착공식(순천화학 연합기업소) 참석(5.14, 중통)

05.18. 단천 발전소 건설 착공식 참석(5.19, 중통·중방)

리길성(외무성 부상)

05.03. 김일성 생일 105주년을 기념해 駐北 몽골 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 진행(5.3, 중통)

05.17.. '브. 바트체체그'(몽골 대외관계성 부상)와 회담(평양) 진행 및 '친선 협조 관계 강화' 등 의견교환(5.17, 중통)

리룡남(내각 부총리)

05.05. 대외건설지도국 창립('77.5.6) 40주년 기념 보고회 참석(5.5, 중통·중방)

05.22. '제20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 전람회' 개막식(3대혁명 전시관) 참석(5.22, 중통·중방)

리만건(당 중앙위 부위원장)

05.18. '화성 12형' 탄도 미사일 개발자들 평양 도착 시 영접(5.19, 중통·중방)

(미상) '화성 12형' 탄도 미사일 개발자들과 함께 당 중앙위 청사에서 기념사진 촬영(5.20, 중통·중방)

05.19. 당 중앙위 주최 '화성 12형' 탄도 미사일 개발자들을 위한 연회(목란관·인민문화궁전) 참석(5.20, 중통)

리병철(당 중앙위 제1부부장)

05.14. 김정은의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 미사일 '화성 12형' 시험발사 참관 시 영접(5.15, 중방·중통)

(미상) '화성 12형' 탄도 미사일 개발자들과 함께 당 중앙위 청사에서 기념사진 촬영(5.20, 중통·중방)

05.19. 당 중앙위 주최 '화성 12형' 탄도 미사일 개발자들을 위한 연회(목란관·인민문화궁전) 참석(5.20, 중통)

---

29) 정령 : 『북한어』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의 최고 주권기관인 조선 민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하고 공포하는 법 문건

05.21. 김정은의 '북극성 2형' 시험발사 참관 시 동행(5.22,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의 '신형 반항공 요격유도 무기체계' 시험사격 참관 시 동행(5.28,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의 '정밀조종 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 참관 시 동행(5.30, 중방·중통)

리상원(양강도 당 위원장)

05.18. 단천 발전소 건설 착공식 참석(5.19, 중통·중방)

리성국(제4군단장)

(미상) '장재도 방어대'와 '무도 영웅 방어대'(서남전선 수역 최남단에 위치) 시찰 시 동행(5.5, 중통·중방)

리수용(당 중앙위 부위원장)

05.16. 스웨덴 공산당 대표단(단장: 로베르트 마티아손 위원장)과 담화(5.16, 중통·중방)

05.18. 몽골 대외관계성 대표단(단장: 브. 바뜨체체그 부상)과 담화(5.18, 중통·중방)

05.21. 이탈리아 종합투자그룹 이사장(쟝까를로 엘리아 발로리)과 담화(5.21, 중통·중방)

리영길(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

(미상) 김정은의 '신형 반항공 요격유도 무기체계' 시험사격 참관 시 동행(5.28, 중통·중방)

리영철(군단 정치위원)

(미상) '장재도 방어대'와 '무도 영웅 방어대'(서남전선 수역 최남단에 위치) 시찰 시 동행(5.5, 중통·중방)

리용호(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 외무상)

04.27. 모로코 왕국 신임 외무 및 협조상 '나쎄르 부리타'에게 축전(5.3, 중통)

05.03. 폴란드 국경절 즈음 同國 외무상에게 축전(5.3, 중통)

05.06. 신임 불가리아 외무상에게 축전(5.7, 중통·중방)

05.18. 몽골 대외관계성 대표단과 담화(5.18, 중통)

05.17. 필리핀 신임 외무상(알란 뻬떼르 까예따노)에게 축전(5.24, 중통)

05.24. 영국 맨체스터 폭탄테러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관련 同國 외무상에게 위문 전문(5.24, 중통·평방)

05.28. 아제르바이잔 국경절에 즈음하여 同國 외무상에게 축전(5.28, 중통)

05.30. 駐北 캄보디아 신임 특명 전권대사(신 분트언)와 담화(5.30, 중통)

05.30. 알제리 신임 외무상(압둘카디르 무사힐)에게 축전(5.30, 중통)

리주오(내각 부총리)

(미상) 김정은의 '낙랑 영예군인 수지 일용품공장' 시찰 시 동행(5.10, 중통·중방)

림경만(나선시 당 위원회 위원장)

05.09. 나선시 선봉지구 만복 고급중학교 준공식 참석(5.10, 중방)

마원춘(국무위 설계국장)

05.10. 제12차 건축 미학 토론회(청년중앙회관) 참석(5.10, 중통)

박명국(외무성 부상)

05.26. 미국과 동맹국 일부 국가들의 '北, 탄도미사일《화성-12》·《북극성-2》형 시험 발사 성공' 추가제재 논의·규탄 성명 발표에 대해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 강조(5.27, 중통)

박봉주(내각 총리)

(미상) 황해제철 연합기업소·남흥 청년화학 연합기업소·국가과학원 등을 방문하고 노동계급과 농업 근로자들·지식인들을 축하(5.1, 중통)

(미상) 평양 자동화 기구공장 현지 요해 및 일꾼-노동계급 투쟁성과 격려(5.8,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의 '낙랑 영예군인 수지 일용품공장' 시찰 시 동행(5.10, 중통·중방)

05.06. 신임 불가리아 수상에게 축전(5.7, 중통·중방)

05.14. '탄소하나 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대상건설 착공식(순천화학 연합기업소) 참석(5.14, 중통)

05.18. 단천 발전소 건설 착공식 참석(5.19, 중통·중방)

(미상) 함경남도 함흥시 중요 공장·기업소(흥남비료 연합기업소· 2.8비날론 연합기업소·용성기계 연합기업소 등) 방문(5.22, 중통·중방)

05.24. 영국 맨체스터 폭탄테러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관련 同國 총리에게 위문 전문(5.24, 중통·평방)

(미상) 황해남도 연안군 농사실태와 순천시멘트 연합기업소·연백 제염소 현지 점검(5.27, 중통·중방)

(미상) 평안남도 숙천군과 문덕군 농사실태 현지 요해 및 '농업 근로자들 고무 및 과학적 영농방법' 강조(6.1, 중통)

05.30. 알제리 신임 수상(압델마지드 테부네)에게 축전(5.30, 중통)

박영식(인민무력상)

05.08. 주북 무관단이 마련한 5월 8일 '김정은 당 위원장' 추대('16.5.9) 1주년 즈음 꽃바구니·축하 편지를 김정은에게 대신 전달(5.8, 중통)

(미상) 김정은의 '인민무력성 기공구, 마감 건재품 및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장' 시찰 시 동행(5.13, 중통·중방·평방)

(미상) 김정은의 조선인민군 건설부문 열성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시 동행(5.13, 중통·중방·평방)

05.19. 당 중앙위 주최 '화성 12형' 탄도 미사일 개발자들을 위한 연회(목란관·인민문화궁전) 참석(5.20, 중통)

박정천(포병국장)

(미상) '장재도 방어대'와 '무도 영웅 방어대'(서남전선 수역 최남단에 위치) 시찰 시 동행(5.5, 중통·중방)

박태성(평안남도당 위원장)

05.14. '탄소하나 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대상건설 착공식(순천화학 연합기업소) 참석(5.14, 중통)

(미상) 평성·강계 가방공장 준공식 참석(5.16, 중방)

손광호(체육성 부상)

05.25 '국제 역도연맹 총회'(태국)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 출발(5.25, 중통·중방)

서홍찬(인민무력성 제1부상)

(미상) '장재도 방어대'와 '무도 영웅 방어대'(서남전선 수역 최남단에 위치) 시찰 시 동행(5.5, 중통·중방)

신홍철(외무성 부상)

05.05. 일부 아랍 국가들 순방(*알제리 등) 후 귀환(5.5, 중통·중방)

안정수(당 중앙위 부장)

(미상) 김정은의 '낙랑 영예군인 수지 일용품공장' 시찰 시 동행(5.10, 중통·중방)

05.09. 평양 수예연구소 창립 70주년 기념보고회 참석(5.10, 중방)

오금철(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미상) 김정은의 '신형 반항공 요격유도 무기체계' 시험사격 참관 시 동행(5.28, 중통·중방)

오수용(당 중앙위 부위원장)

05.09. 제17차 '5.21 건축축전' 개막식('자강력으로 비약하는 주체건축', 과학기술전당) 참석(5.9, 중통·평방)

05.12. 제17차 '5.21 건축축전' 폐막식(과학기술전당) 참석(5.12, 중통·중방)

05.14. '탄소하나 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대상건설 착공식(순천화학 연합기업소) 참석(5.14, 중통)

05.18. 단천 발전소 건설 착공식 참석(5.19, 중통·중방)

오일정(인민군 상장)

(미상) '장재도 방어대'와 '무도 영웅 방어대'(서남전선 수역 최남단에 위치) 시찰 시 동행(5.5, 중통·중방)

유진(당 중앙위 부부장)

05.21. 김정은의 '북극성 2형' 시험발사 참관 시 동행(5.22, 중통·중방)

장길룡(화학 공업상)

05.14. '탄소하나 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대상건설 착공식(순천화학 연합기업소) 참석(5.14, 중통)

장창하(제2자연과학원장)

05.14. 김정은의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 미사일 '화성 12형' 시험발사 참관 시 영접(5.15, 중방·중통)

(미상) '화성 12형' 탄도 미사일 개발자들과 함께 당 중앙위 청사에서 기념사진 촬영(5.20, 중통·중방)

05.21. 김정은의 '북극성 2형' 시험발사 참관 시 영접(5.22,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의 '신형 반항공 요격유도 무기체계' 시험사격 참관 시 동행(5.28,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의 '정밀조종 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 참관 시 동행(5.30, 중방·중통)

장혁(철도상)

05.31. '철도협조기구 제45차 장관회의'(러시아)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 출발(5.31, 중통·중방)

전광호(내각 부총리)

05.01. 5·1절 127주년 기념 중앙 보고대회(남흥 청년화학 연합기업소) 참석(5.1, 중통·중방)

05.02. 귀환(5.2) 北 선수들(2017년 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 참가) 평양역 마중(5.2, 중통·중방)

05.03. 2017년 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위한 연회(옥류관) 참석(5.3, 중통·중방)

05.20. 김일성 저작(인민보건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발표('47.5.21) 70주년 기념보고회(청년중앙회관) 참석(5.20, 중방·중통)

전승훈(함경북도당 위원회 위원장)

(미상) 김일성의 나남 탄광기계 연합기업소 공개 활동(1957.5.10) 60주년 기념보고회 참석(5.11, 중방)

전용남(청년동맹 중앙위 1비서)

05.11.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 창립(1957.5.12) 60주년 기념 보고회 참석(5.11, 중통·중방)

05.31. 「조선소년단」 창립('46.6.6) 71주년 기념 사진전람회 개막식(청년중앙회관) 참석(5.31, 중통·평방)

전일호(김책공대 자동화연구소장)

05.21. 김정은의 '북극성 2형' 시험발사 참관 시 영접(5.22,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의 '신형 반항공 요격유도 무기체계' 시험사격 참관 시 동행(5.28,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의 '정밀조종 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 참관 시 동행(5.30, 중방·중통)

정승일(당 중앙위 부부장)

05.14. 김정은의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 미사일 '화성 12형' 시험발사 참관 시 영접(5.15, 중방·중통)

(미상) '화성 12형' 탄도 미사일 개발자들과 함께 당 중앙위 청사에서 기념사진 촬영(5.20, 중통·중방)

05.21. 김정은의 '북극성 2형' 시험발사 참관 시 동행(5.22,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의 '신형 반항공 요격유도 무기체계' 시험사격 참관 시 동행(5.28,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의 '정밀조종 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 참관 시 동행(5.30, 중방·중통)

조석호(수도건설위원장)

05.10. 제12차 건축 미학 토론회(청년중앙회관) 참석(5.10, 중통)

조용원(당 중앙위 부부장)

(미상) '장재도 방어대'와 '무도 영웅 방어대'(서남전선 수역 최남단에 위치) 시찰 시 동행(5.5,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의 '낙랑 영예군인 수지 일용품공장' 시찰 시 동행(5.10, 중통·중방)

05.21. 김정은의 '북극성 2형' 시험발사 참관 시 동행(5.22, 중통·중방)

주영길(직총 중앙위원장)

05.01. 쿠바 국가이사회 위원장 '라울 카스트로 루쓰'와 외무상 및 쿠바 근로자 중앙 총서기 접견(5.4, 중통)

05.08. 北「직총」대표단, 쿠바(세계 직업연맹 위원장 이사회 회의 참가)에서 귀환(5.8, 중통·중방)

차희림(평양시 인민위원장)

05.09. 김일성종합대학 3호 교사(룡남산 지구) 개교 모임 참석(5.9, 중통·중방)

최동명(당 중앙위 부장)

05.09. 김일성종합대학 3호 교사(룡남산 지구) 개교 모임 참석(5.9, 중통·중방)

최룡해(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05.11.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 창립(1957.5.12) 60주년 기념 보고회 참석(5.11, 중통·중방)

(미상) 평원군 '원화 협동농장' 방문(5.13, 중통·중방)

05.19. 당 중앙위 주최 '화성 12형' 탄도 미사일 개발자들을 위한 연회(목란관·인민문화궁전) 참석(5.20, 중통)

(미상) 천리마제강 연합기업소 방문 및 '노동계급 투쟁성과 고무, 철강재 생산혁신 대책 강구'(5.26, 중통·중방)

05.31. 「조선소년단」 창립('46.6.6) 71주년 기념 사진전람회 개막식(청년중앙회관) 참석(5.31, 중통·평방)

최영남(인민봉사 총국장)

05.02. 귀환(5.2) 北 선수들(2017년 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 참가) 평양역 마중(5.2, 중통·중방)

최일룡(경공업상)

05.09. 평양 수예연구소 창립 70주년 기념보고회 참석(5.10, 중방)

최태복(당 중앙위 부위원장)

05.02. 제5차 보건부문 체육경기대회(4.20, 개막) 폐막식(평양 체육관) 참석(5.2, 중통)

05.20. 김일성 저작(인민보건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발표('47.5.21) 70주년 기념보고회(청년중앙회관) 참석(5.20, 중방·중통)

최희철(외무성 부상)

05.30. 駐北 이란 특명 전권대사(세예드 모흐센 에마디)와 담화(5.30, 중통)

한대성(駐 리히텐슈타인 北 대사)

05.24. 주재국 군주 후계자(알로이스)에게 신임장 전달(5.28, 중방)

한성렬(외무성 부상)

05.03. 駐北 폴란드 대사관 주최 自國 헌법절 즈음 5월 3일 연회 참석(5.3, 중통)

05.11. 北 외무성 주관, 韓·美 정보당국의 '北 최고수뇌부 대상 국가테러 감행' 관련 駐北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을 위한 정세통보 모임(인민문화궁전) 참석(5.11, 중통·중방)

05.25. 駐北 러시아 대사(알렉산드르 마체고라)와 담화(5.26, 중통)

황병서(총정치국장)

(미상) '장재도 방어대'와 '무도 영웅 방어대'(서남전선 수역 최남단에 위치) 시찰 시 동행(5.5,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의 '인민무력성 기공구, 마감 건재품 및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장' 시찰 시 동행(5.13, 중통·중방·평방)

(미상) 김정은의 조선인민군 건설부문 열성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시 동행(5.13, 중통·중방·평방)

05.19. 당 중앙위 주최 '화성 12형' 탄도 미사일 개발자들을 위한 연회(목란관·인민문화궁전) 참석(5.20, 중통)

(미상) 김정은의 '신형 반항공 요격유도 무기체계' 시험사격 참관 시 동행(5.28, 중통·중방)

월간 보도일지

대내동향

05.01.(월)

■ 김정은 당 위원장, 청천강~평남 관개 자연흐름식 물길 건설을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앙방송)

■ 노동당 중앙위원회·노동당 중앙 군사위원회·국무위원회, 여명거리 건설자 및 지원자들에게 감사문 전달(중앙방송)

– 각지에서 감사문 전달모임 진행 및 결의문 채택

■ 【노동절(5.1.) 127주년 관련 동향】

* “만리마 대진군은 우리(北) 근로자들이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최후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거창한 창조대전”이라며 “원쑤들의 그 어떤 제재와 봉쇄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만장약한[30] 우리 인민, 우리식 사회주의의 앞길을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다”고 강조(노동신문·중앙통신/만리마 대진군에서 주체 조선 근로자들의 영웅적 기상을 힘 있게 떨치자)
* ‘5·1절 127주년 기념 중앙 보고대회’, 5월 1일 전광호(내각 부총리, 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남흥 청년화학 연합기업소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김기남 등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 황해제철 연합기업소·남흥 청년화학 연합기업소·국가과학원 등을 방문하고 노동계급과 농업 근로자들·지식인들을 축하(중앙통신)
* 각지 공장·기업소·협동농장에서 다채로운 축하공연과 유희 오락 경기 진행 등 “각지 근로자들이 5.1절을 뜻깊게 맞이했다”고 보도(중앙통신)

■ 北 여자 핸드볼 선수들, ‘2017년 국제 핸드볼 연맹컵 경기대회(아시아 지역)’에서 금메달 획득 및 5월 1일 귀환(중앙통신·중앙방송)

05.02.(화)

■ 김일성의 「서광」(인민혁명군 대내 기관지) 창간(1937.5.3.) 80주년 관련 ‘혁명적 출판물 전통을 마련한 김일성 업적’ 칭송(중앙통신)

■ 기계공업부문·임업부문 일꾼들, 4월 인민경제계획 각각 118.3%· 190% 초과 수행 및 강원도 내 일꾼들의 전쟁노병 보양소 건설(평양방송·중앙방송)

30) 만장약 : 『북한어』 폭양을 가득 재우는 것 또는 그 폭약. ②‘(어떤 사상이) 꽉 들어차는 것’을 이르는 말.

■ 묘향산 역사박물관 창립(1947.5.3.) 70주년 기념 보고회, 5월 2일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청진 초등학원·중등학원(함경북도 청진시 나남구역) 준공식, 5월 2일 진행(중앙통신)

■ 北 장애자 보호연맹 중앙위 기능공학교 제6기 개학식(5.2.), 김문철(조선 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장) 등 참석(중앙통신·중앙방송)

■ 제5차 보건부문 체육경기대회(4.20, 개막) 폐막식(5.2, 평양 체육관), 최태복(당 부위원장)·강하국(보건상, 폐막사) 등 참가(중앙통신)

■ 北 선수들(2017년 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 참가) 귀환(5.2.), 전광호(내각 부총리)·김일국(체육상)·최영남(인민봉사 총국장) 등 평양역 마중(중앙통신·중앙방송)

■ 제17차 '5·21 건축 축전'과 제12차 '건축 미학토론회'(김일성 저작 '건축예술론' 발표 기념일 즈음), 평양에서 진행(5.9.~12.) 예고(중앙통신·중앙방송)

05.03.(수)

■ 北 내각, 2017년 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위한 연회 5월 3일 옥류관에서 개최(중앙통신·중앙방송)

- 전광호(내각 부총리, 국가체육지도위 위원), 김일국(체육상) 등 참가

■ 2017년 아시아 축구 연맹컵 경기대회 9조(동아시아 지역) 경기(기관차팀과 4.25팀) 결과 2:2 무승부 보도(중앙통신)

■ 전쟁노병 보양소 준공식, 평안남도와 함경북도에서 진행(중앙통신)

■ 김일성종합대학 국제 학술토론회, 5월 9일 ~ 10일 진행 예정(중앙통신)

- '생태환경 보호와 의학 및 농업의 발전'이라는 주제 밑에 환경과학, 의학, 농학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들 발표

■ 제19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 의학과학 토론회 개막식, 5월 3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중앙방송)

* 평양 의학과학 토론회 참가자,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 참배(중앙통신)

05.04.(목)

■ 제8차 전국 의료기구 전시회, 5월 2일부터 4일까지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중앙통신)

- 각지 공장, 기업소, 교육, 과학 연구 기관들에서 창안 제작한 930여 종 3,030여 점의 의료설비와 기구, 재료들 출품

■ 제19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 의학과학 토론회, 김형훈(조선의학협회 위원장, 개회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5월 3일과 4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중앙통신)

■ 해주 초등학원·중등학원 준공식, 5월 4일 현지에서 진행(중앙통신)

05.05.(금)

■ 김정은 당 위원장, '장재도 방어대'와 '무도 영웅 방어대'(서남전선 수역 최남단에 위치) 시찰(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총정치국장), 서홍찬(인민무력성 제1부상), 박정천(포병국장), 리성국(인민군 제4군단장), 리영철(정치위원), 오일정, 조용원 동행
- 김정은 당 위원장은 박정천 포병국장으로부터 "남조선 괴뢰군 서북도서 방위사령부의 최근 적정(敵情)과 새로 증강 배비된 연평부대의 현황 상태를 보고받고 새로 조직한 아군의 적 대상물 화력 타격계획"을 검토
- "서남전선을 지키고 있는 인민군 최정예 포병집단은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명령이 내리면 괴뢰들의 사등뼈를 완전히 분질러버려야 한다"고 강조

■ 김정일 저작(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발표 26주년 관련 "우리 인민들은 사회주의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사회주의를 지키고 빛내어 나가는데 자신들의 피와 땀을 바치고 있다"며 '조선식 사회주의 필승불패'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사회주의의 한길로 끝까지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의지)

■ 대외건설 지도국 창립('77.5.6.) 40주년 기념 보고회(5.5.), 김평해(당 부위원장)·리룡남(내각 부총리) 등 참가(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과학자들, 광물질 살균영양제 개발 및 농업부문 도입 성과(살균력 90% 이상, 성장 촉진 효과 등) 보도(중앙통신)

05.06.(토)

■ 김정은 당 위원장,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앙방송)

■ 김정은 당 위원장, '여명거리 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앙방송)

■ 양강도 갑산군 송암 협동농장, 김일성 父子를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 건립(중앙방송)

05.07.(일)

■ 김정은 당 위원장, 故 최동륜(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 인민 과학자) 빈소에 5월 5일 조화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 2017년 봄철 장애자 및 애호가 탁구경기, 5월 2일부터 7일까지 김일성종합대학 체육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05.08.(월)

■ 박봉주(내각 총리), 평양 자동화 기구공장 현지 요해 및 일꾼-노동계급 투쟁성과 격려(중앙통신·중앙방송)

- 이에 앞서 남양 제염소·국가과학원 중앙 양어연구소·농업연구원 과수학연구소 개건 정형 시찰

■ 216사단 전투원들의 '양강도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조성 공사(기초 콘크리트 치기, 혜산-삼지연 철길 건설 마감단계 등) 성과' 보도(중앙통신)

05.09.(화)

■ 【「조선중앙통신사」 보도(5.8.)】 '당 제7차 대회('16.5.9.) 1주년' 관련 "지난 1년간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기적적 성과들을 이룩했다"며 '△정치사상 진지 공고, △군사적 위력 백방강화, △경제 강국 건설 위한 총공격전' 등 성과 선전 및 '김정은 당 위원장 영도력' 칭송(중앙방송)

■ 수의방역소 창립('47.5.9.) 70주년 기념 보고회 진행(5.8, 인민대학습당), 고인호(부총리 겸 농업상, 기념 보고) 등 참가(중앙방송)

■ 당 제7차 대회 1주년 즈음 "조성된 현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전투 목표를 보다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정확히 세워놓고 무조건 진행해 나가는 결사관철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승전포성을 더 높이 울려나가자"고 호소(중앙통신·노동신문/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펼친 휘황한 설계도 따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승리를 앞당겨나가자)

■ 제17차 '5.21 건축축전' 개막식, 오수용(당 부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자강력으로 비약하는 주체건축'이라는 주제로 5월 9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중앙통신·평양방송)

- 각 도(직할시) 축전에서 당선된 건축설계안 260여 건, 마감 건재 및 가구비품 260여 건, 설계 정보화를 위한 프로그램 20여 건, 건설장비 및 기공구 30여 종에 대한 전시회들이 열리게 되며 건설부문 과학논문 250여 건 발표

■ 김일성종합대학 3호 교사(룡남산 지구) 개교 모임, 5월 9일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최동명(당 부장), 김승두(교육위원장), 차희림(평양시 인민위원장) 등 참가

■ 평안북도 '신의주 초등학원·중등학원' 준공식, 5월 9일 진행(중앙통신)

05.10.(수)

■김정은 당 위원장, '낙랑 영예군인 수지 일용품공장' 공개 활동(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 총리), 리주오(내각 부총리), 안정수(당 부장), 조용원(당 부부장) 동행
- "영예군인들을 고무 격려해 주기 위해 공장을 방문했다"며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고 생산 정형을 구체적으로 요해
- "새 설비와 함께 낡은 설비도 첨단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새것처럼 만들어 생산에 참가시키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든다"고 대만족을 표시하고 "공장 설비관리에서 본보기, 모범공장이라며 온 나라에 널리 소개 선전하고 따라 배우게 하라"고 지시

■ "4월 하순부터 황해남북도를 비롯한 서해안 중부 이남, 동해안 지역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가물 피해를 받기 시작하였다"며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가물 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독려(노동신문/가물 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자)

*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 협동농장, 5월 10일 첫 모내기 시작(중앙통신)

■ 조선 혁명박물관, 개관 이후 40여 일 동안 10만여 명 참관(중앙통신)

■ 제12차 건축미학 토론회, 5월 10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

- 마원춘(국무위 설계국장), 동정호(건설건재 공업상), 권성호(국가건설 감독상), 김경준(국토환경 보호상), 강영수(도시경영상), 조석호(수도 건설위원장) 등 참가

■ 전국 의학과학 토론회, 5월 9일 ~ 10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 및 460여 건의 연구 논문 제출(중앙통신)

- 기초 의학, 약학, 외과학, 내과학, 위생 방역학, 고려의학 분과로 나눠 진행

■ 전국 수의방역 부문 과학기술발표회, 5월 9일 ~ 10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중앙통신)

■ 김일성종합대학 국제 학술토론회, 5월 9일 ~ 10일 진행(중앙통신)

- '생태 환경보호와 의학 및 농업의 발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수십 건의 과학 기술 논문 발표

■ 평양 수예연구소 창립 70주년 기념보고회, 안정수(당 부장)·최일룡(경공업상) 등이 참가한 가운데 5월 9일 진행(중앙방송)

■ 나선시 선봉지구 만복 고급중학교 준공식, 림경만(나선시 당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5월 9일 진행(중앙방송)

05.11.(목)

■ 김정은 당 위원장, 허룡제(女, 황해북도 중화군 거주)에게 '100세 생일상'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당 위원장 저작(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 5주년 즈음 전국 자연보호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5.11, 과학기술전당)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전국의 산림·식물·원림·토지·환경·동물·수산자원·지하자원보호 부문과 국토계획, 도로, 물관리 부문 일꾼 등이 연구한 300여 건 논문 제출

■ 4월 하순부터 가물현상으로 황해남·북도를 비롯한 서해안 중부 이남 대부분 지역과 동해안 지역(평안북도·함경남도)에서 밀·보리와 강냉이 등 '가물 피해 및 가물피해 방지 총력' 보도(중앙방송)

* 국가계획위원회·전력공업성을 비롯한 위원회·성·중앙기관들의 연유와 전력, 농기계 부속품 등 최우선 보장 등 '농업부문의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이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전개'(중앙통신)

■ 김일성의 나남 탄광기계 연합기업소 공개 활동(1957.5.10.) 60주년 기념보고회, 김덕훈(내각 부총리)·전승훈(함경북도 당 위원장) 등 참가(중앙방송)

■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 창립(1957.5.12.) 60주년 기념 보고회(5.11.), 최룡해(당 부위원장)·전용남(청년동맹 중앙위 1비서) 등 참가(중앙통신·중앙방송)

■ '알곡생산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국산화된 천연생물 영양활성제(영양·성장촉진제 역할 동시 수행, 농작물의 뿌리발육 촉진 등)' 개발(중앙통신)

■ '2.16 예술교육 출판사', 예술인재 육성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십 종 도서·교과서·참고서' 출판(중앙통신)

05.12.(금)

■ "자강력 제일주의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와 압살책동을 초강경으로 짓부셔버릴 수 있게 하는 만능의 보검, 선군조선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의 기치"라고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자강력 제일주의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전략적 노선)

■ 모내기철을 맞아 "쌀만 넉넉하면 고난의 행군을 열 백번 다시 한다 해도 무서울 것이 없으며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계속 힘 있게 다그쳐 나갈 수 있다"며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낼 것'을 호소(중앙통신·노동신문/모든 힘을 농사에 총동원, 총집중하여 모내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내자)

■ 제17차 '5.21 건축축전' 폐막식, 오수용(당 부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5월 12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05.13.(토)

■ 김정은 당 위원장, '인민무력성 기공구, 마감 건재품 및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장' 시찰(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황병서(군 차수), 박영식(인민무력성, 육군 대장), 김정관(인민무력성 부상) 동행
- 인민군대 안의 건설부대, 건재생산 단위들에서 창안 제작한 550여 종 13만 1,620점의 각종 기공구, 마감 건재품들과 530여 건의 과학기술 성과 자료들 전시

* 김정은 당 위원장, 조선인민군 건설부문 열성자들과 기념사진 촬영(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황병서(군 차수), 박영식(인민무력성, 육군 대장), 김정관(인민무력성 부상) 동행
* 김정은 당 위원장, 6.18 건설돌격대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앙방송·평양방송)

■ 최룡해(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평원군 '원화 협동농장' 방문(중앙통신·중앙방송)
- 농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일꾼들과 농장원들을 적극 고무

■ 함흥 제사공장 창립('57.5.13.) 60주년 기념보고회, 김성일(함경남도 당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5월 12일 진행(중앙방송)

05.14.(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1721호(5.13.)】 내각 부총리 동정호(건설건재 공업상) 임명(중앙통신·중앙방송)

■ '탄소하나 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대상건설 착공식 진행(5.14, 순천화학 연합기업소), 박봉주(내각 부총리)·오수용(당 부위원장)·로두철(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장길룡(화학 공업상, 착공사)·박태성(평안남도 당 위원장) 등 참석(중앙통신)

05.15.(월)

■ 김정은 당 위원장,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 미사일 '화성 12형' 시험발사(5.14, 새벽 4시 58분) 참관(중앙방송·중앙통신)
- 리병철·김정식·정승일·장창하(당 책임 일꾼들) 및 김락겸(전략군 사령관) 등 영접
- "이번 시험발사에는 위력이 강한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새 형의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의 전술 기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최대 고각 발사체제로 진행"했음
- 발사된 로켓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최대정점 고도 2.111.5㎞까지 상승비행하여 거리 787㎞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했음
- 로켓 시험발사를 통하여 우리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설계한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의 유도 및 안정화체계, 구조체계, 가압체계, 검열 및 발사체계의 모든 기술적 특성들이 완전히 확증되었으며 새로 개발된 로켓 발동기의 믿음성이 실제적인 비행환경 조건에서 재확인 됐음
- 김정은 당 위원장은 "미국이 부질없는 경거망동으로 우리를 섣불리 건드린다면 사상최대의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美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들어 있다는 현실, 섬멸적 보복타격의 온갖 강력한 수단이 우리의 수중에 있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오판해서도 안된다고 강력히 경고"했음

■ 김일성 저작(인민 보건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47.5.21.) 발표 70주년 기념 중앙 의학과학 토론회, 김형훈(北 의학협회 중앙위원장, 개회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5월 15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중앙통신)

■ '제20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 전람회(5.22.~25.)', '3대혁명 전시관'에서 진행 예정(중앙통신)

- 전람회에는 벨라루시,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쿠바, 대만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230여 개 회사들이 참가

■ 개성시, 임농 복합경영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경영지를 지난해보다 2배로 늘리는 성과 이룩(평양방송)

* 만경대구역, 올해 3만 6천여 그루 식수 및 가물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협의회를 열고 가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 수립(중앙방송)

■ 北, 아시아 축구연맹 '대중 축구의 날'(5.15.)에 즈음한 행사 진행(중앙통신)

- 각지 청소년 체육학교 학생들, 지도교원들과 축구 전문가들, 애호가들 참가

05.16.(화)

■ 평성·강계 가방공장 준공식, 박태성(평안남도 당 위원장)·김재룡(자강도 당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중앙방송)

■ 전국 화력발전 설비 보온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5월 16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 나무의 활착률[31]을 높이는 '외생균 뿌리균제' 개발(중앙통신)

- 나무모의 재배 기간을 단축할 뿐 아니라 옮겨 심은 나무모의 활착률을 80~95% 보장

05.17.(수)

■ 전국 수산부문 과학기술 발표회(조선 과학기술 총연맹 중앙위 주최) 진행(5.16.~17, 과학기술전당), 김일성종합대학·수산성 수산연구원 등 10여 개 단위 과학자-기술자 150여 명 참가 및 '140여 건 논문 제출'(중앙통신·중앙방송)

■ '낙랑 영예군인 수지 일용품공장', '김정은 당 위원장 지시 관철' 궐기모임 5월 16일 진행(중앙방송)

■ 北 농업연구원, 우량 품종의 콩 종자 새로 육성 및 전국에 도입 성과(다른 콩 품종들 대비 1.2~1.3배 소출 등) 선전(중앙통신)

31) 활착률 : 『농업』 옮겨 심거나 접목한 식물이 제대로 산 비율.

■ 리성일(군관)·한철만(노동자) 등, 지대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화성 12형' 시험 발사 성공 관련 '자위적 국방공업 위력 만천하에 과시·반미 대결전에서 부른 최후승리의 통장훈'이라고 반향(중앙통신)

05.18.(목)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5.12.)】 황해남도 물길 1단계 공사에서 위훈을 세운 돌격대원들과 기술자·일꾼들에게 표창(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일성 생일 경축 국가 산업미술전시회 폐막식(4.4.~5.18.), 국가 산업미술전시회장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세계 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 창립 43돌 기념모임, 평양에서 5월 17일 진행(중앙통신)

05.19.(금)

■ '화성 12형' 탄도 미사일 개발자들, 5월 18일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 리만건(당 부위원장)과 수도 시민들이 평양 체육관 광장에서 영접

* '화성 12형' 탄도 미사일 개발자들,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 5월 18일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 단천 발전소 건설 착공식, 5월 18일 현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 총리, 착공사), 오수용(당 부위원장), 로두철(국가계획위원장), 김성일(함경남도 당 위원장), 리상원(양강도 당 위원장) 등이 참가

■ 평안북도·황해남도·황해북도 전쟁노병 보양소 준공식, 각각 해당 단위에서 진행(중앙통신)

* 혜산 중등학원 준공식, 5월 19일 현지에서 진행(중앙통신)

■ 北, 가야금 제작기술·저대(대금) 제작기술·명태 매운탕·숭늉·노치(찹쌀가루와 엿기름 등을 이용해 만든 지짐)를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등록(중앙통신)

05.20.(토)

■ 김정은 당 위원장, '화성 12형' 탄도 미사일 개발자들과 함께 당 중앙위 청사에서 기념사진 촬영(중앙통신·중앙방송)

– 리만건, 리병철, 김정식, 정승일, 장창하 참가

- 김정은 당 위원장은 “로켓 연구 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마음속 신들메를 바싹 조이고 강위력한 주체무기와 첨단 무장 장비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하여 조국을 선군의 핵 보검으로 지켜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

* 당 중앙위, ‘화성 12형’ 탄도 미사일 개발자들을 위한 연회(5.19, 목란관·인민문화궁전) 마련(중앙통신)

- 황병서, 최룡해, 박영식, 리만건, 리병철 참가

■ 김일성 저작(인민보건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발표(‘47.5.21.) 7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5.20, 청년중앙회관), 최태복(당 부위원장)·전광호(내각 부총리)·강하국(보건상, 보고) 참가(중앙방송·중앙통신)

■ 평양시 등 전국 각지에서 올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에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 일신 사업(교육의 정보화·현대화사업)’ 추진(중앙통신)

05.21.(일)

■ 김정은 당 위원장, 금수산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 잘 꾸리는데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중앙방송)

■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 청년동맹위, 학생 계급교양사업 주력(중앙방송)

* 황해남도, 산림자원 보호 위한 산불감시 및 군중동원 체계 사업 주력(중앙방송)

05.22.(월)

■ 김정은 당 위원장, ‘북극성 2형’ 시험발사(5.21.)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 리병철, 김정식, 정승일, 유진, 조용원, 김락겸(전략군 사령관) 동행 및 현지에서 장창하, 전일호가 영접
- “무기체계 전반의 기술적 지표들을 최종 확증하고 각이한 전투 환경 속에서 적응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부대들에 실전 배비하자는 목적을 두고 진행”
- “냉 발사체계, 탄도탄의 능동구간 비행 시 유도 및 안정화체계, 계단분리 특성, 대출력 고체 발동기들의 시동 및 작업 특성들의 믿음성과 정확성이 완전 확증”
- “‘북극성 2형’ 무기체계의 부대 실전 배비를 승인하고 핵무력 강화에서 나서는 전략적 과업”들을 제시하였으며, 국방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과 기념촬영

■ 박봉주(내각 총리), 함경남도 함흥시 중요 공장·기업소(흥남비료 연합기업소· 2.8비날론 연합기업소·용성기계 연합기업소 등) 방문(중앙통신·중앙방송)

- 노동계급과 기술자, 일꾼들을 고무해 주었으며, 기업소들의 생산실태와 능력 확장 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협의회들을 진행

■ ‘제20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 전람회’ 개막식, 리룡남(내각 부총리)·김영재(대외경제상) 등이 참가한 가운데 5월 22일 3대혁명 전시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석탄공업 부문, 상반기 인민경제계획 조기 완수(중앙방송)

■ 어린이 건강의 날에 즈음한 행사, 5월 22일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유치원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선수들, '제7차 아시아 기계체조 선수권대회'(5.16.~21, 태국)에서 금메달 1개·은메달 3개 획득(중앙통신·중앙방송)

05.23.(화)

■ 혁명전통은 '혁명의 역사적 뿌리이며 세대와 세대를 하나의 명맥으로 이어주는 핏줄기'라며 "혁명교양을 놓치면 압력과 봉쇄 앞에서 사상적으로 동요하게 되고 사회주의를 지켜낼 수 없다"고 '혁명전통(김일성·김정일 혁명역사) 교양 강화'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주체혁명의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전통 교양을 더욱 강화하자)

■ '황해남도 물길 1단계 공사에서 노력적 위훈을 세운 돌격대원-기술자-일꾼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 수여모임 진행(5.22.), 정명학(당 검열위원회 1부위원장) 등 참가(중앙방송)

- 김정일 훈장: 강문석, 노력영웅 칭호와 금메달·마치와 낫 및 국기훈장 제1급: 김충일·최길준·장열·고현, 김일성 시계 표창 : 우기홍·심광호, 김정은 표창장: 고명철·전철호·허천연·손문순·김인철·김승호·림광혁·강영근
- 김일성 청년영예상: 최명일, 김정일 청년영예상: 윤광룡, 공훈설계가 칭호: 강혜영·박청원, 공훈자동차 운전사 칭호: 김형철·오춘화, 국기훈장 제1급 등 훈장·메달: 돌격대원·기술자·일꾼들에게 수여

■ 조선노동당 출판사, 혁명일화 총서「김일성 일화집」제12권 출판(중앙통신)

05.24.(수)

■ "사회주의 압살 책동이 극에 달했다"고 주장하며, '사회주의 사수 및 김정은 결사옹위'를 강조(노동신문/사랑하노라 우리의 사회주의)

-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나라도 없고, 잘 살기를 바라는 나라도 없다"

■ 김명철(北 어린이 후원협회 서기장), "어린이 건강관리 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 있다"고 선전(중앙통신)

- 태어나서부터 '건강관리부'를 가지게 되며 정기점검 및 상담, 신체검사 보장, 전염병 예상 접종과 구루병, 결핵, 류마티스, 피부병 등에 대한 계획적이고 정상적인 예상치료 혜택

■ 김정일이 애국탄 증산운동의 불길을 지펴준 40돌 기념 보고회, 개천지구 탄광 연합기업소 자강도 공급탄광에서 5월 24일 진행(중앙통신)

■ 제4차 전국 소년 축구경기대회 개막식, 5월 24일 사리원 청년경기장에서 진행(중앙통신)

■ '제20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 전람회'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중앙통신)

05.25.(목)

■ 김일성 저작 발표(1967.5.25, 당면한 당 선전사업 방향에 대하여) 50주년을 맞아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 일색화를 실현하는 것은 제국주의와의 전면 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며 "제국주의자들의 反사회주의적 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 우월성을 최대로 발양시켜 나갈 것" 촉구(중앙통신·노동신문/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 일색화는 조선혁명의 백승의 푯대이다)

■ '2017년 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감독들을 위한 축하 모임, 김일국(체육상, 축하 발언) 등이 참가한 가운데 5월 25일 청춘거리 역기 경기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평남 양덕군 '박제품 공장' 준공식, 5월 25일 현지에서 진행(중앙통신)

■ 중앙동물원, 개건(2016.7.) 후 80여 종 동물들이 860여 마리 새끼 출산(중앙통신)

05.26.(금)

■ 최룡해(당 부위원장), 천리마제강 연합기업소 방문 및 '노동계급 투쟁성과 고무, 철강재 생산혁신 대책 강구'(중앙통신·중앙방송)

■ 수산부문 일꾼들의 4월 말까지 지난해 동기 대비 총 800톤 더 많은 수산물 생산과 북청군 일꾼들의 룡전 과수농장 마을 꾸리기 사업 70% 계선 돌파(중앙방송)

■ 평안남도 평원군에 악기공장 새로 건설(풍금·기타·북 등 대중악기 전문 생산) 및 5월 26일 준공식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제2차 아시아 청소년 육상선수권 대회(5.20.~5.23, 태국) 참가 北 선수들(최일경: 여자 3,000m·김향수: 여자 2,000m 장애물 경기 각각 1위), 5월 26일 귀환(중앙통신·중앙방송)

05.27.(토)

■ 박봉주(내각 총리), 황해남도 연안군 농사실태와 순천시멘트 연합기업소·연백 제염소 현지 점검(중앙통신·중앙방송)

-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작물과 품종들을 배치하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알곡 소출을 높일 데 대하여서와 연관 단위들에서 농사에 필요한 물자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 강구"

05.28.(일)

■ 김정은 당 위원장, '신형 반항공 요격유도 무기체계' 시험사격 참관 공개활동(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 리영길, 오금철, 김광혁, 리병철, 김정식, 정승일 동행 및 현지에서 장창하, 전일호 등이 영접
- "작전 배치된 신형 반항공 요격유도 무기체계의 전투적 성능과 믿음성을 검증하고 보다 현대화, 정밀화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시험사격을 또다시 진행
- "불의에 영공을 침범하는 적 공중 목표들을 타격 소멸하는 것을 가상하여 임의의 방향에서 날아오는 각이한 공중목표들을 탐지 및 요격하는 방법"으로 진행
- "지난해보다 요격유도 무기체계의 명중 정확도도 높아지고, 지난해에 나타났던 일련의 결함들도 완벽하게 극복되었다고 말하고, 다음 세대 반항공 요격유도 무기체계 연구 개발 사업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연백 제염소, 작년 대비 소금 생산 4배 증산(평양방송)

05.29.(월)

■ 김정은 당 위원장, 故 최성천(국가과학원 녹색건축연구소 연구사, 인민 과학자) 빈소에 5월 28일 조화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 최근 '화성 12형'·'북극성 2형' 발사 성공 자축(백두산 대국의 강대성과 국력 과시) 및 국방과학자·기술자들 노고 치하(주체형의 혁명가, 참된 애국자 등)하며 "당의 과학기술 중시 사상을 심장깊이 새기고 과학기술 대전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호소(중앙통신·노동신문/국방과학 전사들처럼 결사전을 벌려 과학기술 대전에서 승리자가 되자)

■ 최근 「조선 과학기술 총연맹 중앙위」의 30여 개 단위에 '3중 모범 기술혁신 단위, 2중 모범 기술혁신 단위, 모범 기술혁신 단위' 칭호 수여로 '모범 기술혁신 단위' 칭호 쟁취운동 시작 이래 '전국적으로 330여 개 단위들이 모범 기술혁신 단위 칭호 수여' 선전(중앙방송)

■ 강령군(4.2㎞ 강령천 대보수 공사·읍지구 도보 도로폭 확장 공사·60여 동 농촌 살림집 건설 등)과 해주시(산업폐수 정화장 건설·도로 관련 변모) 등 '봄철 황해남도 국토면모 일신 성과' 선전(중앙통신)

05.30.(화)

■ 김정은 당 위원장, '정밀조종 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 참관(중앙방송·중앙통신)

- 리병철, 김락겸, 김정식, 장창하, 정승일, 전일호 동행

- 김정은 당 위원장은 “탄도 로켓의 전술 기술적 제원을 구체적으로 요해하고 종전의 화성 계열 로켓들보다 발사 전 준비공정이 고도로 자동화되어 발사시간을 훨씬 단축하도록 체계가 완성됨으로써 적들의 무력도발을 신속히 제압 견제할 수 있게 된데” 만족을 표시
- 탄도 로켓은 중등 사거리를 비행하여 “예정 목표점을 7m의 편차”로 정확히 명중
- “이번 시험발사를 능동 비행구간에서 조종날개가 있는 전투부를 장착한 탄도 로켓의 비행 안정성을 검토하였으며 중간 비행구간에서 소형 열분사 발동기에 의한 속도 교정 및 자세 안정화 계통의 정확성이 재확증”

■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금연제품인 ‘니코틴 반창고’(금연 패치) 개발(중앙통신)

■ 황해북도 농촌들, 수천 정보의 면적에 대한 콩 심기를 5월 26일까지 완료(평양방송·중앙방송)

05.31.(수)

■ 김정은 당 위원장,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앙방송)

■ 「조선 소년단」 창립(‘46.6.6.) 71주년 기념 사진 전람회 개막식, 최룡해(당 부위원장)·전용남(청년동맹 1비서, 개막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5월 31일 청년 중앙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평양방송)

■ 평양신문 창간(‘57.6.1.) 60주년 기념보고회, 김기남(당 부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5월 31일 진행(중앙통신)

■ ‘세계 금연의 날’(5.31.)에 즈음한 행사, 5월 3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대남동향

05.01.(월)

■ 보수 세력의 ‘안보 위기’(北 핵·미사일 위협) 주장은 ‘저들을 안보 세력으로 광고하여 민심을 기만하고 재집권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조선 인민들은 괴뢰 보수 패당의 유치한 안보 위기 소동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역적 무리의 재집권 기도를 단호히 짓뭉개버릴 것’이라고 주장(노동신문/불순한 모략 선전에 깔린 기도)

■ 【「전민족대회 북측 준비위」 공보(5.1.)】 전민족대회 ‘북남 노동자단체 준비위원회’ 결성식 5월 1일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진행(중앙통신)

- "북남 노동자단체 준비위원회 결성은 7.4공동성명 발표 45주년과 10.4선언 발표 10주년이 되는 올해에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하려는 해내외 각계각층의 활동을 더욱 추동하게 될 것"

05.02.(화)

■ 보수세력의 '정권 재창출 움직임(자유한국당·바른정당, 보수대통합·보수후보 단일화 언급 등)'에 대해 "보수가 재집권하면 북남관계를 완전 결딴내고 강토를 외세의 핵전쟁 마당으로 송두리째 내맡기는 것이 명백하다"며 '보수잔당 청산' 선동(중앙통신)

* 박 前 대통령과 보수세력의 '재집권에 유리한 환경 조성, 재집권 야망실현 발악(박 前 대통령 첫 공판 연기 요구·보수 결집, 안보문제 거론)'을 주장하며 "역사와 민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고 선동(중앙통신)

05.03.(수)

■ 박 前 대통령의 '공판 준비기일 연장 요청' 등 관련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려고 교활한 잔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형벌을 덜어보려고 시간 끌기 놀음에 매달려 보아야 사람들의 격분만 더욱 자아낼 뿐'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특등 범죄자의 교활한 잔꾀)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사드' 핵심장비들 예정지에 기습 전개 관련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와 지역 안정은 안중에도 없는 평화의 교란자, 파괴자'라고 비난하며 '南 인민들의 사드배치 야합 저지·파탄 투쟁' 선동(중앙통신/사드 배비의 후과는 참혹할 것이다)

■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 민족대단결, 평화통일) 발표('72.5.3.) 45주년 관련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외세의존, 동족대결, 북침 핵전쟁 소동'으로 규정하고 '對美 굴종정책 결별,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실현, 평화적 환경 마련'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에 장애를 조성한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고 조국통일 3대 원칙의 기치 따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한다)

05.04.(목)

■ 【「조국통일 연구원」 고발장(5.4.)】 "괴뢰 보수패당이 재집권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벌리는 안보 소동과 종북 소동의 추악상을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해" 고발장을 발표하고, "남조선 각 계 각 층은 괴뢰 보수패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광적으로 벌려놓는 대결 모략소동의 추악한 정체를 똑바로 보고 천하 매국 반역 무리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선동(중앙통신)

05.05.(금)

■ 【「국가보위성」 대변인 성명(5.5.)】 "韓·美 정보당국(국정원·CIA)이 北 최고 수뇌부를 생화학 물질에 의한 국가테러 감행목적 밑에 北 내부에 침투시켰던 테러범죄 일당이

적발되었다"며 '우리식의 정의의 반테러 타격전이 개시될 것' 위협(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중앙정보국과 괴뢰 국정원이 2014년 6월 당시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주재하던 우리(北) 임업 노동자 김모를 테러범으로 변신시켰음"

* 김정선(북창 화력발전 연합기업소 노동자)·한정천(황해남도 해주시 주민)·전명철(군관) 등, "무자비하게 죽탕쳐 버려야 한다, 모략의 본거지들을 흔적도 없이 날려 보내야 한다"고 적개심 토로(중앙통신)

■ 【「조평통」 정책국 대변인 중통 기자 대답(5.5.)】 통일부의 '남북 인권대화' 추진은 "反北 인권모략 소동을 다음 정권에까지 이어가며 북남 회담을 대결마당으로 만들어 북남관계가 개선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보려는 대결흉심"이라며 "한갖 개꿈에 불과하다"고 비난(중앙통신·중앙방송)

05.06.(토)

■ 보수정당의 '안보' 거론 관련 "사회 전반에 공화국에 대한 적대 기운을 불어놓고 동족 대결정책을 합리화하며 안보 수호세력으로 광고하여 재집권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불순한 음모책동"이라며 "남조선 안보 보장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는데 있다"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대결전쟁 세력을 심판해야 평화가 온다)

■ '사드' 배치 비용부담 발언 관련 '상전과 밀약한 것은 공개된 비밀'이라며 "미국의 날강도적인 대조선 침략책동과 그에 추종하는 괴뢰 보수패당의 매국 반역책동을 그대로 두면 불행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핵전쟁의 재앙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박근혜와 그 잔당들이 저지른 매국배족 행위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 외교부 장관의 對北 발언(北에 대한 제재와 압박기조 견지, 對北 공조의 연속성) 관련 '세상을 돌아치며 반공화국 압박공조를 구걸하기 위해 망신스럽게 놀아대는 외교 거렁뱅이야말로 민족의 수치'라며 "더러운 목숨을 조금이라도 부지해 보려고 발악하지만 비참한 파멸을 면할 수 없다"고 비난(중앙통신/미친 병세의 마지막 발작)

05.07.(일)

■ 北, 난수방송(올해 15회째, '16.6.24. 부터 현재까지 총 35회) 실시(평양방송)

■ '친미 역적들이 정권의 자리에 앉으면 재난과 치욕밖에 차례질 것이 없다는 것은 지난 10년간 보수패당의 집권 하에 시달려온 남조선 인민들이 뼈에 새긴 교훈'이라며 "남조선 인민들이 친미 역적들에게 총파산을 선고하고 역사 무대에서 단호히 밀어낼 시각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친미 보수정권은 재앙의 화근)

■ 우리 정부의 대북압박 조치(김관진 안보실장과 美 국가안보보좌관 통화, 제11차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 개최 등)에 대해 "우리(北)에게는 그 어떤 제재와 압박도 통하지 않는다"며 "반공화국 제재와 압박의 도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초강경 대응

조치는 더욱 강도높이 다발적·연발적으로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외세 의존 병자들의 미련한 망동)

05.08.(월)

■ 現 남북관계 악화는 "근 10년간 정치군사적 대결을 격화시켜온 남조선 보수패당이 빚어냈다"며 "보수패당이 또다시 집권한다면 그 비극의 세월(핵전쟁 불안 공포)은 다시금 연장되게 될 것"이라고 '보수패당의 재집권 책동 저지' 선동(중앙통신·노동신문/북남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야 한다)

■ 올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연습은 "예년에 없는 대결광란, 한반도에서 핵전쟁 발발은 시간문제라는 메아리를 남겼다"며 '우리(北)의 핵 타격전은 선군조선의 본때가 어떠한가를 몸서리치게 보여줄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북침 핵전쟁 소동에 광분할수록 차례질 것은 참혹한 종말밖에 없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지막 국무회의 발언(北 도발우려 지속)을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대결의식이 온 몸뚱아리에 차넘치고 있는 자만이 내뱉을 수 있는 궤변'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대결광신 자의 마지막 발광)

* 리광림(군관)·박명철(황해제철 연합기업소 노동자)·리금철(웅진광산 차광수 청년돌격대 대장), '국가보위성' 대변인 성명(5.5) 관련 '韓美 적개심("미국과 남조선 역적무리들은 우리 조준경에 들어있다" 등)' 토로(중앙통신)

■ 강원도 삼척시·강릉시 및 경상북도 상주시·영덕군에서 6일~7일 산불로 3명 사상 및 160㎡ 산림 전소, 인용 보도(중앙통신)

05.09.(화)

■ '오늘 남조선에 펼쳐진 현실은 보수패당의 반역정치와 부패 무능의 필연적 결과'라며 "인민을 등진 반역통치로 용납 못할 죄악을 저질러온 보수패당을 깨끗이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새 정치·새 생활·새 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반동 보수 세력의 청산은 민심의 요구)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대북제재 공조' 발언 관련 "외세를 등에 업고 더러운 잔명을 부지하며 불순한 체제통일 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것은 보수패당의 변함없는 흉심"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무덤길을 재촉하는 대결광의 추태)

■ "KR/FE 합동 군사연습이 끝났지만 韓美의 무분별한 망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만일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날린다면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을 모조리 생존불가능하게 초토화해 버리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성취하고야 말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가리울 수 없는 전쟁광신자들의 정체)

05.10.(수)

■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美 국가안보보좌관·국무장관과의 '대북 압박 공조'(北과의 대화는 시기상조, 지금은 제재와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할 시점) 전화통화에 대해 '미국의 식민지 하수인들의 가련하고 비굴한 추태'라며 "남조선 인민들이 수치스러운 외세 추종의 역사를 끝장내고 존엄 있게 살기 위해서도 보수패당을 단호히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노동신문/친미주구 대결 광신자들의 가련한 신세)

05.11.(목)

■ 北,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당선 보도(중앙방송·평양방송·중앙통신)

- "이번 선거는 박근혜 역도가 대통령 직에서 파면당한 것으로 하여 조기에 치르어진 선거였다"
-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41%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박근혜 前 대통령 7시간 행적 등) 관련 청와대 문건들을 '비공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촛불민심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모독이고 정면도전'이라고 비난 및 '反보수 투쟁' 선동(중앙통신/독초는 뿌리채 들어내야 한다)

■ 美 순양함 '레이크 챔플레인'호의 남한 어선과 충돌 사고, MBC 방송 인용 보도(중앙방송·중앙통신)

05.12.(금)

■ 北, 난수방송(올해 16회, '16.6.24. 재개 이후 총 36회) 실시(평양방송)

■ 【「중앙검찰소」 성명(5.12.)】 韓美 정보기관이 北 최고 수뇌부에 테러 시도하려다 검거 주장 관련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 인도' 요구와 "마지막 한 놈까지 모조리 법정에 끌어내어 공화국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처형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군범죄 진상규명 전민특위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5.12.)】 '주한미군 전우회(KDVA: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출범 관련 '쓸개빠진 반민족적 망동, 친미 역적무리의 극악무도한 망동'이라며 "주한미군 몰아내고 친미 매국노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자"고 선동(중앙통신·중앙방송)

05.13.(토)

■ 美 하원의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 채택 관련 우리 정부의 환영 입장(단호한 북핵 대응 의지 등) 표명에 대해 '얼간 망둥이들의 추태'라고 비난하며, "제재와 압박으로 우리(北)의 앞길을 가로막겠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우겠다는 것만큼이나 허황한 망상"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대결에 환장한 얼간 망둥이들의 추태)

■ 황교안 前 국무총리의 '세월호 문건'(박근혜 前 대통령 7시간 행적 등) 대통령기록물 지정에 대해 '특대형 범죄의 내막이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는 고의적인 작간(作奸)'이라며 '남조선 인민들은 보수 패거리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선동(중앙통신·노동신문/범죄 은폐를 노린 너절한 오그랑수[32])

■ 【「민화협」 대변인 담화(5.13.)】 자유한국당의 '바른정당 탈당파 복당 및 친박 의원 징계 해제'에 대해 "남조선의 촛불 민심에 대한 우롱이고 도전이며 박근혜의 암흑시대를 되살려보려는 보수패당의 비열한 망동"이라며 "남조선 인민들은 역사의 퇴물인 보수 패당이 되살아나지 못하게 영영 매장해버려야 한다"고 선동(중앙통신)

05.14.(일)

■ 韓美 정보당국의 '국가테러 음모(北 '최고존엄 노린 잠입')'는 '선전포고이며 對北 적대시 정책·반통일 대결책동의 최절정'이라며 '모략의 소굴들을 흔적도 없이 짓뭉개버릴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극악한 살인 악당들을 무자비하게 박멸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의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한 '보수세력 규합, 재집권' 움직임은 "민심의 사형선고를 받은 산송장들을 긁어모아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보려는 필사적 몸부림"이라며 "보수패당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려야 마땅하다"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역사의 수레바퀴는 돌려세울 수 없다)

05.15.(월)

■ 韓美의 '북핵·미사일 위협' 발언과 무력증강 거론 "특수작전, 對北 선제타격과 같은 무분별한 침략계책을 정당화하고 새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파렴치한 망동"이라며 "설익은 도발로 차례질 것은 비참한 자멸밖에 없다"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전쟁 부나비들의 부질없는 추태)

05.16.(화)

■ "5.16 군사 쿠데타는 남조선을 친미 파쇼독재의 암흑천지로 전변시키고 인민들의 민주화 투쟁을 짓밟은 용납 못할 범죄 행위"라며 "민심의 요구를 거역하는 역사의 반동들은 유신 독재자와 박근혜와 같은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파쇼 독재광들의 멸망은 역사의 필연이다)

■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전우회' 출범에 대해 '매국 역적들의 역스러운 추태'라며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 침략군을 한시바삐 몰아내고 매국 역적들을 청산하기 위한 대중적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선동(중앙통신·노동신문/친미 역적들의 쓸개 빠진 망동)

32) 오그랑수 : 『북한어』 겉과 속이 다른 말이나 행동으로 나쁜 일을 꾸미거나 남을 속여 넘기려는 수법.

■ 美 하원의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 채택 관련 우리 정부의 환영 입장(단호한 북핵 대응 의지 등) 표명에 대해 '괴뢰 보수패당은 한시도 살려둘 수 없는 민족의 화근, 매국배족의 무리'라며 "남조선 인민들이 역적 무리들을 이 땅에서 깨끗이 쓸어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중앙통신·민주조선)

05.17.(수)

■ 韓美 정보당국의 '최고수뇌부를 노린 테러 음모는 우리(北)의 제도붕괴를 실현해 보려는 어리석은 획책'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이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무모한 망동)

■ 자유한국당과 친박들의 지난 19대 대선 계기 '보수세력 규합(자유한국당 탈당 의원들 복당 등) 움직임'은 '파멸의 낭떠러지에서 살아나보려고 발악하는 산송장들의 역겨운 망동'이라고 조소 및 '새 정치, 새 생활을 안아오려는 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의지이며 열망'이라 주장(중앙통신·민주조선)

05.18.(목)

■ 【「아시아태평양 평화위」 대변인 담화(5.18.)】 '화성 12형'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NSC 소집·규탄과 '새 정부에 대한 시험' 발언에 대해 "새로 집권한 남조선 당국이 이번 시험발사의 사변적 의의를 외면하고 무턱대고 외세와 맞장구를 치며 온당치 못하게 놀아대고 있다", "자위력 강화조치는 美 행정부가 교체되고 南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중단되거나 속도가 늦추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 및 "존엄과 체제에 도전해 나서는 자들은 누구든 추호의 자비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민화협」 대변인 담화(5.18.)】 5·18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 관련 "광주 열사들의 원한과 분노는 정권이 바뀌어졌다고 하여 그들이 바라던 뜻이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며 "촛불투쟁 정신으로 친미 파쇼 무리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 나가야 한다"고 선동(중앙통신·중앙방송)

* 5·18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 관련 "미국과 괴뢰 역적패당 때문에 근 40년 세월이 흘렀지만 자주화·민주화된 사회, 통일된 조국에서 살려는 염원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새 세상을 안아오기 위해 광주항쟁 용사들의 투쟁정신으로 힘 있게 떨쳐나서자"고 선동(중앙통신·노동신문/살인마, 독재광들의 죄악은 반드시 결산된다)

05.19.(금)

■ "외세에 추종하며 동족을 불신하고 적대시하던 낡은 시대와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통일의 동반자로 함께 손잡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북남관계와 통일운동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였던 유신 독재자의 만고죄악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05.20.(토)

■ 특이동향 없음.

05.21.(일)

■ 北, 난수방송(올해 17회째, '16.6.24. 부터 현재까지 총 37회) 실시(평양방송)

* 5월 7일 내용 재방송

■ 美 CIA 코리아 임무센터 설립과 우리의 신형 정찰기 실전배치 계획 관련 "제도 전복과 북침전쟁 도발을 노린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도발행위"라며 "韓美의 정탐 모략기구들을 짓뭉개버리기 위한 반테러 타격전이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정탐 모략군들을 가차 없이 징벌할 것이다)

05.22.(월)

■ 대통령의 미·중·일·러 등 주요국 특사단 파견 관련 "사대와 외세의존의 악습을 털어버리고 반민족적인 대미추종 정책과 결별할 때 남북관계 개선의 활로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자들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외세의존 책동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외세의존은 치욕과 굴종, 망국의 길이다)

* "정세가 복잡하고 첨예한 때일수록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문제 해결에서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것은 민족문제 해결의 근본원칙"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대미 굴종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중앙통신/대미 굴종 정책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 우리 언론의 '랜섬웨어 北 배후설' 보도에 대해 '초보적인 판별능력도 없는 저능아들의 나발'이라며 "보수패당과 사이비 언론들은 역적 무리들에 대한 우리(北)의 무자비한 징벌 의지를 똑똑히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유치하기 짝이 없는 모략 날조 소동)

* '랜섬웨어 北 배후설' 보도에 대해 '북남관계 개선 요구를 막아보려는 보수 패거리들의 흉계를 따른 것'이라며 '이번 북 배후설을 꾸며낸 자들은 마땅히 죄과를 청산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상습적인 모략꾼들의 북 배후설 소동)

05.23.(화)

■ 최근 남한 당국이 "미국과 주변 국가들과 전화외교·특사외교 놀음을 벌려놓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등 언급은 괴뢰 보수정권 시기의 적대행위들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을 원한다면 외세추종과 동족대결은 자멸의 길이라는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 주장(중앙통신)

■ '5.18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 관련 "광주열사들의 원한을 풀고 그들의 넋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길은 남조선에서 친미매국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통치를 끝장내는 데 있다"며 '反美 자주화·反보수 투쟁' 선동(중앙통신)

■ 6월 동해에서 칼빈슨·로널드 레이건호의 합동훈련 추진 및 韓美 해군의 연합 해양작전본부 출범(1월) 관련 KBS 방송 및 연합뉴스 인용 비난(중앙통신·중앙방송)

05.24.(수)

■ 자유한국당 등이 "現 정부의 적폐 청산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들을 청산하는 것이 새 정치, 새 생활에 대한 선결과제"라고 선동(노동신문/한시바삐 청산해야 할 범죄 집단)

05.25.(목)

■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5.25.)】 우리 군의 '미상(未詳) 비행체' 경고사격(5.23.)에 대해 "새 무리를 보고 우리(北)를 향해 기관총탄까지 난사했다"고 주장하며, "이번에 감행한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의 정세를 대결국면에 못박아두려는 불순한 속내의 연장"이라고 비난(중앙통신)

- "남조선 괴뢰들은 강원도 철원 최전방 지역 상공에서 날아가는 새 무리를 보고 무턱대고 우리 측을 향해 경고방송을 불어대고 450여 발의 기관총탄까지 난사해대며 소란을 피웠음"

■ 【「민화협」 대변인 담화(5.25.)】 자유한국당과 우리 언론의 대북발언(일관된 제재와 압박, 남북관계 대화로 푼다는 것은 환상 등)에 대해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에 대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반민족적 망동"이라며 "남조선 인민들은 보수패당을 매장해 버리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선동(중앙통신)

■ 北, "박근혜에 대한 첫 공식 재판이 2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다"며 우리 언론 및 외신을 인용해 박근혜 前 대통령 첫 공판 소식 보도(중앙통신·노동신문)

05.26.(금)

■ 北, 난수방송(올해 18회째, '16.6.24. 부터 현재까지 총 38회) 실시(평양방송)

■ '5.18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9년 만에 제창된 것은 "파쇼독재 통치를 끝장내고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이 안아온 승리"라며 "친미보수 세력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은 끝장을 볼 때까지 강도 높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선동(중앙통신·노동신문/친미보수 세력 청산에 민주화 실현이 있다)

05.27.(토)

■ 【「조선 평화옹호 전국 민족위」 대변인 성명(5.27.)】 사드배치 관련 "남녘땅을 미국의 세계제패 전략 실현을 위한 전초기지·군사기지로 내맡기는 매국 배족적 망동, 대국들의 핵전쟁 마당으로 만들고 대참화를 불러오는 역적 행위, 정의의 핵 보검을 없애려는 반민족적 범죄"라며 "사드배치를 허용한다면 민심의 버림과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중앙통신)

■ "남북관계가 개선되려면 외세와 공조하여 동족과 대결하는 반민족적 망동이 끝장나야 한다"며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 유일한 출로는 6.15·10.4 선언을 이행하는데 있다"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동족대결의 악순환을 끝장내야 한다)

■ 北, "南 무인정찰기(헤론) 1대가 서해에서 4차에 걸쳐 북측 영공 깊숙이 침범하는(5.26, 07:46~20:40)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남북관계 개선 요구를 차단하고 미국의 대북 침략책동에 편승하여 북침 도화선에 불을 달아보려는 간악한 흉계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중앙방송)

05.28.(일)

■ 대통령의 미·중·일·러 등 주요국에 특사단 파견 관련 "외세를 중시하고 그와 공조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북남관계에 백해무익하다"며 "남조선 당국은 외세의 문을 두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동족의 노력에 호응해나서야 한다"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외세 의존병을 털어버려야 한다)

05.29.(월)

■ 「통일 준비 위원회」 존속 움직임에 대해 "통일문제를 대하는 현 남조선 당국의 입장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며 "극악한 동족대결의 산물인 모략기구의 간판이나 바꾸어달고 박근혜 패당의 대결 정책을 연장하려 한다면 그 누구든지 선임자와 같은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해체 주장(중앙통신/절대로 간판문제가 아니다)

■ 남한이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의 북한 소행설을 주장(연합뉴스·KBS 등)했다가 망신당했다"며 '남한에서 발생하는 해킹사건 대부분이 자작극이고, 정보원은 해킹범죄 주범'이라고 지난 시기 '北 소행·배후설·北위협(농협 전산망 마비사태·천안함 폭침 등)' 전면 부인(중앙통신)

* 「통일준비위원회」 존속 논의에 대해 "남북간 불신과 대립이 하루빨리 해소되고 관계 개선이 추진되어 자주통일의 새 국면이 열리기를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거스르는 반통일적 행위,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해체'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체제대결 기구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 남한 광주 병원에서 '메르스' 감염 판명 환자(男) 발생, MBC 방송 인용 보도(중앙통신)

05.30.(화)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출입기자 간담회(5.22.) 대북발언(하고자 했던 것은 평화통일, 북핵 위협 때문에 비핵화에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등) 관련 "새 정권 하에서도 동족 대결정책이 계속 이어지게 하려는 술책이 깔려있다"고 비난하고, "그가 누구이든 외세추종, 동족대결에 광분한다면 인민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속이 캥긴 자의 어이없는 푸념질)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촛불민심은 사드배치 철회를 강력히 외치고 있으나 南 당국은 민심과는 반대로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사드배치를 허용한다면 민심의 버림과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사드배치 철회는 민심의 강력한 요구)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대통령 기록물 국가기록원 이관 관련 "범죄의 역사를 통째로 흑막 속에 묻어버림으로써 南 인민들의 무자비한 심판에서 벗어나 보려는 흉책"이라며 "촛불은 더 거세찬 횃불이 되어 타오르게 될 것"이라고 선동(중앙통신/횃불로 타오르게 될 것이다)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보수 정당들의 분란 관련 "대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여전히 민생은 안중에 없이 당리당략과 권력욕에 환장"하고 있다며 "나라와 민족,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장래를 위해 보수청산이 급선무"라고 주장(중앙통신/보수청산이 급선무이다)

05.31.(수)

■ "남조선이 오늘과 같은 극심한 위기와 난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타개책은 북남관계 개선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우리(北)는 앞으로도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유일한 타개책은 북남관계 개선에 있다)

대외동향

05.01.(월)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알바니아 대통령 당선자 '일이르 렉스헤프 메타'에게 4월 30일 축전(중앙통신)

■ 【「외무성」 대변인 담화(5.1.)】 미국의 새 대북정책과 칼빈슨호 한반도 재배치 관련 "우리(北)는 미국의 그 어떤 선택에도 기꺼이 대응해 줄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며 "우리의 핵무력 고도화 조치는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다발적·연발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중앙방송)

■ 【주요인물 동정】

□ 재일본 조선청년동맹 일꾼 대표단(단장 : 조명진 부위원장), 5월 1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 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본 조선인 의학협회 대표단(단장 : 강경 부회장), '제19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 의학과학 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해 5월 1일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05.02.(화)

■ "미제는 5월 1일 핵 전략폭격기 B-1B 편대를 남조선 지역 상공에 끌어들여 핵폭탄 투하훈련을 벌려놓는 용납 못할 군사적 도발을 또다시 감행하였다"며 "우리(北) 군대는 미제가 선택하는 모든 형태의 전쟁에 대응할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놈들의 군사적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위협(중앙통신)

■ 트럼프 행정부의 對北 압박 관련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이나 그 어떤 전쟁에 대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타협하는 길로 나오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고 주장하며 "우리(北)에 대한 군사적 도발은 곧 전면전쟁이며, 전면전쟁은 그대로 미국의 종국적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어있다"고 위협(중앙통신·민주조선)

■ 日 집권자와 각료들의 '한반도 위기설(미국의 시리아 선제타격 계기) 고취 속심'은 "헌법 수정을 다그쳐 자위대 해외파병 박차, 조선전쟁 때처럼 황금 소나기를 맛보려는데 있다"며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일본이 제일 먼저 방사능 구름으로 뒤덮일 것"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스스로 파멸을 재촉하는 무모한 망동)

■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장애자권리 담당 특별보고자(단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귈라르) 일행, 5월 2일 평양 도착(중앙통신)

■ 駐北 몽골 대사(수렌긴 초그게렐)·대사관 성원들, 5월 2일 조선혁명박물관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선(김일성·김정일기금 이사회 이사), 5월 2일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05.03.(수)

■ 중국의 對北 압박 등 관련 "그가 누구이든 우리(北)의 핵보유 노선을 변화시킬 수도 없으며, 朝中 친선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해도 핵과 맞바꾸면서까지 구걸할 우리가 아니다"며 "중국은 더 이상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중앙통신/조-중관계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무모한 언행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 미국 공민 '김상덕'(평양 과기대 회계학 초빙 교수)이 '국가를 전복하려는 적대적인 범죄행위'를 하여 평양 국제비행장(4.22.)에서 단속하여 "해당 법 기관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중앙통신)

■ 北 리길성(외무성 부상), 김일성 생일 105주년을 기념해 駐北 몽골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 5월 3일 진행(중앙통신)

- 두 나라 사이의 친선 협조관계를 현 정세 하에서 계속 좋게 발전시키며 외무성들 사이의 대표단 교류를 적극 활성화해 나갈 의향 표시

■ 駐北 폴란드 대사관, 自國 헌법절 즈음 5월 3일 연회 마련(중앙통신)

- 한성렬(외무성 부상), 김인범(문화성 부상) 등 초대

■ 日 오사카 日-朝 우호대표단, 만경대 방문 및 주체사상탑·문수 물놀이장·미림 승마구락부 등 참관(중앙통신)

■ 【주요인물 동정】

□ 리용호(외무상), 모로코 왕국 신임 외무 및 협조상 '나쎄르 부리타'에게 4월 27일 축전(중앙통신)

* 리용호(외무상), 폴란드 국경절 즈음 同國 외무상에게 5월 3일 축전(중앙통신)

05.04.(목)

■ 주영길 직총 대표단 단장, 쿠바 국가이사회 위원장 '라울 카스트로 루쓰'와 외무상 및 쿠바 근로자중앙 총서기 5월 1일 접견(중앙통신)

■ 【「북침 핵전쟁 연습반대 전민족 비상대책위」 대변인 담화(5.4.)】 한미 연합 해상훈련(칼빈슨호, B-1B, 이지스함 참가) 실시 관련 "아직도 핵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따위로 우리(北)를 놀래워보려고 한다면 오산"이라며 "우리는 전쟁이 시작되고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전이 개시되면 침략의 본거지들을 모조리 초토화 해치우고 생존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게 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

■ 트럼프 행정부의 '김정은 제거' 훈련 실시에 대해 '천추에 용납 못할 국가테러 행위이며 노골적인 선전포고'라며 "우리(北)의 최고 존엄을 어째보려는 자들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 모조리 찾아내어 죽탕쳐 버리려는 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철석의 의지"라고 주장(중앙통신·민주조선)

■ 강하국(보건상),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장애자권리 담당 특별보고자(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귈라르)와 5월 4일 담화(중앙통신)

■ 【주요인물 동정】

□ 日-朝 우호 대표단(단장 : 오노 스스무), 5월 4일 귀국(중앙통신·중앙방송)

05.05.(금)

■ 【「외무성 미국연구소」 대변인 담화(5.5.)】 미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발사(5.3.)는 '이중기준의 극치'라고 비난하며 이를 '함구무언한 유엔 안보리 개혁' 주장(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이 하면 평화와 안전에 대한 '기여'로 되고 조선이 하면 '도발'로서 긴장을 격화시킨다는 미국의 궤변은 이중기준의 극치이며, 유엔 안보리가 미국을 문제시하지 않는 한 우리의 탄도로켓 발사를 걸고드는 그 어떤 '결의'도 인정하지 않을 것임"

■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보고서(5.5.)】 미국이 정치, 경제, 군사적 압박을 극대화하며 대화를 운운하는 것은 '치졸한 양면술책'이며 비핵화를 운운하는 자체도 "우리를 핵무장 해제시켜 침략전쟁의 길을 열어보려는 강도적인 속심의 발로"라며 '미국의 전쟁도발 책동 폭로, 北 핵무력 대응' 강조(중앙통신)

* 北 인민군대와 자위적 억제력은 '무적의 강군, 억년 재부'라며 미국의 군사적 압박(핵 항공모함 타격단 파견 등)에 "최후 성전의 불벼락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세계를 경탄시키는 백두산 혁명 강군의 무적의 위용)

■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대답(5.5.)】 美 '코리 가드너(美 상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의 김정은 당 위원장을 '발광하는 미치광이' 등 비난(5.3, NBC 방송 인터뷰)에 대해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라며 '몸서리치게 후회하게 될 것' 위협(중앙통신)

■ 北 외무성 대표단(단장: 신홍철 부상), 5월 5일 일부 아랍 국가들 순방(*알제리 등) 후 귀환(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본 조선 청년동맹 일꾼대표단, 만경대 방문 및 조선혁명 박물관·만경대 학생소년 궁전·청년운동 사적관 등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 시리아 체육 총동맹 대표단(단장: 무와파크 타우피크 쥼아 위원장), 5월 5일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05.06.(토)

■ 'KR/FE 합동 군사연습' 관련 "적대시 정책과 북침 불장난 소동에는 강위력한 군사적 보복 대응전으로, 국가 테러행위에는 백악관과 청와대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타격전으로, 핵전쟁위협 소동에는 선제적인 핵공격능력 강화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극악무도한 호전적 흉계를 드러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연습)

■ "트럼프 행정부의 對北 정책이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별로 다르지 않다"며 "무모한 군사적 광증을 부리고 강도 높은 제재압박에 매달리는 조건에서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우리(北)의 발걸음도 최대로 빨라질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미국은 우리 천만군민의 불굴의 의지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北 국가보위성 주장(테러를 감행할 목적 밑에 北 공민 테러범으로 매수, 5.5.) 관련 '미국은 원천적인 테러국가'라고 규정, "공화국에 대한 특대형 국가정치테러 행위의 막후 조종자로서 그 엄중성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테러범죄에 책임 있는 중죄인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중앙통신·평양방송/정의의 반테러 타격전으로 대응할 것이다)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조선반도 정세는 반세기가 넘는 조미 대결역사상 최악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조선이 취하는 모든 군사적 조치들은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핵 공갈과 위협, 반공화국 고립 압살책동에 대처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주권행사"라고 주장(중앙통신/조선의 의지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 '日 정부,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숨기려고 관련 보고서 홈페이지에서 삭제' 관련 "특유의 철면피성과 간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침략역사 부정과 왜곡행위가 자멸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망동)

■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장애자 권리담당 특별보고자와 일행, 옥류 아동병원·과학기술전당·조선 장애어린이 회복원·문수 기능회복원 등 5월 6일 참관(중앙통신)

■ 시리아 대통령(바샤르 알 아싸드), 김정은 당 위원장의 '아랍 사회부흥당' 지역비서 재선 축전 관련 5월 4일 답전(중앙통신)

■ 【주요인물 동정】

□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단장: 려광시), 5월 6일 귀국(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본 조선인 의학협회 대표단(단장: 강경부 회장)과 재미동포 의학자 대표단(단장: 박기범), '평양 의학과학 토론회' 참가 후 5월 6일 귀국(중앙통신·중앙방송)

05.07.(일)

■ 北, 미국인 '김학송'(평양 과학기술대학 운영 관계자)을 '반공화국 적대행위' 혐의로 5월 6일 억류(중앙통신)

- 현재 해당 기관에서 김학송의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北 체육성과 시리아 체육 총동맹 사이의 '체육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에 관한 합의서', 5월 7일 평양에서 조인(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일국(체육상), 시리아 체육 총동맹 대표단과 5월 7일 담화(중앙통신)

■ 박봉주(내각 총리)·리용호(외무상), 신임 불가리아 수상·외무상에게 5월 6일 각각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주요인물 동정】

□ 김일성·김정일 기금이사회 이사(김선), 5월 7일 귀국(중앙통신·중앙방송)

05.08.(월)

- 지난 1년간 국제무대 현실은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세력의 횡포에 국제관계 기본원칙들이 무너지고 정의도 부정의로 범죄시되는 사태들이 빚어졌다"며 "국제적 정의는 힘이 강할 때만이 실현될 수 있다"고 '핵 선제공격 능력 강화' 강조(중앙통신)

- 美 핵잠수함 '미시간'호 부산항 입항은 "또 다시 북침전쟁 도발책동 광분, 우리(北)를 노골적으로 위협공갈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난 및 '핵무력 질량적 강화 대응'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미제의 핵전쟁 범죄는 국제사회의 규탄배격을 면치 못한다)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5월 8일 시리아 체육총동맹 대표단과 담화 및 '김정은 선물' 인수(중앙통신·중앙방송)

  * 시리아 체육총동맹 대표단, 만경대 방문 및 청춘거리 체육촌 경기관들과 평양 체육기자재 공장 등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 駐北 무관단, 5월 8일 '김정은 당 위원장' 추대('16.5.9.) 1주년 즈음 꽃바구니·축하 편지를 박영식(인민무력상) 통해 김정은 당 위원장에게 전달(중앙통신)

- 北 직총 대표단(단장 : 주영길 위원장), 5월 8일 쿠바(세계 직업연맹 위원장 이사회 회의 참가)에서 귀환(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본 조선 청년동맹 일꾼 대표단, 5월 8일 평양 출발(중앙통신·중앙방송)

05.09.(화)

- 美 국무장관 등의 對北 발언(경제 및 외교적 봉쇄로 핵 포기하도록) 거론 "누가 뭐라고 하든 핵 억제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당당한 핵 보유국이라는 인식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며 '대북정책 재검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이성을 잃은 자들의 부질없는 객기)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에마뉘엘 마크롱)에게 5월 8일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日 아베, 美 對北 군사적 선택 높이 평가' 발언 관련 "평화헌법의 모자를 벗어던지고 전쟁국가에로의 돌파구를 열어제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미국의 위기수준을 좀 더 높여달라고 요구해 나서고 있다"며 "제2의 조선전쟁은 일본에 핵 소나기, 불소나기를 들씌우게 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5.2.~9.) 활동소식을 전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법제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 일꾼들을 만나 장애자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협의했다"고 주장(중앙통신)

  * 유엔 장애자 인권 특별보고관(카타리나 데반다스 아기라), 5월 9일 평양 출발(중앙통신)

■ 駐北 러시아 대사관 성원들, 自國 '전승절' 72주년을 맞아 '해방탑'에 헌화(중앙통신·중앙방송)

- 駐 청진 러시아 총영사관 성원들도 청진시 소련군 열사묘에 꽃다발 진정

■ 駐北 독일·폴란드 대사, '유럽의 날' 즈음 김선경(유럽2국 국장)을 비롯한 외무성 일꾼들을 초대한 가운데 5월 9일 공동 연회 마련(중앙통신·중앙방송)

■ 【주요인물 동정】

□ 시리아 체육총동맹 대표단(단장: 무와파크 주마 위원장), 5월 9일 귀국(중앙통신)

05.10.(수)

■ 주한미군의 '美 국적 민간인 해외 대피 훈련' 실시 계획(6월) 발표에 대해 "북침 전쟁 도발의 전주곡을 울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미제가 한반도에서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는 경우 우리(北)의 무자비한 섬멸적 타격으로 남조선은 물론 미국 본토도 무사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북침 전쟁도발의 위험한 전주곡)

■ 러시아 자유민주당 위원장(쥐리놉스키), 김정은 당 위원장에게 4월 25일 '인민군 창설' 85주년 축전(중앙통신)

■ 주북 루마니아 임시 대리대사와 성원들, 自國 독립절 140주년에 즈음하여 5월 10일 대동강 맥주공장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05.11.(목)

■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대답(5.11.)】 '범죄자들(反北 범죄행위)을 법대로 다스리는 것은 주권국가의 당당한 권리 행사'라며 '범죄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美 언론들의 '北, 미국인들 억류' 관련 보도('미국인들 인질로 납치, 협상 흥정물·인간방패로 이용' 등) 일축(중앙통신)

■ 北 외무성, 韓·美 정보당국의 '北 최고수뇌부 대상 국가테러 감행' 관련 駐北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을 위한 정세통보 모임(5.11, 인민문화궁전) 조직(중앙통신·중앙방송)

- 한성렬(외무성 부상), "韓·美 정보당국의 北 최고수뇌부를 노린 특대형 테러음모 행위를 극비밀리에 추진시켜온데 대해 자료적 폭로 및 우리식의 반테러 타격전은 즉시에 다발적으로 강도높이 개시될 것" 강조

■ 김복성(北 국제문제연구원 군축연구소 연구사), 美 트럼프 행정부의 對北 정책 '최대의 압박과 관여'는 "지난 세기 제국주의자들의 '포함외교'를 연상케 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北)에게는 영원히 통할 수 없다"고 '수소탄 보유 등 자위적 핵억제력' 과시(중앙통신·평양방송/통할 수 없는 《포함 외교》)

■ 최근 '중국과 인도가 군비경쟁과 지지세력 쟁탈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자기의 전략적 이익수호를 위한 최선의 방도를 자체의 핵무력 강화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北의 핵 억제력 강화 정당성' 강변(중앙통신·노동신문/대국들의 군비경쟁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 「조선중앙통신사」 비망록(5.11.), 미국의 '對北 국가테러 행위(제도전복 정치테러·경제제재·군사적 압박 강화) 감행' 주장과 '전대미문의 대참패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자위적 전쟁 억제력 계속 강화 및 미국의 정책 전환'을 주장(중앙통신)

■ 일본의 2017년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영토강탈 야망이 골수에 꽉 찬 자들의 날강도적 행위'라고 규탄 및 '일본의 재침 야망, 대동아공영권 실현 추구' 경각심 고취(중앙통신·노동신문/독도 강탈 야망을 버리라)

■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단장: 차려숙), 5월 11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05.12.(금)

■ 【「최고인민회의 외교위」 항의 서한(5.12.)】 '對北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 채택 관련 美 국회 하원 앞으로 항의 서한을 보내 "對北 적대시 법안들을 만들어 낼수록 핵 억제력 강화속도는 상상할 수 없이 빨라지게 될 것"이라며 "현 사태의 본질을 바로 보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이성적으로 행동하라"고 촉구(중앙통신·중앙방송)

■ 【「駐 유엔 北 상임대표부」 공보문(5.11.)】 '최고 수뇌부 테러범 검거' 주장 관련, "미국이 남조선 당국과 함께 최고 수뇌부를 해치려고 군사적 모험에 매여 달리다 못해 테러 음모까지 꾸몄다"며 "유엔과 유엔 성원국들은 범죄자 처벌 등 우리식의 反테러 타격전을 지원하는데 적극 호응해 나오라"고 주장(중앙통신)

■ '글로벌 호크' 駐日 미군기지 배치 및 '미니트맨-3' 시험발사 등 거론 '조선반도 긴장 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는 엄중한 도발행위'라며 '침략과 전쟁의 원흉, 평화의 파괴자'라고 비난 및 '핵 공격능력 강화 발전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조선반도 정세 격화의 주범은 누구인가)

05.13.(토)

■ 【北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 「자금세척 방지에 관한 금융행동그룹」에 편지(5.12.)】 "이번에 테러음모 행위가 제때에 적발 분쇄될 수 있은 것은 자금세척과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규정을 엄격하게 제정하고 철저한 시행을 위한 국가적인 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운영해온 결과"라며 '기구측이 호소에 관심을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중앙통신)

■ 【「駐 유엔 北 상임대표부」 공보문(5.13.)】 유엔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북제재 이행 강화를 촉구한 것에 대해 '광란적인 적대시책동'이라며 "유엔은 제재 이행을 강요하기

전에 우리(北)가 요구하는 연단에서 그 적법성 여부가 해명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

- 韓美 연합 해상훈련(칼빈슨호, B-1B, 이지스함 참가) 실시 관련 '새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위험천만한 흉계의 발로'라며 "우리(北)는 한반도를 핵전쟁의 불도가니 속에 몰아넣으려는 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며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것"이라고 위협(노동신문·중앙통신/북침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모험적 망동)

-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北)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는 배가해 질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에게서 핵 포기를 추호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를 절대로 막지 못한다)

- 北 정부 대표단(단장: 김영재 대외경제상),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 정상포럼'(5.14~15, 중국)에 참석하기 위해 5월 13일 중국 방문(중앙통신)

- 몽골 인민혁명당 위원장(엔흐바야르), '김정은 당 위원장 추대' 1주년에 즈음하여 김정은 당 위원장에게 5월 8일 축전(중앙통신)

  * 쿠웨이트 아시아 기자협회, '김정은 당 위원장 추대' 1주년에 즈음하여 김정은 당 위원장에게 '업적 증서' 전달(중앙통신)

05.14.(일)

- 日 아베 총리 발언(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안보환경이 변화되었으므로 현행헌법 수정) 및 자위대의 美·英·프랑스와 합동 군사연습 실시에 대해 "지역정세를 계속 악화시키며 그를 구실로 해외팽창 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음흉한 침략기도"라고 비난 및 '先 과거반성' 충고(중앙통신·노동신문/해외팽창 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음흉한 기도)

- 김정은 당 위원장, 시리아·적도기니·콩고 대통령의 '김일성 생일(4.15.)' 축전에 대한 답전 발송(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5월 14일 캄보디아 국왕(노로돔 시하모니)에게 64세 생일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05.15.(월)

- 【「국제문제연구원 법률연구소」 소장 담화(5.15.)】 美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 거론 "계속 광기를 부린다면 파국적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싶다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문제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기여하는 길을 택하라"고 주장(중앙통신)

- 「국가 비상 재해위」 대표단(단장: 강일섭 위원장), '재해위험 감소를 위한 세계연단'에 참가하기 위해 5월 15일 멕시코로 출발(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자연보호연맹」과 「뉴질랜드 미란다 자연기금」, 서해 연안 철새 공동조사 진행(중앙통신)

- "남포시 온천군과 평안북도 철산군, 동림군, 선천군, 곽산군 연안 일대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이 지역들에 날아와 도중 서식하는 도요[33]류들이 총 30여 종에 3만 8,700여 마리이며, 물새들이 20여 조에 6,000여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확인"
- "철새 보호를 위한 공동 조사 사업은 2020년까지 계속될 것"

■ 【주요인물 동정】

□ 스웨덴 공산당 대표단(단장: 로베르트 마티아쏜 위원장), 5월 15일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단장: 리청자), 5월 15일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05.16.(화)

■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5.16.)】 유엔 안보리의 '北 탄도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 만장일치 채택(5.15.)에 대해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며 "세계에서 완성된 무기체계가 결코 미국의 영원한 독점물로 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北)도 상응한 보복수단을 쓸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외무성, 駐北 아세안 국가 외교관들을 위한 '정세 통보 모임' 5월 15일 진행(중앙통신)
  - 駐北 베트남·라오스·인도네시아 대사 및 캄보디아 임시 대리대사 참석
  - 박정학 외무성 아시아 2국 국장이 "최근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과 그와 관련한 조선의 원칙적 입장"을 통보
  - "'화성 12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중대하고도 특별한 의의를 가짐."
* "화성 12형 시험발사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데 대한 엄정한 경고"라며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핵무기들과 핵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어나가며 필요한 시험 준비를 더욱 다그쳐 나간다는 것이 우리(北)의 입장"이라고 주장(중앙통신/제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데 대한 경고)

■ 트럼프 행정부의 '北 위협' 주장에 대해 "핵 위협 공갈의 가해자,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려고 날뛰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며 "미국이 기어이 핵전쟁을 걸어온다면 우리(北)는 우리 식의 핵 타격전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미국의 케케묵은 위협 나발은 통할 수 없다)

■ 국제문제연구원 아시아연구소, 일본의 '北 위협, 한반도 위기설' 주장에 대해 '군사대국화, 해외 침략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대의명분을 마련하자는 흉심'이라며 "일본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수행의 돌격대로 나서다가는 우리(北) 혁명무력의 무자비한 징벌로 온 일본 땅이 잿더미로 화하는 패배만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일본은 미국의 불장난 소동에 키질하지 말아야 한다)

33) 도요 : '도요새'의 옛말.

■ 리수용(당 부위원장), 스웨덴 공산당 대표단(단장: 로베르트 마티아손 위원장)과 5월 16일 담화(중앙통신·중앙방송)

■ 【주요인물 동정】

□ 스웨덴 안전 및 개발정책연구소 대표단(단장: 니클라스 스반스트림), 5월 16일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 몽골 대외관계성 대표단(단장: 브. 바트체체그 부상), 5월 16일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동포 조국 방문단(단장: 박영기 총련 부국장), 5월 16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05.17.(수)

■ "미국의 '反北 정보 모략책동 강화(주한 미군 '대북 정보부대' 활동 재개 움직임 등)'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정책이 결국 우리(北) 수뇌부 제거와 제도전복을 노린 국가테러정책 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난하며, "정탐 모략과 적대행위를 하다가 적발 체포된 자들은 준엄한 징벌을 면치 못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어리석은 개꿈을 꾸지 말라)

■ 나진↔블라디보스토크 국제관광선(北-러 공동운영) '만경봉'호 출항식, 5월 17일 나진항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北-러 사이의 해상 교통운수뿐 아니라 경제협조와 관광업을 발전시키는데 적극 기여할 수 있게 됐음"

■ 전 세계적 '랜섬웨어' 공격사건으로 150여 개 나라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소개(노동신문)

■ 리길성(北 외무성 부상)-'브. 바트체체그'(몽골 대외관계성 부상) 회담, 5월 17일 평양에서 진행 및 '친선 협조관계 강화' 등 의견교환(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5월 17일 駐北 캄보디아 대사(씬 분트언) 신임장 접수(중앙통신·중앙방송)

* 캄보디아 푼씬뻬크당 위원장(노로돔 라나리드), 5월 10일 자국 주재 北 대사 통해 '김정은에게 당 위원장 1주년' 즈음 축전 전달(중앙통신)

■ 평양 장애자 교류단(단장: 김문철 장애자보호연맹 중앙委 위원장), '영국 공연' 위해 5월 17일 평양 출발(중앙통신·중앙방송)

■ '2017년 아시아 레슬링 선수권대회(인도 뉴델리)' 참가 北 선수들(김한성, 자유형 61kg급), 5월 17일 귀환(중앙통신·중앙방송)

05.18.(목)

■ 김선경 외무성 유럽2국 국장, 스웨덴(스톡홀름)에서 同國 외무성 국무비서와 5월 16일 담화(중앙통신)

-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려는 원칙적 입장 통보와 조선반도의 긴장한 정세를 완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려면 미국의 핵위협과 적대시 정책이 종식되어야 한다"고 강조

■ 리수용(당 부위원장), 몽골 대외관계성 대표단(단장: 브. 바뜨체체그 부상)과 5월 18일 담화(중앙통신·중앙방송)

* 몽골 대외관계성 대표단, 만경대를 방문하고 과학기술전당과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관 및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등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용호(외무상), 몽골 대외관계성 대표단과 5월 18일 담화(중앙통신)

05.19.(금)

■ '화성 12형' 시험발사를 거론하며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을 가질 때에만 횡포 무도한 제국주의와 맞서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지구상에 침략의 핵, 살육의 핵이 있는 한 우리(北)는 자위의 핵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폭제와 불의를 불사르는 자주의 핵 강국)

* '화성 12형' 시험발사 관련 "미국이 핵으로 우리(北)를 위협 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종식되었다"며 "이제는 미국이 우리에게 있어서 위협과 공포의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미국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과 공포로 되고 있다"고 주장(중앙통신/조선의 힘은 미국의 공포전략에 파멸을 선언한다)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카메룬 창건 45주년에 즈음하여 同國 대통령에게 5월 19일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적도기니 민주당 총비서, '김정은 당 위원장 추대' 1주년에 즈음하여 김정은 당 위원장에게 5월 11일 축전(중앙통신)

■ 스웨덴 공산당 대표단(단장: 로베르트 마티아손 위원장), 만경대 방문 및 조선혁명박물관 등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 【주요인물 동정】

□ 이탈리아 종합투자그룹 이사장(장카를로 엘리아 발로리), 5월 19일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 몽골 대외관계성 대표단(단장: 브. 바트체체그 부상), 5월 19일 귀국(중앙통신)

05.20.(토)

■ 【「외무성」 대변인 담화(5.19.)】 북한의 '화성 12형' 탄도 미사일 발사 관련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을 비난하며 "미국이 국제여론을 오도하면서 우리(北)에 대한 무모한 압박의 도수를 높일수록 핵 억제력을 억척으로 다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

■ 미국의 북한 '화성 12형'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대응('칼빈슨'호 韓美 연합 해상훈련 연장·'로널드 레이건'호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해 "우리(北)를 위협 공갈하려는 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다"며 "미제가 우리(北)를 건드린다면 사상 최대의 재앙을 면치 못할 것"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미국식 허세는 통할 수 없다)

* 北 '화성 12형'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일본 정부 반응(아베 총리, 北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 美·日 동맹관계 강화)에 대해서도 "조선의 막강한 위력과 전략적 지위에 질겁한 자들의 주제넘고 푼수 없는 삿대질"이라며 "일본도 우리의 타격권 안에 있다"고 위협(중앙통신)

■ 미국의 "국가테러 범죄의 집행자는 미국 중앙정보국"이라며 韓美 정보당국이 "北 최고 수뇌부를 해치기 위해 벌려놓고 있는 국가테러 행위는 우리(北)의 문지방을 넘어섰다"며 "우리는 특단의 선택도 마다하지 않을 것"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세계 최대의 국가테러 범죄국을 고발한다)

■ 日 극우인물들('나카타니 겐' 前 방위상 등)의 訪美 강연(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반도 정세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긴박한 상황·北의 日 위협 증대 등)에 대해 "국내외 여론의 지지를 얻어 군사대국화·재침 책동에 박차를 가해보려는 교활한 술책"이라며 '일본의 재침은 시간문제'라고 경종(중앙통신·노동신문/패망의 과거사를 잊지 말라)

■ 김선경(외무성 유럽2국 국장, 오스트리아 방문 中), 5월 18일 오스트리아 외무성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 국장과 담화(중앙통신)

■ 北 보건대표단(단장: 강하국 보건상), '세계 보건기구(WHO) 총회 제70차 회의(스위스 제네바)' 참가 위해 5월 20일 평양 출발(중앙통신·중앙방송)

■ 베트남·중국·대만·이탈리아 대표, '제20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 전람회' 참가 위해 5월 20일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 스웨덴 안전 및 개발정책연구소 대표단(단장: 니클라스 스반스트림 소장), 5월 20일 귀국(중앙방송·중앙통신)

– 방문기간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일꾼들과 한반도문제 관련 의견 교환, 국제문제연구원·사회과학원·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등 해당 기관 일꾼들과 담화

05.21.(일)

■ '화성 12형'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미국 땅에 핵 불소나기가 떨어지게 되었는데도 미국은 대북 압살타령만 늘어놓으며 무책임하게 놀아대고 있다"며 "미국이 대결을 고집한다면 앞으로 이 땅에서 미국을 타격할 주체탄들이 더 많이, 더 기운

차게 날아오르게 될 것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에 주는 대답"이라고 주장(중앙통신·민주조선)

■ 日 재무상 '아소'의 대북발언(상식도 없는 나라가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관련 "핵 억제력을 위험한 무기라고 묘사한 것은 저급한 판별력과 사물현상에 대한 몰이해를 스스로 광고한 무지스러운 추태"라며 "더 큰 망신과 수치를 당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비난(중앙통신/죄 많은 섬나라 족속들의 몰상식한 망발)

■ 리수용(당 부위원장), 이탈리아 종합투자그룹 이사장(쟝까를로 엘리아 발로리)과 5월 21일 담화(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재임 이란 대통령에게 5월 21일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콩고 당 총비서(지미 끼꼬니), '김정은 당 위원장' 추대 1돌 즈음 5월 6일 同國 주재 北 대사관 축하 방문(중앙통신)

- 베닌 사회주의당 위원장 '알리 후두', 同國 주재 北 대사관에 5월 9일 꽃다발

05.22.(월)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이탈리아 종합투자그룹 이사장(장카를로 엘리아 발로리)과 5월 2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중앙통신·중앙방송)

* 이탈리아 종합투자그룹 이사장, 5월 22일 김정은 당 위원장에게 선물 전달 및 만경대 방문(중앙통신·중앙방송)

■ 우크라이나 공산당 중앙위 제1비서(뻬. 엔. 시모넨코), '김정은 당 위원장 추대' 1주년에 즈음하여 김정은 당 위원장에게 5월 9일 축전(중앙통신)

■ 【주요인물 동정】

□ 스웨덴 공산당 대표단(단장: 로베르트 마티아손 위원장), 5월 22일 귀국(중앙통신·중앙방송)

05.23.(화)

■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5.23.)】 유엔 안보리의 北 탄도 미사일 '북극성 2형' 시험발사(5.21.) 규탄 '언론 성명'(5.22.) 전면 배격 및 이는 "핵무력의 다양화, 고도화를 더욱 다그치게 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중앙통신·중앙방송)

■ 사회주의는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놓치면 망한다"며 "사상 사업에서 양보는 곧 사회주의의 붕괴이며 종말이다"고 '△부르죠아 사상문화 침습 배격,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 발전, △사회주의 사상 교양사업 강화'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사상을 양보하면 사회주의를 지킬 수 없다)

■ 美 대통령과 국무·국방 장관 등 '北, 도발과 위협 장본인' 등 대북 비판에 대해 "힘의 과신에 빠져있는 미국은 우리와 마주앉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데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직 우리를 힘으로 누르려 하고 있다"며 미국을 '깡패국가·악마의 제국'이라고 비난(중앙통신·민주조선)

■ 이탈리아 종합투자그룹 이사장(장 카를로 엘리아 벌로리), 5월 23일 귀국(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단장: 박영기 '총련' 부국장·리청자), 5월 23일 평양 출발(중앙통신·중앙방송)

05.24.(수)

■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대답(5.23.)】 미국이 北 '만경봉'호 취항(나진-블라디보스토크) 관련 러시아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한 것'에 대해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북-러 경제협조는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공동의 이익에 맞게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게 될 것"이라 주장(중앙통신)

■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5.24.)】 '북극성 2형' 시험발사에 대한 韓美의 대응(경제·외교적 압박 지속, 만반의 대비태세 유지) 관련 미국의 '北 체제 보장' 발언은 '핵 보복타격 능력을 거세하기 위한 유치한 기만극'이라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압살 야망에 매달리는 한 핵무력의 다양화·고도화를 더욱 다그쳐나갈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우리의 국가 핵무력 강화의 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 美 CIA '코리아 임무센터' 설립 및 주한미군 첩보대대 신설 관련 "美 첩보기구들이 총 발동되어 정탐활동을 본격적으로 감행하려 하는 것은 공화국에 대한 가장 악랄한 도전이고 선전포고"라며 '우리 식의 反간첩 투쟁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주체의 핵 강국의 위력에 질겁한 자들의 비열한 망동)

■ '日, 美·영·프랑스와 해상 합동 군사연습' 등 관련 "미국과의 군사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공화국의 자주권과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일본 자신을 화약고로 만들어 자폭에로 몰아가는 위험한 길"이라고 주장 및 '올바른 처신' 촉구(중앙통신·민주조선)

■ '日, 유네스코 분담금 지불 보류' 입장 발표 관련 "일본군 성노예 범죄를 비롯한 과거 죄행자료들이 유네스코에 등록되고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것을 가로막기 위한 너절한 압박"이라며 "돈으로 만사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정치 간상배의 치졸한 속통)

■ 김선경(외무성 유럽2국 국장), 유럽 대외활동성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집행국장을 만나(5.22.) 北 - EU 관계문제 토의 및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의견 교환(중앙통신)

- "EU와의 관계와 관련한 입장을 통보하고 미국의 핵위협과 적대시 정책을 종식시키는 것이 한반도 문제 해결과 정세완화를 위한 선차적 문제"라는데 대해 강조
-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너즈 데바'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분과 위원장도 면담

■ 北 보건대표단(단장: 강하국 보건상), 부탄·스리랑카·몰디브·동티모르 보건상들과 보건 발전을 위한 쌍무협조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문제와 관련한 의견 교환(중앙통신)

- 대표단은 세계 보건기구 총회 제70차 회의(스위스 제네바, 5.22~31)에 참가 중

■ 【주요인물 동정】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에리트레아 독립 26주년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5월 24일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 총리)·리용호(외무상), 영국 맨체스터 폭탄테러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관련 同國 총리와 외무상에게 5월 24일 위문 전문(중앙통신·평양방송)

□ 리용호(외무상), 필리핀 신임 외무상(알란 뻬떼르 까예따노)에게 5월 17일 축전(중앙통신)

□ 北 기계체조 선수들, 제7차 아시아 기계체조 선수권대회와 제14차 아시아 청소년 기계체조 선수권대회 참가 후 5월 24일 귀환(중앙통신)

05.25.(목)

■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최대의 압박과 관여')에 대해 "미국이 최대의 압박에 대해 떠들든 최대의 관여를 들고 나오든 우리(北)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反공화국 압박과 제재봉쇄 책동에 매달린다면 우리 식의 핵공격 수단들을 다발적·연발적으로 쏴올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최대의 압박과 관여의 진상을 밝힌다)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요르단 독립 71주년에 즈음하여 同國 국왕(압둘라 2세)에게 5월 25일 축전(중앙통신·평양방송)

■ 【주요인물 동정】

□ 北 올림픽위원회 대표단(단장: 손광호 체육성 부상), '국제 역도연맹 총회'(태국)에 참가하기 위해 5월 25일 평양 출발(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 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단장: 아이치 조선 중고급학교 교장), 5월 25일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05.26.(금)

■ 한성렬(외무성 부상), 駐北 러시아 대사(알렉산드르 마체고라)와 5월 25일 담화(중앙통신)

- 現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관련한 의견 교환

■ 美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사회의 총의〉라는 날강도적 논리로 대북 제재압박 분위기를 조성하고('북한을 지지하는 그 어떤 나라도 제재할 것' 강박) 있다"며 이는 '유엔 위에 군림'이며 "주권국가에 대한 제재압박은 절대 국제사회의 총의로 될 수 없다"고 비난(중앙통신)

■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과 경제제재는 "멸망을 앞둔 자의 최후발악에 불과하다"고 조소 및 "우리(北)의 핵 타격수단들은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 안에 넣고 임의의 순간에 핵 불벼락을 들씌울 수 있다"고 '北-美대결 최후 승리'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조미대결전에서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 김선경(北 외무성 유럽2국 국장, 체코 방문 中), 5월 24일 체코 외무성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국장(마르틴 클레페트코)과 '쌍무 관계 발전문제 토의 및 한반도 정세 의견 교환' 등 면담(중앙통신)

■ 러시아 과학원 극동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상급 연구사(콘스탄틴 아스몰로브)와 일행, 5월 26일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 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단장: 전진성 규슈 조선 중고급학교 교장), 5월 26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05.27.(토)

■ 【「외무성」 부상 박명국 담화(5.26.)】 미국과 동맹국 일부 국가들의 '北, 탄도미사일 화성 12형·북극성 2형 시험발사 성공' 추가제재 논의·규탄 성명 발표에 대해 "정의와 원칙을 떠나서 미국의 요구라면 무턱대고 따르는 나라들에 대해 논의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않는다"며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 강조(중앙통신)

■ 새로운 대북 제재법안 美 국회 하원 통과 거론 "우리의 생존공간을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좁히고 국제적 압박의 도수를 최대로 높여 공화국을 압살해 보려는 무분별한 추태"라고 규탄하며 "힘의 정책과 제재압박에 매여달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망동이 초래할 것이란 미국의 종국적 멸망뿐"이라고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오만과 전횡은 절대로 통할 수 없다)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日 내각 관방장관·외상의 만경봉호 거론(만경봉호 운영이 핵·미사일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나라들의 노력에 미치는 영향 등) 발언에 대해 "우리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봉쇄하고 질식시켜 재침 실현의 유리한 기회를 마련해 보려는 목적"이라며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당장 그만두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중앙통신/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문제 대책위」 대변인 담화(5.27.)】 '유엔 고문 반대위, 위안부문제에 대한 韓日합의 재검토' 권고 보고서에 대한 日 정부의 반론 문서 제출을 규탄하며 "역사왜곡, 과거범죄의 책임 회피야말로 부적절한 행위, 자멸 행위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법적,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강하국(보건상), 세계 보건기구총회 제70차 회의 전원회의(스위스 제네바)에서 5월 24일 연설을 통해 "지속개발 의정에 제시된 보건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보건기구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

■ 【주요인물 동정】

□ 여러 나라와 지역 대표단들, '제20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 전람회' 참가 후 5.26~27 귀국 (중앙통신·평양방송)

05.28.(일)

■ 【「조선 평화옹호 전국 민족위」 대변인 담화(5.28.)】 美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로널드 레이건호의 한반도에서 합동 군사훈련 진행 예정(6월)에 대해 "한반도 정세를 최악의 폭발계선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것이며 우리(北) 핵무력의 다양화, 고도화를 더욱 다그쳐나갈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리용호(외무상), 아제르바이잔 국경절에 즈음하여 同國 대통령과 외무상에게 5월 28일 각각 축전(중앙통신)

* 김영남, 에티오피아 국경절에 즈음하여 同國 대통령에게 5월 28일 축전(중앙통신)

■ 김선경(외무성 유럽2국장), 슬로바키아 외무성 아시아 및 태평양 담당국장과 슬로바키아 외무성 청사에서 5월 26일 담화(중앙통신)

■ 한대성 駐 리히텐슈타인 北 대사, 5월 24일 주재국 군주 후계자(알로이스)에게 신임장 전달(중앙방송)

■ 김일성 생일(4.15.) 105주년 경축 '日-朝 우호 촉진 교류모임', 5월 20일 일본 교토에서 진행(중앙통신)

05.29.(월)

■ 北 국가 비상재해위원회 대표단 단장(강일섭 위원장), '재해위험 감소를 위한 세계연단'(멕시코)에서 5월 26일 연설(중앙통신)

– "특정한 나라들을 반대하는 일방적인 제재와 고립 정책이 재해위험 감소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 것"

■ 北, 「외무성」 대변인 대답(5.16. 화성 12형 시험발사 관련 유엔 안보리 성명 배격)을 5월 26일 유엔 안보리 공식문건 'A/71/906-S/2017/429호'로 배포(중앙통신)

■ 美 핵 항공모함 칼빈슨·로널드 레이건호의 내달 초 동해에서 합동훈련 추진에 대해 "미국의 〈대화〉 타령이 한갓 기만술책에 불과하며 침략자들의 북침 핵전쟁 야욕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고 비난 및 "우리(北)의 핵무기들은 미국 본토를 더 깊숙이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

■ 北美 대결구도는 "핵 對 핵의 구도로 전변 되었고, 우리(北)의 핵 억제력은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는 미제가 원하고 택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 작전, 전투에도 대응할 준비를 다 갖추었다"며 '對美 전면대결전 승리'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필승의 기상 떨치는 선군조선의 줄기찬 연속 공격전)

■ 미국의 '랜섬웨어 배후, 북한 가능성' 제기는 "비열한 모략극 날조이며, 北에 대한 제재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도발 감투를 씌워보려는 비열한 모략극)

■ 駐 유엔 北 상임대표부 부대표, "유엔 사무국은 유엔의 사명에 맞게 대북 제재결의들의 법률적 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 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할 데 대한 우리(北)의 제기에 적극 호응" 촉구 기자회견(5.25, 유엔 본부) 진행(중앙방송·중앙통신)

■ 【「외무성」 대변인 담화(5.29.)】 日 당국자들(아베 총리·관방장관)의 '北 핵무력 강화 관련 대북 압력, 제재분위기 고취'는 '군국화를 본격 실현 위한 법적 명분 마련' 때문이라고 비난하며 '핵무기들과 핵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 것' 강조(중앙방송·중앙통신)

■ 강하국(보건상, '세계 보건기구 총회 제70차 회의' 참가), 신임 세계보건기구 총국장·부총국장 및 쿠바·앙골라 등 보건상들과 '보건 분야 협조 확대발전 문제 토의'(중앙통신)

05.30.(화)

■ 美 전략 폭격기 B-1B 편대의 남한 군사분계선 근처 동해 상공 합동훈련(5.29.)에 대해서 "무모한 군사적 도발이며, 미제의 대화타령이 우리를 무장 해제시키려는 위선에 불과하며, 우리를 핵으로 말살하려는 야망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美 본토 초토화' 위협(중앙통신)

■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5.30.)】 G7 정상회의 대북 공동성명 발표(5.27.) 거론 "제재와 압력으로 우리의 핵 억제력을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하다"며 "제재와 압박이 커질수록 우리 핵무력의 다양화, 고도화는 더욱 다그쳐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중앙방송)

■ 日 자민당의 "위안부 합의 재교섭 있을 수 없다"는 발언 관련 "과거 범죄의 책임을 한사코 회피하려드는 망동은 인류의 정의와 양심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라며 "일본의 국가적·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배상이 없이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중앙통신·민주조선)

■ 리용호(외무상), 駐北 캄보디아 신임 특명 전권대사(신 분트언)와 5월 30일 담화(중앙통신)

* 최희철(외무성 부상), 駐北 이란 특명 전권대사(세예드 모흐센 에마디)와 5월 30일 담화(중앙통신)

■ 【주요인물 동정】

□ 박봉주(내각 총리)·리용호(외무상), 알제리 신임 수상(압델마지드 테부네)과 외무상(압둘카디르 무사힐)에게 5월 30일 축전(중앙통신)

□ 北 보건대표단(단장: 강하국 보건상),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제70차 회의(스위스 제네바) 참가 후 5월 30일 귀환(중앙통신·중앙방송)

05.31.(수)

■ "우리(北)는 최고수뇌부의 명령에 따라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장소에서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진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전략 탄도 로켓들은 앞으로도 연속적, 다발적으로 만리창공에 치솟아 오를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동방의 핵 강국, 로켓 맹주국의 앞길을 가로막을 자 이 세상에 없다)

* '화성 12형' 시험발사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저들이 파멸의 무덤속에 처박히느냐 마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있다는 것을 똑바로 명심하고 선택을 바로해야 한다"며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달리는 한 미국을 타격하기 위한 우리(北)의 핵공격 능력도 그만큼 강화되게 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민주조선)

■ 北-아시아 아프리카 단결위원회 창립 61주년 기념행사, 5월 30일 평양에서 진행(중앙통신)

■ 【주요인물 동정】

□ 北 철도성 대표단(단장: 장혁 철도상), '철도협조기구 제45차 장관회의'(러시아)에 참석하기 위해 5월 31일 평양 출발(중앙통신·중앙방송)

금월의 약사

- **05.01.** 근로자의 날(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노동자 파업 기념)
- **05.03.** 「조국통일 3대원칙」 제의일(1972년 5월 3일, 김일성 제의)
- **05.05.** 「조국광복회」 결성일(1936년 5월 5일, 김일성 조직)
- **05.06.** 제7차 노동당 대회 개최(2016년 5월 6일 ~ 9일)
- **05.07.** 「남북 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1992년)
- **05.09.** 김정은 「당 위원장」 추대일(2016년)
- **05.10.** 남한 단독 총선거 실시(1948년)
- **05.11.** 철도절(1953년 3월 18일 제정)
- **05.13.** 「조국 평화통일 위원회」 결성일(1961년 5월 13일 결성)
- **05.15.** 지질 탐사절(1970년 2월 3일 제정)
- **05.16.** 남북 차관급 회담 개최(2005년 5월 16일 ~ 19일, 개성)
- **05.17.** 남북 철도 연결구간 열차 시험운행(2007년)
- **05.18.** 「5.18 광주 민주화운동」(광주 인민봉기) 기념일
- **05.18.** 미국 금창리 조사단 방북(1999년)
- **05.20.** 「조선 학생위원회」 결성일(1960년)
- **05.21.** 건설자절(1971년 4월 30일, 제정)
- **05.23.** 「무산지구 전투 승리」기념일(1939년)
- **05.24.** 「조국통일 5대 방침」 제의일(1990년)
- **05.24.**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설치(1994년)
- **05.24.** 5.24 조치 발표(2010년)
- **05.25.** 「재일 조선인 총연합회」 결성일(1955년)
- **05.25.** 「개성 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07년)
- **05.25.** 북한, 제2차 핵실험 실시(2009년)
- **05.26.** 제1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2004년, 금강산)
- **05.27.** 제8차 남북 적십자회담 본회담 개최(1985년 5월 27일 ~ 30일, 서울)
- **05.28.** 「남북 해운합의서」 채택(2004년)
- **05.29.** 평양 교예단 서울 공연(2000년 5월 29일 ~ 6월 11일)

■ **05.29.** 제21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2007년 5월 29일 ~ 6월 1일, 서울)

■ **05.30.** 「조선 종교인협의회」 결성일(1989년 5월 30일 결성)

■ **05.31.** KEDO 집행이사회 경수로 사업 공식 종결 선포(2006년)